# 정답과 해설

1. 문학 / 2
2. 문법 / 23
3. 읽기 / 37
4. 듣기·말하기 / 44
5. 쓰기 / 51

# 1. 문학

## (1) 문학의 본질

### STEP 1 개념 확인 테스트 본문 14~15쪽

01 ㉠, ㉣, ㉤ 02 (1) – ㉡, (2) – ㉣, (3) – ㉢, (4) – ㉠ 03 푸른 바다, 고래 04 표현론적 관점 05 ㉢ 06 ㉠ 자유, ㉡ 야생 07 2 08 2 09 1 10 1 11 1

**01** 문학의 생활화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가꿀 수 있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문학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상상의 세계라 하더라도 대부분 현실의 삶을 바탕으로 한다.

**02** '글쓴이의 경험, 개성적 문체' 등을 구성 요소로 삼는 것은 작가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한 바를 전달하는 교술 갈래이고, '화자, 심상, 운율' 등을 구성 요소로 삼는 것은 서정적 자아가 개인의 주관적 정서를 노래하는 서정 갈래이다. 또 '등장인물, 대사, 행동' 등을 구성 요소로 삼는 것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극 갈래이다. '서술자, 배경, 인물, 사건' 등을 구성 요소로 삼는 것은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인 서술자를 내세워 사건을 전달하는 서사 갈래이다.

**03** 정호승의 시 〈고래를 위하여〉는 세상을 향한 청년의 드높은 이상과 꿈을 노래한 시이다. '푸른 바다'는 청년의 마음을 푸른색의 시각적 심상으로 나타낸 것이고, '고래'는 청년의 이상과 꿈을 상징한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청년이라면 꿈과 이상을 가진 자아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

**04** 작가인 윤동주의 삶과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한 내용이므로,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05** 제시된 시조에서 초장의 '눈'은 새 왕조에 협력할 것을 강요하는 무리를, '휘어진'은 그 속에서 견디는 고충을, '굽다턴고'는 변절을 뜻한다. 화자는 이처럼 새 왕조에 협력할 것을 강요하는 무리들의 회유에도 결코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대나무를 높은 절개를 지닌 존재로 형상화하여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작가가 이 시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 가치는 신념, 신의를 굽히지 않고 굳게 지키는 꿋꿋한 태도인 절개, 즉 '절(節)'이다.

**06**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는 동물에 대한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한 소설이다. 이 글에서 어머니는 사람에게 자유가 소중하듯이 야생 동물에게도 자유가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하고, 이런 점에서 동물은 철창 안이 아니라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07** 천자는 평국이 여성임에도 평국에게 국난을 극복하는 중대한 소임을 맡기고 있다.

**08** 허생이 섬을 빠져나올 때 글을 아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온 행동에는 공리공론을 일삼고 백성을 착취하는 양반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오답 피하기

1 의 '배금주의'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돈 모으기에 두는 경향이나 태도를 뜻한다. 허생이 오십만 냥을 버린 것은 당시 조선의 경제 규모가 작아서 그 정도의 돈을 유통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배금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09** 이 시에서 화자는 부끄러움이 없는 순수한 삶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노래하고 있다.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바람은 이 시에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2 이 시에서 자연물은 동화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는 매개체로 쓰이고 있다.

**10** ㉡에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실망감과 절망감으로 변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닫힌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1** 〈보기〉는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효용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1 은 〈홍길동전〉을 읽은 독자들이 신분 차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홍길동전〉이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였으므로 효용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2 는 축첩제, 적서 차별과 같은 〈홍길동전〉의 배경이 되는 조선 시대의 현실을 중심으로 감상한 것으로,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 STEP 2 기출 기초 테스트 본문 16~17쪽

01 ① 02 동양 척식 주식회사(동척) 03 ⑤ 04 ① 05 ① 06 예시 답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기성품 인생'을 풍자하기 위해서 주인공의 이름을 'P'라고 지었을 것이다. 07 ⑤ 08 기침을 하자 09 ④ 10 ③

**01**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작품에 담긴 작가의 생각과 가치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좋다.

**(02~03) 현진건, 〈고향〉**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부분적으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남.)

- **배경** 일제 강점기, 서울행 기차 안
- **주제** 일제 강점기 민중의 참담한 생활상 폭로
-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중반의 조선 사회, 특히 일제의 수탈로 황폐해진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기차 안에서 우연히 알게 된 '그'의 인생 역정을 통해 당대 조선의 농촌 공동체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식민지 현실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짓밟았는지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극적인 사건의 전개나 인물 관계 등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옮겨 놓은 액자식 구성의 이야기 전개를 통해 강렬한 현실 고발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 **짜임**

| | |
|---|---|
| 발단 | '나'는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기이한 차림새의 '그'를 봄. |
| 전개 | '나'는 '그'를 외면하려 하였지만, '그'의 딱한 신세타령을 듣고 차차 연민의 정을 느낌. |
| 위기 | '나'는 농토를 잃고 고향을 떠나 순탄치 않은 유랑 생활을 하던 '그'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됨. |
| 절정 | '그'는 '나'에게 피폐해진 고향에서 유곽에 팔려 갔다가 질병과 빚만을 안고 돌아온 옛 연인과 만난 이야기를 해 줌. |
| 결말 | '그'는 취흥에 겨워서 어릴 때 부르던 아픔의 노래를 읊조림. |

**02**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설치한 식민지 착취 기관이다. 이를 통해 이 글이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세상이 뒤바뀌기 전에도 주민들은 자신의 땅이 아니라 역둔토를 빌려 농사를 지었다.

**04** '지금'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일제 강점기를 가리키며, '눈 나리고'는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 (05~06)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풍자 소설
- **시점** 3인칭 전지적 시점
- **배경** 1930년대 서울
- **주제**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비애
-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대에 극심한 취업난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들었던 지식인 계층의 비애를 그린 소설이다. 고등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되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주인공 P는 어린 아들 창선이를 교육시키지 않고 인쇄소에 보내기로 결심한다. 그가 아들을 인쇄소에 맡기고 나오며 내뱉는 탄식 "레디메이드 인생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팔리었구나."는 식민지 조선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비애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다.
- **짜임**

| | |
|---|---|
| 발단 | 주인공 P는 대학을 나온 인텔리이지만 무직으로 극도의 가난에 시달림. |
| 전개 | 거리로 나온 P는 자신과 같은 지식인 실업자를 배출해 낸 식민지 교육 정책을 원망함. |
| 위기 | 마침 찾아온 친구인 H와 M을 따라 나선 P는 H의 책을 전당포에 잡힌 돈으로 술을 마심. |
| 절정 | 며칠 후 P는 친분이 있는 어느 인쇄소 문선 과장에게 아들 창선을 견습공으로 채용해 줄 것을 부탁함. |
| 결말 | P는 창선을 인쇄소에 맡기고 인쇄소를 나오며 레디메이드 인생이 임자를 만나 팔리게 되었다며 자조함. |

**05** 이 글에는 주인공 P에 대한 서술자의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서술자는 P가 제대로 된 일이나 어떤 벌이도 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다.

**06**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로마자로 설정하여 익명화하고 있다. 이는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특정한 이름을 가진 개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과 연결된다. 또한 독자들이 어떤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등장인물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즉 개개인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사회,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 (07~08) 김수영, 〈눈〉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제재** 눈
- **주제**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 **해제** 이 작품은 순수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대립적인 시어의 활용과 시구의 반복을 통해 형상화한 시이다. 이 시에서 '기침을 하는 행위'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살고 있는 화자의 내면 의식에 잠재해 있는 속물적 근성, 소시민성, 현실과 타협하려는 부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정화하여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을 회복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래를 뱉는 행위'는 현실의 더러움을 정화하고 순수한 삶에 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과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짜임**

| | |
|---|---|
| 1연 | 순수한 생명력을 지닌 눈 |
| 2연 | 순수한 생명력 회복의 의지 |
| 3연 | 눈의 강인한 생명력 |
| 4연 | 자기 정화를 통한 순수한 삶 소망 |

**07** 절대론적 관점은 작품의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는 '눈은 살아 있다'와 '기침을 하자'를 반복, 변형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화자가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기침을 하자고 권하면서 눈과 같이 살아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과 말을 주고받는 대화의 방식은 이 시에 쓰이지 않았다.

**08** '시인다운 시인'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고려할 때, '기침을 하자'라는 시구는 정의와 자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09~10)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배경** 1970년대
- **주제** 6·25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 노력의 좌절
- **해제** 6·25 전쟁에서 죽은 오빠와 올케를 대신하여 '나'와 어머니는 조카 '훈이'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하여 키운다.

'나'는 훈이를 통해 6·25 전쟁이 앗아 간 행복을 되찾기를 바란다. 그것이 전쟁에 대한 통쾌한 복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모르는 훈이와 갈등을 겪게 되면서 좌절에 빠진다. 작가는 이를 통해 전쟁과 이념의 상처가 인물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정직과 근면의 이데올로기가 개발 시대의 현실 속에서 좌절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욕망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 **짜임**

| | |
|---|---|
| 발단 | '나'는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은 조카 훈이를 양육하게 됨. |
| 전개 | 자랄수록 오빠를 닮아 가는 훈이가 문과를 택한다고 하자 '나'와 어머니는 '훈이'를 이과로 전과시킴. |
| 위기 | 삼류 대학 공대 토목과를 졸업한 훈이는 취직이 되지 않자 해외 취업을 하겠다고 하며 '나'와 갈등을 겪음. |
| 절정 | Y건설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취직한 훈이를 만나러 간 '나'는 열악한 현실을 보고 훈이를 집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훈이는 이를 거절함. |
| 결말 |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훈이를 무난하게 키우는 데 실패한 것을 인정하며 혼란스러워함. |

**09** 훈이는 '나'가 자신의 해외 취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할머니를 떠맡게 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고 하였다. '나'는 전쟁의 피해자인 훈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 훈이가 이 땅에서 잘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10** '카메라'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삶을 상징한다.

## STEP 3 교과서 기본 테스트 본문 18~20쪽

| | | | |
|---|---|---|---|
| 01 ② | 02 ② | 03 ⑤ | 04 ⑤ |
| 05 ① | 06 ② | 07 ④ | 08 ⑤ |
| 09 ③ | 10 ④ | | |

### (01~05) (가) 이육사, 〈절정〉 / (나) 김선우, 〈신의 방〉

(가) 이육사, 〈절정〉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제재** 현실의 극한 상황
- **주제** 극한 상황에서의 초월적 인식
-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엄혹한 시대 상황과 맞서 싸우면서 치열한 갈등을 통해 도달한, 비극을 초월하려는 정신적 경지를 잘 보여 주는 시이다. 1, 2연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냉혹한 시대에 화자가 처한 현실적 한계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화자를 이 '절정'의 극한적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은 '매운 계절의 채찍'인데, 이때 '매운 계절'은 '겨울'을 가리키며, 가혹한 추위가 지배하는 시간인 일제 강점기의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참된 삶을 추구하는 의지와 희망을 회복하는 화자의 현실 인식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 **짜임**

| | |
|---|---|
| 1연(기) | 수평적 공간에서의 극한 상황(북방) |
| 2연(승) | 수직적 공간에서의 극한 상황(고원) |
| 3연(전) | 극한 상황에서의 화자의 심리 |
| 4연(결) | 극한 상황을 초극하려는 의지 |

(나) 김선우, 〈신의 방〉

- **갈래** 산문시, 서정시
- **제재** 통시
- **주제**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생명의 공간 통시
- **해제** 이 작품은 제주도의 전통 재래식 화장실인 '통시'를 생명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해석한 시이다. '통시'는 인간의 배변과 돼지의 생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시인은 이 '통시'에서 생명의 순환을 발견한다. 인간이 먹고 남은 음식물과 배설물이 돼지에게로 가고, 돼지의 똥은 거름이 되어 보리밭으로 가고, 보리는 다시 인간에게로 가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관찰에서 '생명이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인식하고, '통시'를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로 개량하려는 이들의 가치관과 대립함을 보여 준다.
- **짜임**

| | |
|---|---|
| 1연 |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통시 |
| 2연 | 신이 거주하는 장소로 여겨졌던 생명의 공간인 통시 |

**01** (가)에서 '북방'과 '고원'은 외부의 시련으로 쫓겨 오게 된, 생존의 극한을 느끼는 공간을, (나)에서 '통시'는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생명의 공간을 뜻한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이러한 공간의 특징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2** (가)에서 '고원'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한계 상황을 뜻하며,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극한의 상황에 놓인 우리 민족의 처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03** '통시'는 생명의 순환을 보여 주는 공간으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시인은 이러한 '통시'를 통해 생태적 삶의 가치라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04** 화자는 변소를 개량하라고 한 정부 시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주에 생명 순환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상징하는 통시가 남아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05** ㉠은 역설적 표현으로, 강하고 차가운 '강철'과 아름답고 희망적인 '무지개'라는 이질적 이미지를 연결하여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①의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역시 '곱다'와 '서럽다'가 의미 연결에 있어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는 의인법, ③은 의인법과 대구법, ④는 대유법과 설의법, ⑤는 직유법과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 (06~10)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농촌 소설
- **시점** 3인칭 전지적 시점

- **배경** 1990년대 말, 신대리(경상도 농촌 마을)
- **주제** 황만근의 덕성과 이타적인 삶 /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과 각박한 인심에 대한 비판
- **해제** 이 작품은 1990년대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풍자와 함께 암울한 농촌 현실을 고발한 소설이다. 비교적 객관적인 시선을 지닌 민 씨를 통해 황만근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추적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는데, 바보 취급을 받던 황만근이 실제로는 매우 긍정적인 인물이며 오늘날 현대인에게 결핍된 관용과 도량의 정신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 주고 있다.
- **짜임**

| | |
|---|---|
| 발단 | 황만근의 실종과 이를 둘러싼 이장과 민 씨의 갈등 |
| 전개 | 황만근의 이타적이고 성실한 삶 |
| 위기 | 황만근에게 농가 부채 탕감 궐기 대회에 참가할 것을 강권하는 이장 |
| 절정 | 사라지기 전날 밤 황만근이 민 씨에게 밝힌 농사에 대한 소신 |
| 결말 | 황만근의 죽음과 그에 대한 민 씨의 평가 |

**06** 이 글은 비교적 객관적인 시선을 지닌 인물인 민 씨를 내세워 '황만근'이라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전개하면서 그의 덕성과 이타적인 삶을 그리고 있다.

**07** 동네 일인 경우에는 대가 없이 일했지만,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하는 경우에는 반값을 받고, 경운기와 함께 할 때에는 제값을 받았다고 하였다.

**08** 쌀을 수매하면 먹고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쌀값이 많이 올라 기계화 영농을 하는 농민이 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은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일을 벌였다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파산하여 버려진 시설에 해당한다. 이는 무리한 대출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10** 황만근은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어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빚에 의존하지 않고 정직한 농사꾼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창의·융합 서술형** 본문 21쪽

**01** 예시 답 가슴 에이게 기다리지만,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실망하고 안타까워한다.

**02** 예시 답 ① 갖고 싶었던 운동화 / 운동화를 사기 위해 스스로 용돈을 모았

② 민주주의, 평화, 자유… /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얻을 수 있는 가치

**03** 예시 답 사랑하는 ○○에게 / 안녕, ○○아. 이 시를 읽으면서 네가 꼭 이 시를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너를 짝사랑하면서 내가 느꼈던 설렘과 초조함을 이 시에서 발견할 수 있었거든. 그동안 잘 표현하진 못했지만 이 시를 통해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생략)

## (01~02)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제재** 간절한 기다림
- **주제** 절실한 기다림과 만남의 의지
- **해제** 이 작품은 누구나 경험했을 절실한 기다림의 정서를 '가다', '오다'를 기본으로 한 단순한 시어의 반복과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기다리는 마음의 변화 과정을 '기다림의 초조함 → 기다림의 실망감과 안타까움 → 기다림의 의지와 희망'으로 섬세하게 표현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기다림의 대상인 '너'는 화자가 사랑하는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작가가 갈망하는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없는 모든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도 있다.
- **짜임**

| | |
|---|---|
| 1~5행 | 모든 소리를 '너'의 인기척으로 느낄 만큼 간절하게 '너'를 기다림. |
| 6~12행 | 기다리는 대상이 오지 않아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느낌. |
| 13~22행 | 희망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너'를 기다림. |

**01** 6~12행에서는 '너'를 초조하게 기다리지만 끝내 오지 않는 '너'로 인해 절망하는 '나'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나'는 '네가 오기로 한 자리'에 미리 가서 초조함과 설렘 속에서 '너'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너'는 끝내 오지 않고, 매번 '너'인 줄 알았다가 네가 아님을 확인하는 일은 나에게 '가슴 에이는' 고통을 가져다준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화자의 태도와 정서 변화를 다른 부분과 동일한 형식으로 정확하게 쓴 경우 | 4 | 4 |
| 화자의 태도와 정서 변화는 유사하게 썼지만, 다른 부분과 동일한 형식으로 쓰지 못한 경우 | 2 | |
| 화자의 태도와 정서 변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경우 | 0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 | |

유사 정답 | 화자의 태도와 정서 변화를 '예시 답'과 유사하게 작성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02** 〈보기〉를 참고하여, '기다림'이 결국 어떠한 사람이나 대상을 향해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행위가 동반됨을 이해하고, 이에 어울리는 경험을 작성하도록 한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너'에 내가 기다렸던 대상을 적고, 그 이유에 본인의 노력을 적은 경우 | 6 | 6 |
| '너'에 내가 기다렸던 대상을 적었으나, 그 이유에 본인의 노력을 적지 않은 경우 | 3 | |
|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 | 0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 | |

**03**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 시의 시적 상황과 '절실한 기다림과 만남의 의지'라는 이 시의 주제를 고려하여 시를 추천하고 싶은

대상과 이유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이 시의 시적 상황이나 주제가 시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에 반영되어 있고, 그 추천 대상과 어울리는 경우 | 6 | 6 |
| 이 시의 시적 상황이나 주제가 시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에 반영되었으나 추천 대상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 | 3 | |
|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 | 0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 | |

## (2) 서정 갈래

### STEP 1 개념 확인 테스트 본문 28~29쪽

**01** 시 **02** ㉠ 함축적, ㉡ 화자, ㉢ 심상, ㉣ 운율
**03** 나 **04** 있지 않다 **05** 그리워하고 **06** 윗목
**07** (1) – ㉢, (2) – ㉡, (3) – ㉣, (4) – ㉠ **08** ㉠ 생생, ㉡ 구체적
**09** (1) 공감각적 (2) 촉각적 (3) 시각적 (4) 후각적 (5) 청각적
**10** (1) 직유법 (2) 의인법 **11** 가엾음 **12** 2
**13** 2 **14** 1 **15** 2

**01** 서정 갈래는 화자의 주관적인 사상과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상화하는 문학의 갈래로, 대표적인 하위 갈래로 시가 있다.

**02** 서정 갈래에서는 문맥을 통해 여러 가지 뜻을 암시하거나 내포하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가 사용된다(㉠). 또한 화자는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허구적으로 설정한 사람, 즉 시 속에서 말하는 이이다(㉡). 서정 갈래에서는 시적 대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심상을 사용하며(㉢), 말소리나 어구, 음보, 글자 수 등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03**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1인칭 대명사인 '나'로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04** 〈보기〉에서 시적 화자는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05** 이 시의 시적 화자인 '나'는 자신을 위해 눈 속에서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 오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

**06**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어두운 빈방에서 홀로 '엄마'를 기다렸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다. 이 시에서 어린 시절 시적 화자가 느꼈던 외로움과 서러움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는 '윗목'이다.

**07** (1)은 자음 'ㄱ'과 'ㄹ', 모음 'ㅏ'와 'ㅐ', 'ㅣ'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2)는 음성 상징어인 '도란도란'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3)은 각 행을 3음보로 끊어 낭송할 수 있도록 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4)는 '강강술래 나는 ~이 되고 싶었다'라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08** 시에서 심상을 사용하면 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감각적이고 보다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09** (1)은 '은빛 비린내'에서 후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 (2)는 '시리도록'에서 촉각적 심상이, (3)은 '어두운 방 안'과 '바알간 숯불이 피고'에서 시각적 심상이, (4)는 '향기로운 꽃지짐'에서 후각적 심상이, (5)는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서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10** (1)에서는 '낙타'를 '어린 시절 선생님'에 직접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2)에서는 '담쟁이'를 사람처럼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11**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미워져 돌아가다가 그 사나이가 가엾어져 다시 우물로 돌아와 들여다본다. 그러나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가다 다시 그 사나이를 그리워하고 있다.

**12** 이 시에서는 '~을 보면'이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3** 심상은 주로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대상을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4**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무력하고 나약한 삶에서 오는 슬픔과 어리석음을, 되새김질하는 소처럼 되새기며 성찰하고 있다.

**15** '까마귀'는 시적 화자의 서러운 마음을 대신해 주는 대상으로, '까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에는 감정 이입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 STEP 2 기출 기초 테스트 본문 30~31쪽

**01** ② **02** (1) 꽃처럼 피어나는 피, 어두워 가는 하늘 밑 (2)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 불며 **03** ⑤
**04** ③ **05** ① **06** ㉠ 역설법, ㉡ 영탄법, 직유법
**07** ③ **08** ② **09** ⑤ **10** ②

**01** 서정 갈래는 작가가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를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 갈래이다.

**(02~03)** 윤동주, 〈십자가〉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제재** 십자가
- **주제** 조국 광복을 위한 자기희생의 의지
- **해제** 이 작품은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시적 화자가 겪는 방황과 고뇌를 자기희생의 숭고한 의지로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 추구의 과정을 과장됨 없이 노래한 시이다. 이 시의 바탕에는 기독교적 수난 의식과 속죄양 의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잘못된 현실에 맞선 시인 자신의 시대적 양심이 그보다 앞서는 근본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 **짜임**

| | |
|---|---|
| 1연 | 시적 상황의 제시 |
| 2연 | 삶의 목표와 현실과의 거리감 |
| 3연 | 절망적 현실 속에서의 방황과 갈등 |
| 4연 | 자기희생의 삶에 대한 소망 |
| 5연 | 자기희생의 의지 |

수록 부분

**02** 이 시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피'와 '어두워 가는 하늘 밑'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시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와 '휘파람 불며'는 귀로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청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03** 이 시에서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자기희생에 대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4** 직유법, 설의법, 역설법 등의 표현 방법은 시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표현을 참신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운율의 형성과는 밀접한 연관이 없다.

**05** 이 시에서는 음성 상징어인 '울퉁불퉁', '구불구불'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6** ㉠에서 '외로운'과 '황홀한'은 서로 이질적 의미를 지닌 시어인데 함께 '심사'를 꾸미는 말로 쓰였다. 이처럼 겉으로는 상식과 동떨어진 비논리적 형식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는 표현 방법을 역설법이라고 한다. ㉡은 '아아'라는 감탄사와 '-구나'라는 감탄형 어미가 쓰였으므로 영탄법, '너'를 '산새'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였으므로 직유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07** 이 시에는 '나', '우리'처럼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너무 늙어 앞도 잘 보지 못하는'이란 구절에서 '할머니'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드러나 있다.

② '추석날 천 리 길 고향에 내려가',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산국화 냄새 나는'이라는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할머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⑤ '풀여치 하나 밟을세라' 안절부절 허리 굽혔다는 시구에서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인물의 행동이 나타나 있다.

**08** 이 시에는 반어법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①은 '아아 누구던가 ~ 안 그는.'에서, ③은 '아아 누구던가'에서, ④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에서, ⑤는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9** 이 시에서 화자는 아이를 기다리는 오 분간 떠올린 삶의 의미를 '~ 것 같다', '~겠지'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독백하듯이 표현하고 있다.

**10** 이 시의 색채어는 문맥상 '금색'을 의미하는 '금'뿐이다.

오답 피하기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공감각적 심상(시각의 청각화)이 드러나는 표현이다.

## STEP 3 교과서 기본 테스트 본문 32~34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⑤
**05** ② **06** ④ **07** ④ **08** ⑤
**09** ④ **10** ⑤ **11** 예시 답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 준다. **12** ②

**(01~04)** 정지용, 〈향수〉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제재** 고향의 추억
-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 **해제** 이 작품은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며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다. 각 연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한 고향의 정경을 유기적 관련성 없이 병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매 연마다 반복되는 후렴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설피', '함초롬'과 같이 참신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는 시어와 '실개천', '얼룩백이 황소', '질화로', '짚베개'와 같은 토속적 정감을 주는 시어들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 **짜임**

| | |
|---|---|
| 1연 | 고향 마을의 평화롭고 한가로운 정경 |
| 2연 | 겨울밤 풍경과 늙으신 아버지에 대한 회고 |
| 3연 | 아름다운 꿈과 신비로 가득 찼던 유년 시절에 대한 회고 |
| 4연 | 어린 누이와 소박한 모습의 아내에 대한 회고 |
| 5연 | 정겹고 단란한 고향집의 정경 |

**01** 이 시에서는 '실개천', '얼룩백이 황소', '질화로', '짚베개' 등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정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2** '밤바람 소리'라는 시구를 고려할 때, 2연의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 따라서 방 안에서 낮잠을 자는 아버지를 그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2연에서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노년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도록 그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03** ㉠은 매 연의 끝에 후렴구처럼 쓰여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설의적 표현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04** '옛이야기 지줄대는'은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 표현이다.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구절은 청각을 시각화하여 표현한 '금빛 게으른 울음'이다.

**(05~08)**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제재** 소외된 이웃들의 슬픔
- **주제**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 추구
- **해제** 이 작품은 슬픔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남의 아픔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반성하는 한편, 소외된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노래한 시이다.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자로 설정되어 있는 '기쁨'은 이기적인 존재로 나타나 있다. 화자는 자신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사랑'보다, 타인의 고난과 시련에 관심을 갖는 '슬픔'이 오히려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면서 '슬픔'을 '너'에게 주고 싶어 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독자에게 가난과 소외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 **짜임**

| | |
|---|---|
| 1~6행 | 이기적인 '너'에게 전하는 슬픔의 평등함. |
| 7~14행 | 무관심한 '너'에게 전하는 기다림의 힘 |
| 15~19행 |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여는 슬픔의 힘 |

**05** 이 시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과 같은 역설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6** 이 시의 화자는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 게으른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는 ④는 이 시의 주제와 거리가 멀다.

**07** 이 시에서 '함박눈'은 강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존재로, 가난으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추위와 고통을 주는 소재로 쓰였다. 이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는 존재인 '봄눈'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08** 시의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이웃에게 공감할 수 있는 슬픔의 가치를 알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연민과 애정을 보이며 더불어 사는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추측할 수 있다.

**(09~12)** 윤동주, 〈자화상〉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제재**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 **주제** 자아 성찰과 자신에 대한 미움과 연민
- **해제** 이 작품은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시이다. 이 시에서 '우물'은 화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우물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화자의 이러한 부끄러움은 암담했던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로 볼 수 있다. 화자는 돌아가다 자신에 대한 가여움이 생겨 다시 들여다보고, 또 미워져 돌아가고, 다시 그리워지는 심리적 갈등을 보인다. 끝부분에서 화자는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과 함께 순수했던 자신의 과거 모습을 추억하면서 자기혐오에서 비롯된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짜임**

| | |
|---|---|
| 1연 | 우물을 찾아가 자아를 성찰함. |
| 2~3연 | 우물 속 평화로운 풍경과 대조되는 자신에 대한 미움 |
| 4~5연 | 자신에 대한 연민과 미움, 그리움 |
| 6연 | 추억 속 자신에 대한 그리움 |

**09** 이 시의 화자는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또한 일제 강점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한편,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 이 시에는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보다는 식민지 지식인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우물 속에 비친 사나이로 대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11** 이 시에서 화자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미움 – 연민 – 미움 – 그리움'의 상반된 정서를 오가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 역시 '구리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다지도 욕될까'라고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12** '파아란 바람이 불고'에는 촉각적 대상인 '바람'을 '파아란'과 같이 시각화하여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촉각의 시각화)이 나타나 있다. ②는 '종소리'라는 청각을 '흔들리'는 이라며 시각으로 바꾸어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은 촉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고, ③은 시각적 심상, ④와 ⑤는 촉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 창의·융합 서술형 본문 35쪽

**01** (1) 예시 답 ① 어미 '-ㅂ니다'를 반복함. ② '별 하나에 ~와/과'라는 시구를 반복함. ③ '~이 ~은/는 까닭이요(입니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함. ④ '어머니'라는 시어를 반복함. (2) 예시 답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을 산문 형식으로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그리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02** (1) 예시 답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 아름답고 순수한 이상 세계 (2) (생략)

### (01~02) 윤동주, 〈별 헤는 밤〉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제재** 별
- **주제**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성찰
- **해제** 이 작품은 밤하늘의 별을 통해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이상에 대한 동경과 자기 성찰을 보여 주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이다.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 화자의 자기반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통해 현재의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 **짜임**

| | |
|---|---|
| 1~3연 | 가을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떠올리는 상념(현재) |
| 4~7연 | 아름다웠던 과거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거) |
| 8~9연 | 부끄러운 삶에 대한 반성(현재) |
| 10연 |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미래) |

**01** (1) 시에서는 특정 어미나 시어, 시구,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2) 1~4연까지 운문 형식을 취한 것과 달리 5연에서는 산문 형식을 취하여 운율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는 그리움의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1)과 (2)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 4 | 4 |
| (1)과 (2) 중 하나만 정확하게 쓴 경우 | 2 | |
| (1)과 (2) 모두 제대로 쓰지 못한 경우 | 0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 | |

**유사 정답 |** (1)의 경우, 최소한 2개 이상을 정확하게 써야 정답으로 인정한다. (2)의 경우 의미상 '그리움의 심화'와 관련지어 작성한 경우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02** (1) 이 시에서 '별'은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며, 화자가 아름답게 여기며 그리워하고 지향하는 대상, 화자의 이상 등을 함축한다.
(2) 4연의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와 5연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들은 화자에게 의미 있는 삶의 가치나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빈칸을 채워서 이 시처럼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낼 수도 있고, '기쁨', '설렘', '안타까움', '서러움' 등 현재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다채롭게 표현해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1)과 (2)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 4 | 4 |
| (1)과 (2) 중 하나만 정확하게 쓴 경우 | 2 | |
| (1)과 (2) 모두 제대로 쓰지 못한 경우 | 0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 | |

**유사 정답 |** (1)의 경우 '그리운 대상을 떠올리도록 함.',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매개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는 빈칸을 모두 채우고 화자의 정서를 잘 담고 있다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 (3) 서사 갈래

### STEP 1 개념 확인 테스트 본문 40~41쪽

**01** 서술자 **02** ○, ○, ×, ○, × **03** 여자 **04** 직접적 제시
**05** 인물과 인물의 갈등 **06** (1) 이해심이 많고 자상하다. (2) 지고지순한 면은 있지만 인내심이 약하다. **07** (1) ㉢ (2) ㉡ (3) ㉠ **08** 1 **09** 2 **10** 1 **11** 2

**01** 서사 갈래에서 '서술자'는 작가가 만들어 낸 허구적 대리인으로서, 작품 속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02** '근우'의 말은 내적 갈등에 대한 설명이며, '미영'의 말은 3인칭 전지적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입체적 구성은 역행적 구성으로 시간의 순서가 바뀌어 제시되므로, 과거의 사건을 불러낼 때 활용할 수 있다.

**03** '어의'는 '평국'의 맥이 남자의 맥이 아니라고 '천자'에게 말하고 있으며, '천자'는 여자가 어찌 전장에서 적병 십만 군을 소멸하고 왔겠느냐고 한다. 또한 '평국'은 자신의 본색이 탄로 날 것을 염려한다. 세 인물의 말과 생각을 고려할 때 '나의 본색'은 평국이 여자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04** 이 글에서는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곧고 ~'와 같이 '그'의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5** 이 글에서는 성례를 시켜 주지도 않고 일만 시키는 '장인님'과 '나'가 대립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06** 선덕 여왕은 자신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백성을 만나 주려 하고, 잠든 지귀에게 자신의 팔찌를 증표로 남기고 갈 정도로 자상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지귀는 선덕 여왕을 사랑하다 상사병에 빠질 만큼 지고지순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나, 선덕 여왕이 오기도 전에 잠이 들 정도로 인내심이 부족한 면이 있다.

**07** (1)은 3인칭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까지 서술하고 있다. (2)는 1인칭 서술자가 중심 인물인 '그'의 모습을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3)은 1인칭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사건과 그로 인한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08** '나'는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겁을 내고 있다.

**09** 병식이 새를 죽인 것에 대하여 병국은 분노하고 있지만, 병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10**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으로 제시되면서, '나'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이 소설에서 봄은 이성 간의 가슴 설레는 사랑의 감정을 충돌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 이 글은 서술자가 '강 노인'의 심리까지 서술하고 있으므로,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한 소설임을 알 수 있다.

## STEP 2 기출 기초 테스트 본문 42~43쪽

**01** ③ **02** ② **03** ① **04** 십만 원은 나에게 부담이 되니 빌려줄 수 없다. **05** ⑤ **06** ⑤
**07** ③ **08** ② **09** ⑤

**01** 소설 속에서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간접적 방식뿐만 아니라 직접적 제시 방식도 있다.

### (02~03) 공선옥, 〈한데서 울다〉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시점** 3인칭 전지적 시점
- **제재** 도시와 시골에서의 삶
- **주제** 삶의 가치가 다른 현대인의 갈등과 폭력적 도시에 대한 대응 의지
- **해제** 이 작품은 자본주의와 문명을 상징하는 도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물을 통해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욕망을 그린 소설이다. 이 작품은 정희라는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도시의 아파트와 시골집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과 각각의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이 정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시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서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고민하는 정희라는 인물에 집중함으로써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짜임**

| | |
|---|---|
| 발단 | 정희는 어렵게 장만한 도시의 아파트를 '한데'로 인식하며 시골집을 보러 다님. |
| 전개 | 남편을 설득하여 아파트를 세놓고 너른 뒷마당이 있는 시골집으로 이사를 감. |
| 위기 | 남편과 갈등을 겪으며 시골집으로 이사 왔지만 시골은 정희가 기대했던 것처럼 평화롭고 고요한 곳이 아니었음. |
| 절정 | 사냥꾼들과 다툰 정희는 다시 도시의 집을 보러 다니다가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에게 위협을 당함. |
| 결말 | 시골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번개탄 장수를 만난 정희는 시골에서의 삶에 위안을 찾게 됨. |

**02** 이 글에서는 집에 대한 가치관 차이로 남편과 아내(정희)가 갈등을 겪고 있다.

**03** 이 글의 서술자는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남편과 정희의 심리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04** 제시된 글에서 '나'는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문제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05** 아들은 땅을 금전적 가치로 판단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땅을 만물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06** 옹 좌수는 학 대사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한자 성어는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뜻하는 '안하무인'이다.

오답 피하기
① 결초보은: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
② 수구초심: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③ 호가호위: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④ 학수고대: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07** '나'와 '그(유자)' 모두 비상식적으로 비싼 잉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인물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8~09)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갈래** 단편 소설, 여로형 소설
- **시점** 3인칭 전지적 시점
- **배경** 1970년대 겨울. 공사장에서 삼포로 가는 길
-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민중들의 삶의 비애와 연대감
- **해제** 이 작품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농촌의 해체와 근대화 과정에서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소설 속 주요 인물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계속 떠돌아다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린 인물들이다. 제목에 쓰인 삼포는 가공의 지명이지만,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에게는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상적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삼포는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 이 소설이 고향 상실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짜임**

| | |
|---|---|
| 발단 |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밀린 밥값을 떼어먹고 도망치다가 삼포로 가는 정 씨를 만나 동행하게 됨. |
| 전개 | 영달과 정 씨는 기차를 타기 위해 감천으로 가던 중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를 만나고, 세 사람은 동행이 됨. |
| 절정 | 백화는 영달에게 호감을 느껴 자기 고향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하지만 영달은 이에 응하지 않음. |
| 결말 | 대합실에서 만난 노인에게 변화된 삼포의 이야기를 들은 정 씨는 마음의 정처를 잃음. |

**08** 이 글에서 대화를 통해 갈등이 고조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노인이 영달과 정 씨에게 변화한 삼포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피하기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정 씨와 영달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①), '노인'의 말은 '삼포'가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④).

**09** 정 씨는 산업화로 인해 변해 버린 고향의 모습에 대해 듣고 마음의 안식처를 잃었다며, 영달이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STEP 3 교과서 기본 테스트 본문 44~46쪽

| | | | |
|---|---|---|---|
| 01 ⑤ | 02 ③ | 03 ⑤ | 04 ② |
| 05 ④ | 06 ③ | 07 ④ | 08 ③ |
| 09 ⑤ | 10 ② | | |

### (01~05) 김유정, 〈봄·봄〉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농촌 소설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배경** 1930년대 봄, 강원도 산골의 농촌 마을
- **주제** 우직하고 순박한 데릴사위와 그를 이용하는 교활한 장인 간의 갈등
- **해제** 이 작품은 우직하고 순박한 '나'가 심술 사나운 장인과 혼례를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을 해학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또한 신분적으로 강자인 마름이 약자인 머슴을 착취하던 당대 농촌 상황을 웃음 속에서 비판적으로 보여 준다.
- **짜임**

| | |
|---|---|
| 발단 | '나'는 점순이와 혼례를 올리기로 하고 3년 7개월이나 변변한 대가 없이 일을 해 주고 있음. |
| 전개 | 장인은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혼례를 미루고 '나'는 구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여 중재를 요청하지만 구장은 결국 장인의 편을 듦. |
| 위기, 절정 | 뭉태가 충동질하고 점순이 부추겨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나'는 결국 장인과 몸싸움을 벌임. 그 상황에서 점순이는 아버지의 편을 듦. |
| 결말 | 장인은 가을에 혼례를 올려 주겠다며 '나'를 다독이고, 신이 난 '나'는 다시 일하러 나감. |

**01** 이 글은 작품 속 서술자 '나'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⑤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02** '나'는 남이 이틀 품 들일 논을 하루 만에 혼자서 해낼 정도로 농사일을 잘하는 인물이다.

**03** 장인은 마름 신분으로 뇌물을 주지 않으면 소작권을 박탈하는 등 신분적 우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소작인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나'가 장인에게 이용당하여 소작인을 착취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나'는 데릴사위로, 성례를 위하여 장인 집에서 일을 해 주고 있는 인물이다. ③ 장인은 마름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작인들을 괴롭히는 인물이다. ④ 장인에 대한 '나'의 반감은 성례 문제 때문이지, 시대적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04** ㉠은 '장인님'이라는 존대하는 말과 '이놈'이라는 비하하는 말을 묶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장인에 대한 '나'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는 말이다. ② 역시 '너나 잘하세요.'라고 높임의 대상이 아닌 상대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학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은 '미디엄', ④는 '용', ⑤는 '소리'의 동음이의어를 각각 활용하여 웃음을 유발하였다. ③은 맥락에 맞지 않게 '아빠'와 '엄마'라는 반의 관계에 있는 말을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하였다.

**05** ⓓ는 사위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새경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장인의 교활한 술책이 담겨 있는 말이므로, 비굴한 표정과 호소하는 말투는 어울리지 않는다.

### (06~10) 이태준, 〈달밤〉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 **배경** 1930년대, 서울 성북동
- **주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못난이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
- **해제** 이 작품은 우둔하지만 천진한 인물이 각박한 세상에 부딪히면서 실패를 거듭하고 아픔을 겪는 모습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서술자이자 관찰자인 '나'가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상처를 입는 황수건의 일화를 나열하여, 순박한 인물인 황수건이 사회와 일상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은 비극적이

거나 절망적인 분위기로 흐르지 않는데, 이는 어수룩한 황수건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는 한편, '나'가 황수건에게 애정 어린 시선을 보냄으로써 황수건의 천진하고 순박한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지막 부분인 달밤 장면은 애상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소설이 비극적 분위기를 띠는 것을 막아 주고 있다.

• **짜임**

| | |
|---|---|
| 발단 | 성북동으로 이사 온 '나'는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만나 이곳이 시골임을 실감하게 됨. |
| 전개 | 정식 배달부가 소원인 신문 보조 배달부 황수건이 급사에서 쫓겨나 형님 집에 얹혀살게 되는 행적을 듣게 됨. |
| 위기 | 황수건은 보조 배달부 자리마저 빼앗기고 급사로 다시 들어가려 하지만 실패하고, '나'는 그에게 삼 원을 주며 참외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줌. |
| 절정 | 황수건은 참외 장사마저 실패하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가 가출을 함. |
| 결말 | '나'는 달밤에 담배를 피우며 서툴게 노래를 부르는 황수건을 목격하고 연민을 느낌. |

**06**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작품 속 서술자인 '나'가 황수건의 행동과 처지를 관찰하며 서술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황수건의 말과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내기는 했어도, 그것을 통해 황수건의 부정적 면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민을 느끼도록 해 준다.

④ '나'와 황수건의 대화가 빈번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나'가 황수건의 말에 적극 호응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나'는 황수건에 대한 호의를 바탕으로 황수건의 말을 잘 들어 주고 있으며, 질문을 적절히 하면서 황수건의 말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8** '달밤'은 서술자인 '나'의 시선을 대신한 것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황수건을 바라보면서 그를 동정하고 위로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황수건을 향한 서술자의 연민의 감정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서정적 분위기를 더해 주고 있다.

**09** ㉠은 장사하라며 돈을 건넨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황수건이 두고 간 것이고, ㉡은 오랜만에 만나는 '나'에게 황수건이 인사차 건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나'를 생각하는 황수건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0** ⓑ는 돈이 있으면 '고쓰카이'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일 자체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우두'에 대한 황수건의 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내용이다. 비록 잘못된 지식이지만 '나'를 위하여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면모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창의·융합 서술형

본문 47쪽

**01** 예시 답 빨치산 아들을 둔 할머니는 북한을, 국군 아들을 둔 외할머니는 남한을 상징한다. 따라서 ㉠은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대립하고 갈등했던 남한과 북한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02** 예시 답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6·25 전쟁으로 인해 우리 민족 사이의 갈등과 대립도 그만큼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 (01~02) 윤흥길, 〈장마〉

- **갈래** 전후 소설, 성장 소설, 중편 소설
-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 **배경** 6·25 전쟁 중, 어느 시골 마을
- **주제** 6·25 전쟁으로 인한 한 가정의 비극과 그 극복 과정을 통한 분단 현실의 극복 가능성
-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빚어진 한 가정의 비극과 그 화해의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인물들은 '나'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인데, 이들은 좌우의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자신의 아들들로 인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두 사람의 화해는 전통적이며 토속적인 무속 신앙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가는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 때문에 만들어진 대립 상황은 전통적 정서에 바탕을 두고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 준다.
- **짜임**

| | |
|---|---|
| 발단 | 두 할머니의 아들이 각각 국군과 빨치산으로 6·25 전쟁에 나감. |
| 전개 | 국군인 외삼촌이 전사하고부터 두 할머니의 갈등이 시작됨. |
| 위기 |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심화되고,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할머니는 삼촌을 기다림. |
| 절정 | 점쟁이가 예언한 시간에 삼촌은 오지 않고 구렁이가 나타나자 할머니는 졸도하고, 외할머니는 정성껏 구렁이를 밖으로 보냄. |
| 결말 | 구렁이 사건 이후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화해하고, 얼마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마가 끝남. |

**01** ㉠은 갈등 관계에 있었던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화해하는 장면이다. 두 할머니의 화해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민족의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용서와 화합임을 보여 준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할머니와 외할머니, ㉠이 상징하는 의미를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 4 | 4 |
| ㉠이 상징하는 의미는 '예시 답'과 유사하게 썼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상징하는 의미를 쓰지 않은 경우 | 2 | |
| 할머니와 외할머니, ㉠이 상징하는 의미를 모두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 0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 −1 | |

**유사 정답 |** 의미상 '예시 답'과 유사하게 작성한 경우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02** 이 글은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의 갈등, 할머니와 '나'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장마도 끝이 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 '장마'는 우리 민족에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준 6·25 전쟁을 의미하고, 장마가 끝났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비극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작가의 의도를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쓴 경우 | 4 | 4 |
| 작가의 의도는 '예시 답'과 유사하게 썼지만, 시대적 배경을 밝히지 않은 경우 | 2 | |
| 작가의 의도와 시대적 배경 모두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 0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 | |

**유사 정답 |**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였고, 의미상 '예시 답'과 유사하게 작성한 경우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 (4) 극 갈래

### STEP 1 개념 확인 테스트 본문 52~53쪽

**01** 희곡 **02** ㉡, ㉢, ㉣ **03** ㉠, ㉣ **04** (1) ㉢ (2) ㉤
**05** 대화, 독백, 방백 **06** ⑤ **07** ㉠ – ⓑ, ㉡ – ⓒ
**08** (1) ㉠ (2) ㉣ (3) ㉢ (4) ㉡ **09** 몽타주
**10** 지시문, 표정 **11** 1 **12** 1 **13** 2

**01** 극 갈래 중에서 연극 상연을 목적으로 한 글은 희곡이며,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한 글은 시나리오이다.

**02**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서사 갈래의 특성이다. 극 갈래는 따로 서술자를 두지 않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한다.

**03** 연극 공연을 위한 희곡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한 시나리오에 비해 시간적·공간적 배경, 등장인물 수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

**04** '발단(도입)'은 배경과 인물이 제시되고 극적 행동이 일어나는 준비 단계이다. '상승(전개)'은 사건이 진전되면서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단계이다. '하강(반전)'은 최고조에 이른 갈등 국면이 해결의 국면으로 급속하게 기울어지는 단계이다.

**05**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로, 인물과 인물 사이의 '대화', 상대역 없이 혼자서 하는 '독백', 관객에게는 들리고 상대역에게는 들리지 않는 '방백'으로 나눌 수 있다.

**06** '막과 장'은 희곡의 구성단위에 해당한다. 시나리오에서는 신(scene)을 구성단위로 한다.

**07**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시은은 윤 조교사가 자신에게 뭔가를 감춘 것에 대하여 서운해하고 있다. 따라서 시은이 따지듯이 묻자 윤 조교사가 당황하고 난처해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08** F.O.(페이드아웃)은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게 하는 기법이고, Nar.(내레이션)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화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말해 주는 기법을 말한다.

**09**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으로 만드는 기법을 몽타주 기법이라고 한다.

**10** 극 갈래에서 지시문은 인물의 표정, 행동, 극의 분위기 등을 지시하여 극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11**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리고 말을 거는 방식을 사용하여 무대와 객석의 구분을 없애며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고 있다.

**12** 원고지 무늬의 양복은 인물의 직업을 암시하는 동시에 인물의 규격화된 삶을 상징하는 복장이고, 쇠사슬은 인물이 과중한 업무에 끝없이 시달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13** 인물의 표정을 근접하여 확대해서 촬영하면 인물의 심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STEP 2 기출 기초 테스트 본문 54~55쪽

**01** ④ **02** ① **03** ⑤ **04** ③
**05** ④ **06** ③ **07** ④ **08** ⑤

**(01~02) 김성호·신연식 각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 **갈래** 시나리오
- **제재** 개를 훔치는 일
- **주제** 고난 속에서 깊어지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 **해제** 이 작품은 주택 문제와 실업 문제, 가족의 해체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동화적 기법으로 그린 시나리오이다. 엄마와 동생과 함께 작은 승합차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인 지소가 고급 레스토랑의 개를 훔치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겪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아이와 어른이 모두 성장하는 모습을 따뜻하게 그리고 있다.
- **짜임**

| | |
|---|---|
| 발단 | 승합차에서 사는 지소는 다음 달에 있을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하고 싶어 함. |
| 전개 | 집을 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소는 고급 레스토랑의 개 월리를 훔치고, 사례금을 받기 위해 계획대로 실행함. |
| 절정 | 박 이사에게 사기를 당해 마르셀이 넘어가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지소는 절망함. 지소는 월리가 노부인의 아들이 죽으면서 남긴 개라는 사실과 엄마가 승합차에서 사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됨. |
| 하강 | 지소는 월리를 노부인에게 돌려주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함. |
| 대단원 | 지소는 자신을 용서한 노부인에게 월리의 산책을 부탁받고, 엄마에게 생일 축하 도시락을 받음. |

**01** 시나리오는 영화 촬영을 목적으로 쓴 글로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한다. 인물의 성격과 심리 역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02** 노부인은 월리가 보이지 않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월리의 소재를 묻고 있다. 따라서 놀란 듯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이 자연스럽다.

**03** 장남은 우는 삼녀를 달래면서 모든 자식들이 어머니에게는 똑같은 자식이라고 말하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4** 산문에 절을 하고, 원내에서 목탁과 주지의 염불 소리만 들리는 것을 고려할 때, 도념은 스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작별을 고하며 절을 떠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이 글에서 이석운의 내적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은 자신이 찾던 세탁소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드러낸 행동이다.

**06** C.U.(클로즈업)은 대상의 주요 부분을 특히 크게 찍거나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촬영 기법으로, 대상이 인물일 경우 감정을 표현할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07~08) 김애란 원작, 최민석 외 각본, 〈두근두근 내 인생〉**

- **갈래** 시나리오
- **제재**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소년의 삶
- **주제**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소년의 삶과 가족 간의 사랑
- **해제** 이 작품은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열여섯 살 소년 아름과 열일곱 살에 부모가 된 젊은 부모 대수와 미라를 통해, 삶의 가장 찬란한 순간인 '청춘'을 경험해 본 부모와 '청춘'을 꿈꿀 수 없는 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고통과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의도적으로 밝고 가볍게 풀어 가며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되새겨 보게 하는 작품이다.
- **짜임**

| | |
|---|---|
| 발단 |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아름과 엄마 미라는 밝고 당당하게 살아감. |
| 전개 | 아름은 방송 출연 후 서하라는 또래 여자아이에게 전자 우편을 받고, 이후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짐. |
| 절정 | 서하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아름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감정이 폭발하여 부모와 갈등함. |
| 하강 | 서먹했던 아름과 아빠 대수는 하늘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화해하고, 별똥별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도중에 아름이 시력을 잃음. |
| 대단원 | 가족과 함께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보러 가던 길에 아름이 숨을 거둠. |

**07** 극 갈래에서는 현재 시제의 문장을 사용한 지시문을 통해 등장인물의 행동을 현재화하여 표현한다.

오답 피하기

① 한 장면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글에서는 아름과 미라의 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③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는 특정 소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극 갈래에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08** ㉤은 자기가 한 말로 엄마를 속상하게 만든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후회하는 아름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 STEP 3 교과서 기본 테스트 본문 56~58쪽

| | | | |
|---|---|---|---|
| **01** ③ | **02** ⑤ | **03** ③ | **04** ③ |
| **05** ⑤ | **06** ④ | **07** ② | **08** ⑤ |
| **09** ④ | **10** 이별, 이별, 가족 | | |

**(01~05) 이강백, 〈파수꾼〉**

- **갈래** 희곡, 단막극, 풍자극
- **제재** 촌장의 위선
- **주제**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
- **해제** 이솝 우화 〈양치기 소년〉을 모티프로 하여 1970년대의 정치 상황을 풍자하고 권력의 위선과 허위를 폭로한 희곡이다. 남북한 대치 상황을 악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던 1970년대의 정치 상황을, 거짓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마을을 통제하는 촌장의 행동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파수꾼 '가'와 '나'는 망루에서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고 거짓을 외치며 양철 북을 두드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속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파수꾼 '다'마저 촌장의 회유와 계략에 말려들어 조용히 양철 북을 두드리게 된다.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마는 파수꾼 '다'의 모습은 독자에게 연민과 함께 현실 상황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 **짜임**

| | |
|---|---|
| 발단 | 촌장이 철책 너머에 이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받고 파수꾼 '다'를 찾아옴. |
| 전개 | 촌장은 파수꾼 '다'의 말대로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함. |
| 절정 | 촌장은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미루라며 파수꾼 '다'를 회유함. |
| 하강 | 촌장에게 회유를 당한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함. |
| 대단원 | 파수꾼 '다'는 거짓말을 한 후 망루에서 일생을 지내게 됨. |

**01** 극 갈래는 서사 갈래와 달리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극에서 인물과 사건에 대한 평가가 제시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서술자의 개입 없이 배우 중 한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다.

**02** '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흰 구름을 보여 주고자 하지만, 촌장은 그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03**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리 떼가 사실은 흰 구름이었다는 진실을 알게 된 '다'는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지만, 촌장은 그럴 듯한 이유와 상황을 들면서 '다'가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04** 촌장의 말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동안 자신들을 속여 온 것에 성을 내며 망루를 부수기 위해 오고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일부러 외면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글에서 '마을 사람들'은 독재 권력에 기만당하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민중을 상징한다.

**05** 촌장은 '다'의 동정심에 호소하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진실이 알려지는 날 살인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므로 '다'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것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 (06~10)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 **갈래** 드라마 대본
- **제재** 말기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둔 인희의 삶
- **주제** 죽음의 과정을 통해 본 가족의 진정한 의미
- **해제** 이 작품은 말기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둔 인희를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소중함을 이야기한 드라마의 대본이다. 어머니를 암으로 떠나보낸 작가의 자전적인 경험을 소재로 한 것으로 파편화된 가족 구성원이 인희의 죽음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해 가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 **짜임**

| | |
|---|---|
| 발단 |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며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던 인희가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감. |
| 전개 | 검사 결과 인희는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를 알게 된 남편 정철은 괴로워함. |
| 절정 | 정철이 수술을 고집하여 인희는 수술을 받지만 나을 가망이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함. |
| 하강 |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 인희는 죽음을 준비하며 시어머니와 아들 정수, 딸 연수와 차례로 이별함. |
| 대단원 | 새로 장만한 전원주택에서 정철과 마지막으로 행복한 한때를 보내던 인희는 결국 생을 마감함. |

**06** 이어지는 S# 76에서 인희가 생을 마감하게 되기 때문에 S# 75에서 희망적 상황을 암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S# 73에서는 이별을 준비하며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화면을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은 뒤에 이어지는 인희의 대사를 고려할 때, 가족들에게 자신을 그리워할 장소를 마련해 주려는 배려가 담겨 있는 말이다.

**08** 〈보기〉는 객관적인 묘사와 내면의 서술 등을 교차하고 있지만, [A]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만으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서술자가 사건을 제시하는 것은 〈보기〉에 해당한다.
③ 장면을 현재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A]에 해당한다.

**09** C.U.(클로즈업)은 장면이나 인물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여 찍는 기법이다. ㉮는 아내의 죽음을 확인한 정철의 슬픈 표정을 보여 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정철이 슬피 우는 얼굴을 확대하여 보여 주는 기법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0** 아내 혹은 어머니의 죽음은 커다란 슬픔을 동반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별이 이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창의·융합 서술형 본문 59쪽

**01** 예시 답 상현은 수술비가 아깝다며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고, 회기는 이러한 상현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분노한다.

**02** 예시 답 ⓐ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회기의 비인간적인, ⓑ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

### (01~02) 차범석, 〈성난 기계〉

- **갈래** 희곡, 단막극, 사실주의 극
- **제재** 비인간화되고 소외된 현대인의 삶
- **주제** 현대인의 인간성 상실과 그 회복
- **해제** 이 작품은 물질문명 속에서 인간미 없이 살아가던 의사가 자신보다 더 비정한 인간에게 분노를 느끼고는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그린 희곡이다. 이 작품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립적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주인공 회기의 인물 변화를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극적 반전을 통해 인간성 회복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 **짜임**

| | |
|---|---|
| 발단 | 담배 공장 포장공으로 일하는 인옥이 폐 전문 의사 양회기를 찾아와 수술해 달라고 애원함. |
| 전개 | 회기는 결과에 확신이 없다며 수술을 거부하고 인옥은 수술을 포기하고 돌아감. |
| 절정 | 상현이 회기를 찾아와 금전적인 문제와 아내의 부정을 이유로 인옥의 폐 수술을 반대함. |
| 하강 | 상현의 이기주의적이고 비정한 태도에 회기는 그의 행위를 살인이라고 생각하며 분노함. |
| 대단원 | 회기는 간호사 금숙을 시켜 인옥에게 수술을 받으러 오라는 속달 우편을 보내도록 지시함. |

**01** 상현은 아내가 큰 병에 걸렸음에도 나을 가능성도 없는 수술을 위해 돈을 쓸 수 없다며 수술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회기는 아픈 아내보다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상현의 비정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화를 내고 있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회기↔인옥'의 갈등 내용과 유사한 형식으로 두 사람의 갈등 내용을 적절하게 쓴 경우 | 4 | 4 |
| '상현'이 아내의 수술을 반대한다는 내용만 있고, 이에 대한 '회기'의 반응을 쓰지 않은 경우 | 2 | |
| '회기'와 '상현'의 갈등 내용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경우 | 0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 | |

유사 정답 | 의미상 '예시 답'과 유사하게 작성한 경우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02** 회기는 수술을 해 달라고 애원하는 인옥에게 기계처럼 인간미 없이 냉정하게 대하며 수술을 거절한다. 그래서 인옥은 회기를 '기계'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회기는 아내의 죽음을 방치하는 상현의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에 분노하며 인간성을 회복하고, 이를 본 간호사 금숙은 기계가 노했다고 말한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와 ⓑ에 들어갈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 4 | 4 |
| ⓐ와 ⓑ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 2 | |
| ⓐ와 ⓑ 모두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 0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 | |

유사 정답 | 의미상 '예시 답'과 유사하게 작성한 경우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 (5) 교술 갈래

### STEP 1 개념 확인 테스트 본문 64~65쪽

**01** 수필 **02** ㉠, ㉡, ㉣ **03** (1) ㉣ (2) ㉡ **04** 성실하게
**05** (1) ㉡ (2) ㉠ (3) ㉢ (4) ㉣ **06** 묘사 **07** (1) ㉣ (2) ㉡
**08** (1) ㉣ (2) ㉡ (3) ㉢ (4) ㉠ **09** ㉠ 의인법, ㉡ 지갑
**10** 2 **11** 2 **12** 1

**01** 교술 갈래는 글쓴이의 경험과 사색을 서술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 갈래로, 수필이 대표적이다. 소설은 서사 갈래에 해당한다.

**02** 교술 갈래의 작품 중에도 서정적 수필의 경우 함축적 의미를 지닌 단어를 일부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함축적 의미를 지닌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서정 갈래의 특징에 해당한다.

**03** 작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문장의 개성적 특색을 '문체'라고 하며, 작가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소재를 중심 소재, 즉 '제재'라고 한다.

**04** 작가는 인생을 너무 쉽게 살려고 서두르는 삶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한 층, 한 층 밟아야 할 과정을 성실하게 다 밟고 올라가는 삶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05** 수필의 진술 방식에는 설명, 묘사, 서사, 논증 등이 있다. ㉠ 설명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알려 주는 방식이고, ㉡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하는 방식이며, ㉢ 묘사는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이고, ㉣ 논증은 논리적 근거를 들어 진술하는 방식이다.

**06** 코끼리의 겉모습을 비유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듯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 방식을 묘사라고 한다.

**07** 서사적 수필은 마치 소설과 같이 이야기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쓴 수필을 말하고, 극적 수필은 연극이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과 행동을 현재형으로 보여 주는 수필을 말한다.

**08** '비판적'은 주로 공동체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성찰적'은 작가 개인의 경험이나 태도를 대상으로 한다. 물론 성찰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09** 이 글에서는 '지갑'을 의인화하여 작가와 삶을 함께하는 존재로 그림으로써 글에 생동감을 주고 있다.

**10** 제시된 글은 글쓴이가 폭포를 찾아가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적으로 서술하였다.

**11** 이 글은 자연물을 세심하게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의 근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사색적인 수필이다.

**12** 글쓴이는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이 삶에서 발전과 성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STEP 2 기출 기초 테스트 본문 66~67쪽

**01** ④ **02** ⑤ **03** 예시 답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겉모습은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04** ③
**05** ⑤ **06** ② **07** 예시 답 지나온 삶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08** ③ **09** ⑤

**01** 수필에 쓰인 구성 방식과 표현 기법 등은 모두 글쓴이의 개성을 나타내는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러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수필을 읽을 때에는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 등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 좋다.

**(02~03) 윤대녕, 〈한 그루 나무처럼〉**

- **갈래** 현대 수필, 경수필
- **제재** 대못이 박힌 참나무
- **주제**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
-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는 수필이다. 약수터 옆에 있는 참나무에 박혀 있는 녹슨 대못을 빼낸 후 작가는 참나무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다. 작가는 참나무를 '우주 나무'로 삼을 만큼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고, 그 참나무를 통해 자신의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담담히 드러내고 있다.
- **짜임**

| | |
|---|---|
| 처음 | 주말마다 홀로 산에 올라 사색하고 사물의 변화를 관찰함. |
| 중간 | 참나무에 박힌 대못을 빼낸 것을 계기로 참나무에게서 위안을 얻음. |
| 끝 | 한 그루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함. |

**02**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사는 태도는 글쓴이가 참나무로부터 얻은 깨달음에 해당한다.

**03** 작가는 못을 빼냈던 참나무를 바라보며 사소한 일에도 자주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를 받고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으며,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없었던 자신을 반성한다. 그리고 한 그루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04** 이 글에서 글쓴이는 그믐달을 다양한 여인의 삶에 비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물에 대한 글쓴이의 개성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5** 글쓴이는 눈에 보이는 코끼리에 대해서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있는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 만 배나 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수히 많으므로 고정관념을 버리고 만물을 인식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06~07) 유달영, 〈초설(初雪)에 부쳐서〉**

- **갈래** 현대 수필
- **제재** 눈 덮인 운동장을 걷는 어린이
- **주제** 인생에 있어 목표 설정의 중요성
- **해제** 이 작품은 눈 위를 걷는 평범한 어린이의 모습을 통해 인생에서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수필이다. 생활 속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보편적인 교훈을 이끌어 내는 교술 갈래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 **짜임**

| | |
|---|---|
| 처음 | 어느 날 첫눈으로 뒤덮인 운동장에서 혼자 걷고 있는 어린이를 봄. |
| 중간 |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린이의 행동을 떠올리면서, 목표를 세우는 것과 지난 삶을 성찰하는 태도의 가치를 깨달음. |
| 끝 | '나'뿐만 아니라 '우리'로서의 행로에 있어 확고한 목표와 겸허하고 정성스러운 회고가 절실히 요청됨. |

**06**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자문자답) 방식으로 대상을 분석하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07** 자신이 반듯하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끔 뒤돌아보곤 하는 어린이의 행동을 통해 글쓴이는 지나온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08** 이 글은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으로, 소나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문제로 확장하여 전달하고 있다. 대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구체적인 묘사는 찾아볼 수 없다.

**09** 행랑채를 수리한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경우에 적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였다.

## STEP 3 교과서 기본 테스트 본문 68~70쪽

| | | | |
|---|---|---|---|
| 01 ⑤ | 02 울음터, 신묘 | 03 ④ | 04 ⑤ |
| 05 ⑤ | 06 ① | 07 ② | 08 ② |
| 09 ⑤ | 10 ④ | | |

**(01~05) 박지원, 〈통곡할 만한 자리〉**

- **갈래** 한문 수필, 중수필, 기행 수필
- **제재** 광활한 요동 벌판
- **주제** 광활한 요동 벌판을 보며 느끼는 감회
- **해제** 이 작품은 청나라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따라 북경을 다녀온 뒤 쓴 《열하일기》에 실린 글로서, 작가가 북경으로 가는 도중 광활한 요동 벌판을 보고 느낀 감회를 기록한 글이다. 새로운 문물과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작가는 요동 벌판에 이르러 드넓은 세계를 만난 기쁨을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실감 나게 표현했다. 특히 천하의 장관인 요동 벌판을 보고 '통곡하기 좋은 울음터'라고 말하면서 그 까닭을 나름대로의 독특한 논리로 설명하였다. 작가의 주장은 '기 – 승 – 전 – 결'의 4단 구성과 정 진사의 물음에 작가가 답변하는 문답 구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 **짜임**

| | |
|---|---|
| 기 | '나'가 요동 벌판을 보고 좋은 울음터라고 말함. |
| 승 | 정 진사가 '나'에게 울고 싶어 하는 까닭을 묻자, 사람은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고 대답함. |
| 전 | 정 진사가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하느냐고 묻자, 갓난아기가 세상에 나와 정신이 시원하여 터뜨리는 울음과 같이 넓은 곳에 처한 기쁨으로 울면 된다고 대답함. |
| 결 | 요동의 광활한 풍경을 묘사하고, 통곡할 만한 자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함. |

**01** 교술 갈래는 글쓴이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감동과 교훈을 전달하는 글이다. 이 글은 글쓴이가 요동 벌판을 지나며 느낀 감회를 진솔하게 서술한 글이다.

**02** 〈보기〉의 화자는 이 글에서 요동 벌판을 커다란 울음터라고 하고, 이에 감동하여 통곡하는 일을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와 우는 것에 빗댄 것이 재미나며 신묘하다고 평가하였다.

**03** 글쓴이는 칠정에서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하는 법이라고 하였다.

**04** 〈보기〉를 통해 이 글의 글쓴이는 성리학의 공리공론을 반대하고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 현실을 개혁하고자 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를 참고할 때 ㉠의 막히고 억눌린 마음은 그의 사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당시 현실 때문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05** ⓐ는 요동 벌판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부분이고, ⓑ는 요동 벌판을 비유의 방식을 통해 개성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 (06~10) 나희덕, 〈반 통의 물〉

- **갈래** 현대 수필, 경수필
- **제재** 밭을 가꾸는 일
- **주제** 밭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 /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일의 소중함
- **해제** 이 작품은 밭을 가꾸는 일상의 순간순간에 느낀 정서와 깨달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수필이다. 당근씨 뿌리기, 김매기, 물 주기에 얽힌 세 가지 짤막한 이야기로 구성된 이 글에는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물을 주는 각 과정에서 느낀, 자연과 사람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다. 살아 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아끼며 어우러져 살아가고자 하는 글쓴이의 따뜻한 마음이 잘 드러난 수필이다.
- **짜임**

| | |
|---|---|
| 처음, 중간 | ① 당근씨를 뿌리며 적절한 거리의 중요성을 깨달음.<br>② 김매기를 하면서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임을 깨달음.<br>③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채소에 물을 주는 것을 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음. |
| 끝 | 농사를 지으며 겪은 일을 통해 생명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을 깨달음. |

**06** 이 글에서 글쓴이는 밭을 일구며 마주친 사물과 사람의 모습에서 깨닫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07** 글쓴이는 게으름이 농부의 악덕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게으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8** 불편한 몸으로 채소에 물을 주는 할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은 글쓴이가 직접 본 경험을 적은 것이다.

**09** 밭에서는 사람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잡초는 죽이고 채소만 살리기 때문에, 숲에 비해 생명에 덜 가깝다고 한 것이다.

**10** 농작물에 물을 주기 위해 들판을 오가는 '농부의 발소리'와 불편한 몸 때문에 할아버지가 반 이상 흘리고 남은 '반 통의 물'은 모두 생명을 대하는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

### 창의·융합 서술형

본문 71쪽

**01** 예시 답 (가) 완전하게 없앨 수가 없으므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나)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잃어버리기 쉽기

**02** 예시 답 '나'와 '송욱'은 모두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렸다.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분리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 (01~02) 정약용, 〈수오재기〉

- **갈래** 한문 수필, 기(記)
- **제재** 수오재
- **주제** '나(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 **해제** 이 작품은 유배지에 있는 작가가 큰형님의 서재 이름인 '수오재(나를 지키는 집)'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쓴 글이다. 작가는 '나'를 현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로 구분하여, 본질적 자아를 잃지 않고 유지할 때 비로소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거나 유혹당하지 않게 된다는 깨달음에 이르고 있다.
- **짜임**

| | |
|---|---|
| 기 | '수오재'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 |
| 승 |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
| 전 | '나'를 소홀히 한 채 살았던 과거에 대한 반성 |
| 결 | 〈수오재기〉를 쓰게 된 내력 |

**01** 이 글의 글쓴이는 '옷과 양식', '책' 등은 흔해서 모두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없지만, '나'는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 4 | 4 |
| (가)와 (나) 중 하나만 정확하게 쓴 경우 | 2 | |
| (가)와 (나) 중 하나도 쓰지 못한 경우 | 0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 | |

**유사 정답 |** 문맥상 '예시 답'과 유사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한다.

**02** 〈보기〉에서 '송욱'은 술에 취해 자다가 아침에 깨어서 자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본질적 자아(진정한 자아)는 사라지고 현상적 자아만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나'와 〈보기〉의 '송욱'은 모두 진정한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의 공통점을 정확하게 쓴 경우 | 4 | 4 |
|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의 공통점을 단순히 '나'를 잃어버렸다고만 쓴 경우 | 2 | |
|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의 공통점을 쓰지 못한 경우 | 0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 | |

유사 정답 | '본질적 자아'를 '진정한 자아', '진짜 나'로, '현상적 자아'를 '현실적 자아', '겉모습뿐인 나'로 쓴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 (6) 문학의 흐름

### STEP 1 개념 확인 테스트 본문 76~77쪽

01 ㉠ 향가, ㉡ 가사
02 ㉠ 전설, ㉡ 가전체, ㉢ 판소리계 소설
03 ㉢ – ㉠ – ㉣ – ㉡
04 3, 4, 3, 4, 3
05 ㉡, ㉢, ㉤
06 ㉠ 풍자, ㉡ 해학
07 (1) ㉢ (2) ㉠ (3) ㉣
08 아아, 전환
09 1
10 1
11 2

**01** 향가는 향찰로 기록된 신라의 노래이고, 가사는 조선 초기에 나타난, 시가와 산문의 중간 형태를 지닌 문학 양식이다.

**02** 설화의 종류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으며,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서사 갈래에는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傳記) 형식으로 서술하는 가전체가 있다. 조선 시대 후기에는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한 판소리계 소설이 등장하였다.

**03** 〈효녀 지은 설화〉는 〈심청전〉의 근원 설화이다. 전승 과정에 따라 '근원 설화 → 판소리 → 고전 소설(판소리계 소설) → 신소설'의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

**04** 시조는 기본적으로 3장 6구 45자 내외로 구성되며, 각 장은 4음보 율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수율은 3(4)·4조를 기본으로 하며, 종장의 첫 음보는 대부분 3음절을 지켜 썼다.

**05** 한국 문학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친근한 대상으로 여겼다. 영웅적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된다.

**06** 풍자는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는 것을 말하고, 해학은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대상을 익살스럽게 진술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07** (1)은 대동강에서 임과 이별하며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므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2)는 물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자신의 벗이라고 말하는 내용이므로 '자연 친화'를 노래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3)은 자신이 죽어서 봉래산의 소나무가 되어 세상이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홀로 절개를 지키겠다는 내용이므로 '지조와 절개'를 노래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독야청청'은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8** 〈제망매가〉에서는 '아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누이를 잃은 슬픔에서 재회에 대한 소망으로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09** 제시된 글은 신화로, 건국 신화에는 고귀한 혈통의 비범한 인물이 등장하여 시련을 극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는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10** '희화'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우의적' 표현은 인간 세상의 문제를 동물에 의탁하여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 시조에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쓰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부패한 지방 관리에 대한 풍자라는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1** '박 씨'는 영웅적 인물이며, 전란 속에서 도술을 부려 적을 물리치는 비현실적인 능력을 보이고 있다.

### STEP 2 기출 기초 테스트 본문 78~79쪽

01 ③
02 얄리얄리 얄랑(라)셩 얄라리 얄라
03 ④
04 ②
05 ③
06 ㉠ 깨끗하고 그칠 때가 없다(영원성). ㉡ 변하지 않는다(불변성).
07 ④
08 ③
09 ③
10 ③

**01** 향가의 주된 작자층은 승려나 화랑 등 지배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답 피하기
④ 향가 중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인 10구체 향가의 경우 대체로 3개의 부분으로 구분되며(1~4행, 5~8행, 9~10행), 이러한 구성은 시조의 '초장–중장–종장'의 형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10구체 향가의 9행은 대체로 '아아'와 같은 감탄사로 시작한다.

**(02~03) 작자 미상, 〈청산별곡〉**

- **갈래** 고려 가요
- **제재** 청산, 바다
- **주제** 삶의 시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
- **해제** 이 작품은 고려 시대 민중들의 삶의 애환을 다룬 대표적인 고려 가요로, 뛰어난 음악적 효과와 감각적 언어 사용 및 고도의 상징성이 돋보인다. 전체 8연으로 구성된 이 작품에서 화자는 현실적·세속적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청산', '바다'를 동경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결국은 술로 시름을 달래며 체념한다. 이를 통해 당시 고려인의 삶의 고뇌와 비애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 **짜임**

| | | | | |
|---|---|---|---|---|
| 1연 | '청산'에 대한 동경 | 수록 부분 | 5연 | 삶의 운명에 대한 체념 |
| 2연 | 삶의 비애와 고독 | | 6연 | '바다'에 대한 동경 |
| 3연 |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 | | 7연 | 삶에 대한 절박한 심정 |
| 4연 | 절망적인 고독과 비탄 | | 8연 | 술을 통한 고뇌의 해소 |

**02** 〈청산별곡〉의 후렴구인 '얄리얄리 얄랑(라)셩 얄라리 얄라'는 다른 고려 가요의 후렴구와 마찬가지로 아무 뜻 없이 음악적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03** '청산'은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곳이다. '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화자의 슬픔을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04** 시조는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있다.

**05** '이화, 월백, 은한'에는 시각적 심상이, '자규야 알랴마는'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오답 피하기

⑤ 종장을 감탄형 어미 '-노라'로 마무리하여 봄밤에 느끼는 애상감을 강조하고 있다.

**06** 〈제2수〉에서는 맑고 깨끗하지만 자주 변하는 구름·바람과 대조하여 물의 영원한 속성을 예찬하고 있으며, 〈제3수〉에서는 피었다 금방 지는 꽃·푸르다가 누렇게 변하는 풀과 대조하여 바위의 변함없는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07~08) 정철, 〈속미인곡〉**

- **갈래** 가사(서정 가사, 정격 가사)
- **제재** 임에 대한 그리움
- **주제** 임금을 그리는 마음, 연군지정(戀君之情)
-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전남 창평에서 지낼 때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읊은 연군 가사로, 〈사미인곡〉의 속편에 해당한다. 작가는 임금을 떠나온 자신의 처지를 천상에서 임을 모시다가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의 신세에 빗대어 임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였다.
- **짜임**

| | |
|---|---|
| 서사 | 갑녀가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묻자, 을녀는 조물주의 탓이라고 대답함. |
| 본사 | 갑녀가 위로의 말을 하자, 을녀는 임의 소식에 대한 궁금증, 독수공방의 외로움, 임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을 말함. |
| 결사 | 을녀가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 되고 싶다고 하자, 갑녀는 '궂은비'가 되라며 위로함. |

**07** 이 시가에서는 두 여인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한 여인이 임과 이별하여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죽어서 '지는 달'이 되고 싶다고 하자, 다른 여인이 '궂은비'가 되라고 말하고 있다.

**08** 이 작품의 화자는 임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은 화자가 오랜만에 임을 만난 반가움과 자신의 서러운 처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임의 얼굴을 '옥'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였으며(직유법), 감탄형 어미 '-구나'를 사용하여(영탄법) 늙은 임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09** 제시된 부분에서는 '동주, 회양, 만폭동'으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으며, 비유와 대구,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폭포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대상을 점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④ 만폭동에서 본 폭포의 모습을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에 빗대어 표현하여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었다.

**10** 제시된 부분에서는 4음보 율격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고전 소설에서 운문체가 사용되었음을 알게 해 준다.

## STEP 3 교과서 기본 테스트

본문 80~82쪽

| | | | |
|---|---|---|---|
| 01 ① | 02 ④ | 03 ③ | 04 ③ |
| 05 ③ | 06 ④ | 07 ② | 08 ① |
| 09 ③ | | | |

**(01~05)**

(가) 작자 미상, 〈가시리〉

- **갈래** 고려 가요
- **제재** 임과의 이별
-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 **해제**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슬프고도 애절한 마음을 노래한 고려 가요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연에서는 임에게 진정 자신을 떠날 것인지를 애달프게 묻고 있으며, 2연에서는 질문을 되풀이하여 고조된 슬픔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3연에서는 임을 붙잡지 못하는 까닭을 제시하며 수동적이고 전통적인 여인상을 드러내고, 4연에서는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짜임**

| | |
|---|---|
| 1연 | 뜻밖의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과 하소연 |
| 2연 | 허탈감과 좌절 |
| 3연 | 감정의 절제와 체념 |
| 4연 |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과 기원 |

(나) 작자 미상, 〈임이 오마 하거늘~〉

- **갈래** 사설시조
- **제재** 임이 온다는 소식
- **주제** 임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

• **해제** 이 작품은 그리운 임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거침없는 행동으로 표현된 사설시조이다.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화자가 한 행동들은 사실적이고 해학적인데, 그 구체적인 행동들이 중장에 잘 나타나 있다. 임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착각을 하게 되고, 이를 겸연쩍게 여기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종장에서는 해학성과 함께 화자의 낙천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 **짜임**

| | |
|---|---|
| 초장 |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임을 기다림. |
| 중장 | 임을 만나기 위해 허둥지둥 달려갔지만, 착각이었음을 확인하고 허탈해함. |
| 종장 | 경솔한 행동에 대한 겸연쩍음. |

**(다) 월명사, 〈제망매가〉**

• **갈래** 향가(10구체)

• **제재** 누이의 죽음

•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여 지은 10구체 향가이다. 누이의 죽음을 슬픈 어조로만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이를 뛰어난 비유로 그려 내어 향가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 **짜임**

| | |
|---|---|
| 1~4구(기) |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
| 5~8구(서) | 혈육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무상 |
| 9~10구(결) | 불교적 믿음을 통한 재회의 다짐 |

**(라) 황진이, 〈동지ㅅ돌 기나긴 밤을~〉**

• **갈래** 평시조

• **제재** 연모의 정

•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 **해제** 이 작품은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참신한 비유로 호소력 있게 형상화한 시조이다.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한 표현 기법이 매우 참신하고 생생한 인상을 주어 작품 전체에 신선한 느낌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서리서리'와 '구뷔구뷔'와 같은 음성 상징어의 활용과 대조적 표현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 낸 표현으로,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이 돋보인다.

• **짜임**

| | |
|---|---|
| 초장 | 동짓달 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냄. |
| 중장 |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 둠. |
| 종장 | 임이 오시는 밤에 펼침. |

**01** (가)는 3음보 율격, (나)와 (라)는 4음보 율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다)는 3음보 율격이 규칙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02** (가)는 고려 시대에 널리 불린 고려 가요, (나)는 조선 후기에 발생한 사설시조, (다)는 신라 시대에 불린 향가, (라)는 조선 전기에 창작된 시조이다.

**03** (가)에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임을 붙잡고 싶은 마음과 임과 빨리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으며, (나)에는 임과 떨어져 살고 있는 상황에서 삼 줄기를 임으로 착각하고 속은 것에 대한 화자의 겸연쩍음이 드러나 있다.

오답 피하기

①과 ⑤는 (나)에만 해당하고, ②는 (가)에만 해당한다.

**04** 대부분의 고려 가요에 나타난 후렴구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주된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고려 시대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노래가 조선 시대에 궁중의 악곡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후렴구가 첨가된 것과 관련이 있다.

**05** ㉢은 화자가 임의 모습으로 착각한 대상으로, 화자에게 착각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화자는 자신이 붙잡으면, 임이 그것을 서운하게 여겨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떠나는 임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

② 화자는 임이 오기를 기다리며 건넌 산을 바라보고 있다.

④ '이른 바람'은 누이가 요절(夭折, 젊은 나이에 죽음)하였음을 암시한다.

⑤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잘라 보관하였다가, 임과 함께하는 밤에 펴 그 시간을 길게 늘리겠다고 표현한 것으로, 임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이다.

**(06~09) 작자 미상, 〈춘향전〉**

• **갈래** 고전 소설, 판소리계 소설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조선 시대 후기, 전라도 남원

•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 불의한 지배층에 대한 항거

• **해제** 이 작품은 전승 과정에서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이본(異本)이 120여 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이다.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 월매의 딸 성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로, 해학적이고 풍자적 성격을 지니며, 조선 후기 평민 의식을 담고 있다.

• **짜임**

| | |
|---|---|
| 발단 |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을 만나 사랑에 빠짐. |
| 전개 | 이몽룡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가게 되자, 이몽룡과 춘향은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됨. |
| 위기 | 남원 부사로 부임한 변학도는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춘향이 이를 거역하며 자신을 모욕하자 옥에 가둠. |
| 절정 | 장원 급제한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내려와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뒤, 어사 출도를 하고 변학도를 징벌함. |
| 결말 | 임금의 허락으로 춘향이 이몽룡의 정실부인이 되고,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 행복한 일생을 보냄. |

**06** 이 글은 전승 과정에서 판소리로 불리다가 나중에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오답 피하기

③ 편집자적 논평은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와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 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것다.' 등에 나타나 있다.

**07** 어사또가 지은 한시를 보고 운봉 영장은 시를 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본관 사또는 몰라보았다고 하였다.

**08** ㉠에서 짧은 문장을 연속적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부족한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짧은 문장의 연속적 사용은 급박한 사건 전개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09** '일편단심'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춘향은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바위와 나무에 비유하며 어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춘향의 심리와 어울리는 말은 '일편단심'이다.

오답 피하기

①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을 이르는 말.
②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
④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 창의·융합 서술형

본문 83쪽

**01** 예시 답 ㉠ 정자, ㉡ 봉우리, ㉢ 혼자 앉아서 술을 마시며 봄의 흥취를 즐김.

**02** 예시 답 ㉠ 홍진, ㉡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 자연 친화적인(안빈낙도의)

## (01~02) 정극인, 〈상춘곡〉

- **갈래** 가사(서정 가사, 은일 가사, 정격 가사)
- **제재** 봄의 경치
- **주제** 봄 경치를 누리는 즐거움과 안빈낙도(安貧樂道)
- **해제** 이 작품은 정극인이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태인에 머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자연을 즐기는 삶의 흥취를 노래한 가사이다. '상춘곡(賞春曲, 봄을 즐기는 노래)'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봄의 경치를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흥취와 풍류를 노래하였다. 자연 친화적인 조선 전기 사대부의 자연관을 형상화하였으며,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삶으로서의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짜임**

| | |
|---|---|
| 서사 |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
| 본사 | 봄의 아름다운 경치와 그 속에서 느끼는 흥취 |
| 결사 | 자연을 벗하며 소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 |

**01** 이 시가는 초가집에서 사립문 주변, 정자, 시냇가, 봉우리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좁고 낮은 공간에서 넓고 높은 공간으로의 이동을 보여 준다. 그 과정에서 화자는 봄날의 흥취를 만끽하고 안빈낙도와 안분지족의 경지를 보인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 ㉡, ㉢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 6 | 6 |
| ㉠, ㉡, ㉢ 중 두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 4 | |
| ㉠, ㉡, ㉢ 중 한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 2 | |
| ㉠, ㉡, ㉢ 하나도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 0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 | |

유사 정답 | ㉠과 ㉡은 '예시 답'과 같이 써야 하며, ㉢은 '예시 답'과 의미가 유사하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02** 송순의 시조에서 화자는 작은 초가를 짓고 '달'과 '청풍'을 집에 들이고, '강산'은 집 주변에 둘러 두겠다고 하였다. '달'과 '청풍', '강산'은 모두 자연을 나타내는 소재이므로, 이 시조는 자연을 만끽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 또한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 ㉡, ㉢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 6 | 6 |
| ㉠, ㉡, ㉢ 중 두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 4 | |
| ㉠, ㉡, ㉢ 중 한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 2 | |
| ㉠, ㉡, ㉢ 하나도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 0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 | |

유사 정답 | ㉠은 '예시 답'과 같이 써야 하며, ㉡과 ㉢은 '예시 답'과 의미가 유사하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 2. 문법

## (1) 음운의 변동

### STEP 1 개념 확인 테스트 본문 92~93쪽

**01** (1) 교체 (2) 첨가 (3) 축약 **02** 음운 **03** (1)–㉢ (2)–㉣ (3) – ㉠ (4) – ㉡ **04** 이중 모음 **05** (1) – ㉣ (2) – ㉠ (3) – ㉡ (4) – ㉢ **06** (1) ○ (2) ○ (3) ○ (4) × **07** (1) 반모음 첨가 (2) 구개음화 (3) 자음군 단순화 **08** (1) – ㉠ (2) – ㉡ (3) – ㉣ (4) – ㉢ **09** (1) 구개음화 (2) 어간, 어미 **10** ㉠ **11** 탈락 **12** (1) 박, 부엌 (2) 낟, 낟 **13** 2 **14** 1 **15** 1 **16** 1 **17** 1

**01**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 '첨가'는 두 음운 사이에 다른 음운이 더해지는 것, '축약'은 두 음운이 다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오답 피하기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진 것을 말한다.

**02**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는데, 분절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 비분절 음운에는 소리의 길이가 있다.

**03** 국어의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4) 중 조음 방법에 따라 자음을 분류한 것으로는 된소리(ㄲ, ㄸ, ㅃ, ㅆ, ㅉ), 거센소리(ㅋ, ㅌ, ㅍ, ㅎ), 비음(ㅁ, ㄴ, ㅇ) 등이 있고, 조음 위치에 따라 자음을 분류한 것으로는 혓바닥과 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 구개음(ㅈ, ㅊ) 등이 있다.

[자음 체계표]

자음 체계표는 국어의 자음을 조음 위치(소리 나는 위치)와 조음 방법(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자음 체계표를 알면 음운 변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 | 입술소리 (양순음) | 허끝소리 (설단음) | 입천장, 소리 (구개음) | 여린 입천장 소리 (연구개음) | 목청소리 (후음) |
|---|---|---|---|---|---|---|
| 파열음 | 예사소리 | ㅂ | ㄷ | | ㄱ | |
| | 된소리 | ㅃ | ㄸ | | ㄲ | |
| | 거센소리 | ㅍ | ㅌ | | ㅋ | |
| 파찰음 | 예사소리 | | | ㅈ | | |
| | 된소리 | | | ㅉ | | |
| | 거센소리 | | | ㅊ | | |
| 마찰음 | 예사소리 | | ㅅ | | | ㅎ |
| | 된소리 | | ㅆ | | | |
| 비음 | | ㅁ | ㄴ | | ㅇ | |
| 유음 | | | ㄹ | | | |

**04** 이중 모음은 소리를 낼 때 중간에 입술 모양이 바뀌거나 혀가 일정한 자리에서 시작하여 다른 자리로 옮겨 가면서 나는 소리로, 반모음 'ㅣ', 반모음 'ㅗ/ㅜ'와 단모음이 결합하여 소리 난다.

**05** (1) 국물[궁물]은 'ㄱ + ㅁ → [ㅇ + ㅁ]'로 발음되는 비음화의 예에 해당한다.

(2) 국가[국까]는 'ㄱ + ㄱ → [ㄱ + ㄲ]'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의 예에 해당한다.

(3) '쓰– + –어 → 써'는 'ㅡ + ㅓ → ㅓ'로 소리 나므로, 모음 탈락의 예에 해당한다.

(4) '녀(女) + 자(子) → 여자'는 한자음의 첫머리인 'ㄴ'이 탈락하여 소리 나는 두음 법칙의 예에 해당한다.

**06** (4) '맏형'은 'ㄷ'과 'ㅎ'이 결합하여 거센소리 [ㅌ]으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가 아니라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07** (1) '어'가 [여]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ㅓ'를 'ㅣ' 계열 이중 모음 'ㅕ'로 바꾸어 주는 반모음 'ㅣ'가 첨가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모음 첨가'라 부른다.

(2) 'ㄷ, ㅌ'이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을 구개음화라 부른다.

(3) 겹받침은 자음이 모여 있어 '자음군'이라 하는데, 이 중 자음 하나가 탈락하여 소리 나는 것을 '자음군 단순화'라 부른다.

**08** (1) '곱셈'은 'ㅅ'이 앞 음절 'ㅂ'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 [ㅆ]으로 소리 나므로 된소리되기, 즉 음운의 교체가 일어난다.

(2) '살– + –는 → [사는]'은 '살–'의 'ㄹ'이 탈락하여 [사는]으로 소리 난다. 즉 음운의 탈락이 일어난다.

(3) '축하'는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소리 나므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추카]로 발음된다. 즉 음운의 축약이 일어난다.

(4) '눈요기'는 자음 'ㄴ'으로 끝나는 형태소 '눈'과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태소 '요'가 결합하여 'ㄴ'이 첨가되어 [눈뇨기]로 소리 나므로, 음운의 첨가가 일어난다.

**09** (1) 앞말의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ㅈ], [ㅊ]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2) 담다[담따]의 '담–'과 같이 용언의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다'와 같이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10** '묻는'에서 '묻'의 받침 'ㄷ'은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교체되어 [문는]으로 바뀌어 소리 나므로, 비음화 현상, 즉 음운의 교체가 일어난다. '설날'에서 '날'의 'ㄴ'은 앞

의 받침인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나므로, 유음화 현상, 즉 음운의 교체가 일어난다.

오답 피하기

㉡의 '파랗다', '놓고'는 자음 'ㄷ', 'ㄱ'이 각각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ㅌ], [ㅋ]으로 바뀌어 소리 나므로 음운의 축약이 나타난다.

**11** '가-+-아서 → 가서[가서]'는 용언의 어간 '가-'의 'ㅏ'가 '-아서'와 결합하며 탈락하여 [가서]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음운의 탈락이 일어난다.

**12**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더라도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발음된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밖[박]', '부엌[부억]', '낮[낟]', '낯[낟]'으로 소리 난다.

**13** 음운 변동 현상은 어떤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14** 첫 번째 예는 분절 음운인 자음, 두 번째 예는 비분절 음운인 소리의 장단에 따라 의미의 차이를 드러내는 예이다. 이처럼 음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제시된 예시를 통해 음운이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낱낱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낟:낟이]로, 다시 구개음화에 의해 [낟:나치]로 바뀐다. 그리고 다시 비음화에 의해 'ㄷ'이 [ㄴ]으로 바뀌어 [난:나치]로 발음된다.

오답 피하기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끝에서 겹받침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고 나머지 하나만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한다.

**16** '금리'는 'ㄹ'이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화가 일어나 [금니]로 발음된다. '능력'은 'ㄹ'이 비음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화가 일어나 [능녁]으로 발음된다.

오답 피하기

'줄넘기'는 'ㄴ'이 앞의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나 [줄럼기]로 변하고, 다시 어간의 받침 'ㅁ'이 어미 'ㄱ'과 만나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줄럼끼]로 발음된다. '신라'는 'ㄴ'이 이어지는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나 [실라]로 발음된다.

**17** '넓다', '넓고'의 경우 겹받침 중 'ㅂ'이 탈락하고 앞의 자음인 'ㄹ'만 발음된다.

오답 피하기

2 겹받침 'ㄺ'의 발음은 '맑다[막따]'와 같이 앞의 'ㄹ'이 탈락되어 뒤의 자음 [ㄱ]만 소리 나기도 하고, '맑고'와 같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경우 동일한 'ㄱ'은 '탈락되고 [ㄹ]만 소리 나 '맑고[말꼬]'와 같이 발음되기도 한다.

## STEP 2 기출 기초 테스트

본문 94~95쪽

**01** ② **02** ㉠ 박, ㉡ 부엌, ㉢ 낟, ㉣ 낟, ㉤ 낟, ㉥ 낟, ㉦ 낟, ㉧ 숩, ㉨ 음절의 끝소리 규칙 **03** 젇는다 → 전는다

**04** ④ **05** ④ **06** ② **07** ⑤

**08** ④ **09** ③ **10**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11** ② **12** ⑤

**01** 우리말의 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모음 체계표]

| 혀의 앞뒤 위치 / 혀의 높이 / 입술 모양 | 전설 모음 | | 후설 모음 | |
|---|---|---|---|---|
| | 평순 | 원순 | 평순 | 원순 |
| 고모음 | ㅣ | ㅟ | ㅡ | ㅜ |
| 중모음 | ㅔ | ㅚ | ㅓ | ㅗ |
| 저모음 | ㅐ | | ㅏ | |

**02**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음절 끝에 오는 받침 'ㄲ, ㅋ'은 [ㄱ]으로, 'ㅅ, ㅆ, ㅈ, ㅊ, ㅌ'은 [ㄷ]으로, 'ㅍ'은 [ㅂ]으로 발음되므로 '밖[박]', '부엌[부억]', '낫[낟]', '났[낟]', '낮[낟]', '낯[낟]', '낱[낟]', '숲[숩]'으로 발음한다.

**03** '젖는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하여 '젖-'의 받침 'ㅈ'이 대표음인 [ㄷ]으로 바뀌고, 다시 [전]의 [ㄷ]이 비음인 'ㄴ'을 만나 비음 [ㄴ]으로 바뀌어 [전는다]로 발음된다.

**04** 축구 → [축꾸]는 'ㄱ + ㄱ → [ㄱ] + [ㄲ]'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이는 된소리되기, 즉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05** (1)~(3)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④ '여덟'은 받침 'ㄼ' 중 'ㅂ'이 탈락하여 [여덜]로 발음되므로 자음군 단순화, 즉 음운의 탈락의 예에 해당한다.

**06**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것은 음운의 탈락 현상이다. ②의 '낳-+-다'가 [나타]로 발음되는 것은 'ㅎ'과 'ㄷ'이 만나 거센소리인 [ㅌ]으로 소리 나는 현상이다. 이는 거센소리되기, 즉 음운의 축약에 해당한다.

**07** '잇몸'은 명사 '이+몸'이 합쳐진 합성어이다. '이'와 같이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ㄴ, ㅁ'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사잇소리가 첨가되어 [ㄴ]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잇몸[인몸]'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②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용언의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반모음이 첨가된 경우이고, ③,

④는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ㄴ'이 첨가되어 소리 나는 경우이다.

**08** ㉡ '외곬'은 겹받침 'ㅆ'의 'ㅅ'이 탈락하여 [외골]로 발음되므로 탈락의 예에 해당한다. ㉢ '않던'은 'ㅎ'이 'ㄷ'과 만나 'ㅌ'으로 축약되므로 축약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맨입'은 'ㄴ'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ㅣ'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하여 'ㄴ'이 첨가되어 [맨닙]으로 발음되므로 교체가 아니라 첨가의 예에 해당한다.

㉣ '붙이다'는 'ㅌ'이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여 구개음 'ㅊ'으로 바뀌어 [부치다]로 발음되므로 첨가가 아니라 교체의 예에 해당한다.

**09** '꽃다발'은 음절은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ㅊ'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꼳다발]이 되고, 다시 앞 음절 'ㄷ'의 영향으로 뒤의 'ㄷ'이 된소리 [ㄸ]이 되는 된소리되기에 의해 [꼳따발]로 발음된다. '닫히다'는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ㄷ'이 [ㅌ]으로 바뀌어 [다티다]가 되고, 다시 'ㅌ'이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화에 의해 'ㅌ'이 [ㅊ]으로 바뀌어 [다치다]로 발음된다.

**10** '낳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ㅎ'이 대표음 [ㄷ]으로 바뀐 후 다시 비음화에 의해 'ㄷ'이 [ㄴ]으로 바뀌어 [난는]으로 발음된다. '부엌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ㅋ'이 대표음 [ㄱ]으로 바뀐 후 다시 뒤에 온 조사 '만'과 결합하면서 비음화에 의해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어 [부엉만]으로 발음된다.

**11** '글짓기'의 올바른 발음은 [글짇끼]이다. '글짓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글짇기]가 되고 다시 된소리되기에 의해 [글짇끼]로 발음된다.

오답 피하기

① '분리배출'은 'ㄹ'의 영향으로 앞의 'ㄴ'이 [ㄹ]로 바뀌어 [불리배출]로 발음되는 유음화의 예에 해당한다.

③ '어떻게'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바뀌어 [어떠케]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의 예에 해당한다.

④ '오염 물질'에서 '물질'은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ㅈ'이 연결되므로 'ㅈ'이 된소리 [ㅉ]으로 바뀌어 [물찔]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의 예에 해당한다.

⑤ '굳이'는 'ㄷ'이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이'를 만나 [ㅈ]으로 바뀌어 [구지]로 발음되는 구개음화의 예에 해당한다.

**12** '서다'는 '서- + -어→서', '서- + -어서→서서'로 활용되는데, 이는 중복된 음운 'ㅓ'가 탈락한 결과이다. '담그다'는 '담그- + -아→담가', '담그- + -아서→담가서'로 활용되며,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한다.

## STEP 3 교과서 기본 테스트

본문 96~98쪽

| | | | |
|---|---|---|---|
| 01 ⑤ | 02 ④ | 03 ④ | 04 ① |
| 05 ③ | 06 ④ | 07 ⑤ | 08 ② |
| 09 ③ | 10 ② | 11 ③ | 12 ⑤ |
| 13 ① | 14 ④ | 15 ③ | |

**01** ㉤ '않더라도'는 '않'의 겹받침 'ㄶ' 중 'ㅎ'이 뒤의 'ㄷ'과 만나 'ㅌ'으로 축약되어 [안터라도]로 발음된다.

[겹받침의 거센소리되기]

(1) 'ㄶ, ㄾ'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예 많고[만코], 않던[안턴], 닳지[달치]

(2) 겹받침 'ㄺ, ㄿ, ㅄ'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두 소리를 합쳐서 [ㅋ, ㅍ, ㅊ]으로 발음한다.
예 밝히다[발키다], 넓히다[널피다], 앉히다[안치다]

**02** '줍니다[줌니다]'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줍니다'의 'ㄴ'의 영향을 받아 'ㅂ'이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만 일어난다.

**03** '곤란하여'는 'ㄹ'의 영향으로 'ㄴ'이 [ㄹ]로 바뀌어 [골:란하여]로 발음되는 유음화의 예에 해당한다. ④ 종로[종노]는 비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소리 나는 비음화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훈련[훌:련], ② 난로[날로], ③ 달나라[달라라], ⑤ 귤나무[귤라무]'는 'ㄹ'의 영향으로 'ㄴ'이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유음화의 예에 해당한다.

**04** '냇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ㅅ'이 'ㄷ'으로 바뀌어 [낻가]가 된 후, 다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낻까]로 발음된다.

**05** 모음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 발음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되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 ③의 '낳은'은 [나은]으로 발음되며, 이는 발음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ㅎ' 탈락에 해당하는 예이다.

**06** '걷다'는 앞 음절의 'ㄷ'의 영향으로 뒷말의 첫소리인 'ㄷ'이 된소리 [ㄸ]으로 바뀌어 [걷따]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먹다' 역시 앞 음절의 'ㄱ'의 영향으로 뒷말의 첫소리인 'ㄷ'이 된소리 [ㄸ]으로 바뀌어 [먹따]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그러나 '말다'는 [말다]로 발음되므로 아무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꽃망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ㅊ'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꼳망울]로, 다시 비음 'ㅁ'의 영향으로 'ㄷ'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꼰망울]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겉모양'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ㅌ'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걷모양]으로, 다시 비음 'ㅁ'의 영향으로 'ㄷ'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건모양]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앞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ㅍ'이 대표음 [ㅂ]으로 바뀌어 [압날]로, 다시 비음 'ㄴ'의 영향으로 'ㅂ'이 비음 [ㅁ]으로 바뀌어 [암날]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② '대관령'은 'ㄹ'의 영향으로 'ㄴ'이 [ㄹ]로 바뀌어 [대괄령]으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선릉'과 '신라' 역시 'ㄹ'의 영향으로 'ㄴ'이 [ㄹ]로 바뀌어 [설릉], [실라]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③ '대밭이'는 'ㅌ'이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ㅊ]으로 바뀌어 [대바치]로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맏이'는 'ㄷ'이 [ㅈ]으로, '쇠붙이'는 'ㅌ'이 [ㅊ]으로 바뀌어 각각 [마지], [쇠부치]로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연세'는 '년(年)+세(歲)'로, 한자음의 'ㄴ'이 탈락하여 [연세]로 발음되는 두음 법칙이 일어난다. '익명'은 '닉(匿)+명(名)'으로, 한자음의 'ㄴ'이 탈락하여 [익명]으로, '양심'은 '량(良)+심(心)'으로 한자음의 'ㄹ'이 탈락하여 [양심]으로 발음되는 두음 법칙이 일어난다.

**07** '일이'는 'ㄴ' 첨가에 의해 [일니]로, 다시 유음화에 의해 [일리]로 발음된다. '일이'는 한자음 '일'과 한자음 '이'가 합해진 말로, 여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08** '되어'는 '되-+-어'로 이루어진 말로, '반모음 첨가'에 따라 [되어/되여]로 발음하는 것이 모두 허용된다.

**09** '갇힐'은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ㅌ'으로 축약되어 [가틸]로, 다시 구개음화에 의해 'ㅌ'이 [ㅊ]으로 바뀌어 [가칠]로 발음된다.

**10** '굳이[구지]'는 'ㄷ'이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끝난[끈난]'은 'ㅌ'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끋난]으로 소리 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다시 [ㄷ]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오답 피하기

① '금리[금니]'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ㄹ'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듣는구나[듣는구나]'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ㄷ'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③ '래(來) + 일(日) → 내일', '로(老) + 인(人) → 노인'은 둘 다 한자음 'ㄹ'이 'ㄴ'으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④ '국수[국쑤]', '법도[법또]'는 앞 음절의 끝소리 'ㄱ, ㅂ'의 영향을 받아 뒷말의 첫소리인 예사소리 자음 'ㅅ, ㄷ'이 각각 된소리 [ㅆ], [ㄸ]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1)은 비음화가, (2)는 구개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3)은 두음 법칙이, (4)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따라서 (1)~(4)에는 모두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의 교체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11** '랴, 려, 례, 료, 류, 리'가 [야, 여, 예, 요, 유, 이]로, '녀, 뇨, 뉴, 니'가 [여, 요, 유, 이]로 발음될 때 'ㄹ'이나 'ㄴ' 탈락이,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나, 내, 노, 뇌, 누, 느]로 발음될 때는 'ㄹ'이 'ㄴ'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은 'ㄹ'이나 'ㄴ' 탈락이, ㉡은 'ㄹ'이 'ㄴ'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12** '잡히지'는 [자피지]로 발음되고, '좇지'는 [존찌]로 발음되므로 '치' 소리가 반복되지 않는다.

**13** 〈보기〉를 살펴보면 Ⓐ에는 여러 단계로 음운의 변동 과정이 나타나고 두 번째 과정에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잘못하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ㅅ'이 [ㄷ]으로 바뀌어 [잘몯하면]으로, 다시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ㄷ'과 'ㅎ'이 축약되어 [ㅌ]으로 바뀌어 [잘모타면]으로 발음된다.

오답 피하기

②, ③은 'ㄱ'+'ㅎ' → '[ㅋ]'으로 축약되어 소리가 나지만, 여러 단계로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잡히지'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ㅂ'과 'ㅎ'이 축약되어 [ㅍ]으로 바뀌어 [자피지]로 발음된다.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나나 여러 단계로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좇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받침 'ㅊ'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좉지]가 되고, 다시 된소리되기에 의해 [좉찌]로 발음된다. 여러 단계로 음운 변동이 나타나나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 '아파도'는 어간 '아프-'에 '-어도'가 결합하면서 'ㅡ'가 탈락된 것이다.

ⓒ '애써도'는 어간 '애쓰-'에 '-어도'가 결합하면서 'ㅡ'가 탈락된 것이다.

ⓓ '아픈'은 어간 '아프-'에 어미 '-ㄴ'이 결합한 경우로, 'ㅡ'가 탈락하지 않은 것을 보여 준다.

오답 피하기

ⓑ '파고들다'는 동사의 연결형 '파고'와 동사의 어간 '들-'의 합성어로 '파고들다, 파고들어, 파고드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파고들-'이 어간으로 모음 'ㅏ/ㅓ'로 시작하는 어미를 결합시킬 경우 '파고들어'가 되므로 'ㅡ'가 탈락하지 않는다.

**15** '잃고'는 겹받침 'ㄶ'의 'ㅎ'과 'ㄱ'이 만나 [ㅋ]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일코]로 발음된다. '박힌' 역시 'ㄱ'과 'ㅎ'이 만나 [ㅋ]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바킨]으로 발음된다. ③의 '닫힌'은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다틴]이 된 후, 구개음화가 한 번 더 일어나 [다친]으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박힌'과 동일한 사례라 할 수 없다.

## 창의·융합 서술형 본문 99쪽

**01** 예시 답 (1) 'ㅅ'은 [ㄷ]으로, 'ㄲ'은 [ㄱ]으로 발음 (2)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벋꼐], [깍뜯] (3) 'ㄴ, ㅁ'으로 끝난 어간 (4) 어미 'ㄱ, ㄷ, ㅅ, ㅈ'

**02** Ⓐ: 비음화, Ⓑ: 닥는다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비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03** 예시 답 (1) 남녀 공용 독서실 (2) '남녀'의 '녀'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는 위치(단어 첫머리)에 있지 않으므로 원래 소리 그대로 '녀'로 표기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남여'라고 적었기 때문

**01** (1)과 (2)는 벗겨[벋껴], 깎듯[깍뜯]의 음운 변동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빈칸에 맞게 답안을 작성한다. (3)과 (4)는 어간 받침 'ㄴ, ㅁ'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로, 제시된 사례를 보고 이를 적절한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1)~(4)를 모두 정확히 쓴 경우 | 4 | 4 |
| (1)~(4) 중 일부만 정확히 서술한 경우 | 각 1점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빠진 요소가 있을 경우 | −1 | |

**02** '잡는다'는 'ㄴ'의 영향으로 'ㅂ'이 비음 'ㅁ'이 되는 Ⓐ 비음화가 일어난다. '닦는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ㄲ'이 대표음 [ㄱ]으로 바뀌어 Ⓑ [닥는다]로, 다시 Ⓐ 비음화에 의해 [당는다]로 발음된다. 이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잡는다'와 달리 '닦는다'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비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 Ⓑ를 모두 맞게 쓰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비음화가 일어났다는 두 과정의 차이점을 밝혀 서술한 경우 | 4 | 4 |
| 두 과정의 차이점만 밝혀 서술한 경우 | 3 | |
| Ⓐ, Ⓑ는 적절하게 썼으나 두 과정의 차이점은 서술하지 못한 경우 | 2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 | −1 | |

**03** 두음 법칙은 한자어의 경우에 단어의 첫머리에서 일부 음운이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와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ㄹ'와 'ㄴ'이 탈락하고 [야, 여, 예, 요, 유, 이]와 [여, 요, 유, 이]로 발음된다. 즉 단어 첫머리에서 한자어의 경우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 'ㄴ'이나 'ㄹ'이 올 수 없어 두음 법칙이 일어난다. '여성'의 경우 '녀(女)+성(性)'으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만 '남녀'의 '녀'는 단어의 첫머리에 있지 않으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남여 공용 독서실'에서는 '녀'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표기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표기이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1) 올바른 표기, (2) 잘못된 표기가 나타나는 이유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6 | 6 |
| (1) 올바른 표기를 밝히고, (2) 잘못된 표기가 나타나는 이유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 4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틀린 경우 | −1 | |

## (2) 문법 요소

### STEP 1 개념 확인 테스트 본문 106~107쪽

**01** ㉡, ㉣ **02** 독립어 **03** (1) 주어 (2) 관형어 (3) 보어 (4) 서술어 (5) 목적어 (6) 서술어 **04** (1) 상대 높임법 (2) 주체 높임법 (3) 객체 높임법 **05** (1) 아주머니 (2) 할아버지 (3) 사장님 **06** (1) 드린, 읽으신다 (2) 뵈러, 왔다 **07** (1) 미래 (2) 현재 (3) 과거 **08** (1)–㉠ (2)–㉡ (3)–㉢ **09** ㉢ **10** (1) 물린다 → 물렸다 (2) 사용되어진다 → 사용된다 **11** 들렸다, 열렸고, 보였다 **12** (1) 직접 인용, 라고 (2) 간접 인용, 고 **13** (1) '나는 몸이 아파'라고 → "나는 몸이 아파."라고 (2) 아프다라고 → 아프다고 **14** 2 **15** 2 **16** 2 **17** 1 **18** 2

**01** ㉡ 부속 성분은 문장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므로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 문장을 이루는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관형어는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02** 독립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으로, 감탄사, 체언+호격 조사로 나타낸다.

**03** '모범'은 '학생'을 수식하는 관형어, '학생이'는 '아니지만'이라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보어, '상을'은 '받았다'라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목적어이다.

**04** (1) '-습니다'를 통해 문장의 청자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므로 상대 높임법이 사용된 문장이다.
(2)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문장의 주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법이 사용된 문장이다.
(3) '모시고'는 '데리고'의 높임말로, 데리고 간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다. 서술어의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법이 사용된 문장이다.

**05** (1)에서는 '저', '-ㅂ니다'를 통해 청자인 아주머니를 높이고 있고, (2)에서는 '께서', '진지', '잡수시다'를 통해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며, (3)에서는 조사 '께'와 '여쭈다'를 통해 객체인 사장님을 높이고 있다.

**06** (1) 내가 어머니에게 소설책을 전달한 경우 소설책을 준 행동의 대상(객체)인 어머니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드린'이 적절하고, 소설책을 읽는 행동의 주체 역시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이므로 '읽으신다'가 적절하다.
(2) 친구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 만나는 행동의 대상(객체)인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뵈러'가 적절하고, 우리 집에 온 행동의 주체인 친구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왔다'가 적절하다.

**07** (1) '가 볼 것'에서 '-ㄹ'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2) '한다'의 '-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3) '들려오던'의 '-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08** (1) '내린다'에서 '-ㄴ-'을 통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2) '어제'와 '보았다'의 '-았-'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3) '내일'과 '불겠습니다'의 '-겠-'을 통해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09** ㉠ 피동 표현은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여 나타내거나, '-되다', '-아지다/-어지다', '-게 되다' 등을 활용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 능동문이 피동문이 될 때에는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10** (1) 피동문으로 전환할 때 시제는 똑같이 유지해야 한다.
(2) '-되다'와 '-어지다'는 모두 피동 표현이므로 둘 다 사용하면 이중 피동이 된다.

**11**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이면 피동사가 된다. '들렸다'는 '들(듣)-+-리-+-었-+-다'로, '열렸고'는 '열-+-리-+-었-+-고'로, '보였다'는 '보-+-이-+-었-+-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각각 피동 접미사 '-리-', '-이-'가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한다. 직접 인용에서는 조사 '라고'가 쓰인다.
(2)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한다. 간접 인용에서는 조사 '고'를 쓴다.

**13** (1) 직접 인용에는 큰따옴표를 쓴다.
(2) 간접 인용에는 조사 '고'를 쓴다.

**14** 행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 즉 객체를 높이는 표현은 객체 높임법이다. 상대 높임법은 말을 듣는 청자를 높이는 표현이다.

**15** 말하는 이가 듣는 이나 다른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높임법이라고 한다. 첫 번째 문장은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두 번째 문장은 '모시다'라는 높임말을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16**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은 현재 시제이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가 미래 시제이다.

**17** '보였다'의 '-이-'는 피동 표현,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드러나게 된다'는 '-게 되다'가 쓰여 피동 표현이지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ㄴ-'이 사용되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18**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인용절의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지시어, 종결 어미 등을 문장에 맞도록 써야 한다. 또한 직접 인용과 달리 따옴표를 쓰지 않으며, 인용하는 내용 다음에 조사 '고'를 쓴다.

## STEP 2 기출 기초 테스트

본문 108~109쪽

**01** ② **02** ④ **03** (1) 선생님이 → 선생님께서, 갔어 → 가셨어 (2) 데리고 → 모시고 **04** ④ **05** ③
**06** ① **07** ③ **08** ③ **09** ⑤
**10** ⑤ **11** ③ **12** ⑤ **13** ④
**14** ⑤

**01** 상대 높임법은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02** '께서'와 '떠나신'에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고, '모시고'에서 높임말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모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1) '가다'의 주체인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조사는 '께서'를 사용하고 서술어에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가셨어'로 고쳐야 한다.
(2) 데리고 가는 행동의 대상인 어머니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모시다'라는 높임말을 사용하여 '모시고'로 고쳐야 한다.

**04** '주문하신'은 주문한 주체인 손님을 높이는 표현이다. 따라서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로 바로잡는 것이 적절하다.

**05** '내일'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시작하겠습니다'의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준비해 올 것'의 '-ㄹ' 역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 | 과거 | 현재 | 미래 |
|---|---|---|---|
| 선어말 어미 | -았-/-었-, -았었-/-었었-, -더- | -ㄴ-, -는- | -겠-, -(으)리- |
| 관형사형 어미 | -(으)ㄴ, -던 | -는, -(으)ㄴ | -(으)ㄹ |
| 부사어 | 어제, 옛날 | 지금, 현재 | 내일 |

**06** '읽었다'의 '-었-', '날씬하던'의 '-던', '약속한'의 '-ㄴ', '있더라'의 '-더-'는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①에서 '분다'의 '-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07** ㉢에서는 '도착한'에서 쓰인 관형사형 어미 '-ㄴ'과 '나누었다'에 쓰인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08** (나)에서는 '갈 거야', '내일'을 통해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더 뒤에 오는 시제이므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말을 하는 시점보다 더 먼저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9** 피동사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여 만든다.

오답 피하기

① 피동문에서는 부사어가 생략되기도 한다.
② 피동 표현은 동작을 당하는 대상을 부각할 때 사용한다.
③ 동사에 '-어지다, -게 되다'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동사에 '-게 하다'를 결합하여 만드는 것은 사동 표현이다.
④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므로 문장 성분이 바뀐다.

**10** '상정하다'의 피동 표현으로는 '상정되다'를 쓴다. '-되다'와 '-어지다'가 동시에 쓰이면 이중 피동이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문장의 주어인 '나무'는 나무꾼에 의해 베는 행위를 당하는 것이므로 '베었다'를 '베였다' 또는 '베어졌다'로 바꿔 써야 한다.

**12** ⑤는 주체인 어머니가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밥을 먹도록 시키는 것이므로 피동이 아니라 사동 표현이다.

**13**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어휘까지 그대로 사용해야 하지만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그 의미가 바로 전달되도록 어휘를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령, '그는 나에게, "나를 좀 도와줘."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그는 나에게 자신을 좀 도와 달라고 말했다.'로 어휘를 다듬어야 한다.

**14** 간접 인용 표현에는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 '고'를 사용하므로 ⑤가 간접 인용 표현으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괜찮다고 말했다.'가 간접 인용 표현으로 적절하다.
② '집에 가자고 말했다.'가 간접 인용 표현으로 적절하다.
③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어라' 대신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으라'를 사용하므로 '많이 먹으라고 말했다.'가 간접 인용 표현으로 적절하다.
④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가 간접 인용 표현으로 적절하다.

## STEP 3 교과서 기본 테스트 본문 110~112쪽

| | | | |
|---|---|---|---|
| 01 ② | 02 ① | 03 ① | 04 ③ |
| 05 ② | 06 ⑤ | 07 ② | 08 ① |
| 09 간접 높임, 상대 높임 | | 10 ⑤ | 11 ④ |
| 12 ⑤ | 13 ⑤ | | |

**01** '부모님'이 '조언하다'의 주체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조언해 주신'으로 수정해야 한다.

**02** '약속합니다'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현재 시제가 말하는 이 혹은 글쓴이의 단호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03** 수영이 손님에게 사용한 '해요체'는 비격식체이고, 손님이 수영에게 사용한 '하십시오체'는 격식체이다. 그러므로 서로 격식체를 사용한다고 할 수 없다.

**04** ㉠, ㉡ 모두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를 사용한 표현으로, ㉠은 선물을 받는 대상(객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고, ㉡은 마실 것을 받는 대상(객체)인 손님을 높이는 표현이다.

**05** '드리고'는 객체 높임 표현으로, '인사를 드리'는 행동의 대상(객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다.

오답 피하기

① 손님은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지내셨습니까?'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하십시오체는 격식체로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06** 촌장은 '읽어 본' 등으로 운반인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운반인을 높이기 위한 주체 높임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7** ㉡에서는 '오늘 아침', '받았습니다'의 '-았-'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08** 촌장의 진술에서 과거에 덫을 깔았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체를 밝힐 필요가 없으므로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9**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 생각 등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인다. ㉮에서는 흰머리를 '많으시다'라고 하며 '-시-'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으므로 간접 높임에 해당한다. 상대 높임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것으로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에서는 '많아지셨군요'로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대 높임에 해당한다.

**10** ⑤는 준비하는 주체인 '너희'는 높일 필요가 없고, 준비하라고 한 주체인 '선생님'은 높여야 하므로 '선생님께서 너희가 준비하라고 하셨어.'라고 수정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높여야 할 대상은 사장님이므로 간접 높임을 적용하여 '사장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로 수정한다.
② 물어보는 대상을 높여야 하므로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여쭙다'를 사용하여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높여야 할 대상은 선생님이므로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요'만 사용하여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높여야 하는 대상이 '고객님'이므로 조사 '께서'와 '-시-'를 사용하여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11** '믿겨지시나요'는 피동 접미사 '-기-'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의 경우 능동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믿으시나요'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간접 인용 표현으로 쓸 경우 조사는 '고'로 수정한다.
② 직접 인용 표현으로 쓸 경우 조사는 '라고'로 수정한다.
③ '생각되어지는'은 '-되다'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문맥상 '-하다' 형태의 능동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생각하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보여집니다'는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보입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웃어른 앞에서 자신의 말을 가리킬 때는 '말씀'을 써야 하므로 '말씀드려 줄래?'가 적절하다.

**13** '주셨어'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말을 해 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다.

## 창의·융합 서술형 본문 113쪽

**01** 예시 답 ㉠ 미래 시제 /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 과거 시제 /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02** 예시 답 「2」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나타내는 어미. ㉠ 곧 거기로 간다. / 「3」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어미. ㉠ 사람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다.

**01** ㉠은 '내일'이라는 부사로 미루어 보아, '틀렸어'는 비록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취하고 있으나 미래의 일을 가리킨다. 이때 제시된 사전의 의미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는 어미'이다. ㉡은 '벌써'라는 부사로 미루어 보아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다. 이때 제시된 사전의 의미 중 적절한 것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과 ㉡에 해당하는 시제와 선어말 어미의 의미를 모두 서술한 경우 | 4 | 4 |
| ㉠, ㉡의 시제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2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빠진 요소가 있을 경우 | -1 | |

**02**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ㄴ-'이 제시된 내용과 같이 쓰이는 경우, 미래에 일어날 사건임을 의미하거나 불변의 보편적인 사실임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두 가지 의미와 예시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4 | 4 |
| 두 가지 의미는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예시를 적절하게 들지 못한 경우 | 2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예문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1 | |

## (3) 한글 맞춤법의 원리

STEP 1 **개념 확인 테스트** 본문 120~121쪽

**01** 소리대로, 단어 **02** ㉠ 비, ㉡ 맞, ㉢ 기쁘, ㉣ 보, ㉤ 12개, ㉥ 6개 **03** ㉠, ㉢ **04** ㉢, ㉣ **05** (1) – ㉠, (2) – ㉢, (3) – ㉡, (4) – ㉤, (5) – ㉣, (6) – ㉥ **06** 두음 법칙 **07** ㉠ 혜택, ㉡ 계집, ㉢ 폐품 **08** (1) 거름 → 걸음 (2) 다쳤다 → 닫혔다 (3) 너머 → 넘어 **09** ㉠ 길이, ㉡ 마개, ㉢ 곳곳이, 바둑이, ㉣ 바가지 **10** ㉠ 반짇고리, ㉡ 홑몸, ㉢ 잇몸 **11** 그렇잖은
**12** 2 **13** 1 **14** 1 **15** 2
**16** 1

**01**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과 제2항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02** 제시된 문장은 '봄+비+를+맞+으며+기쁘+ㅁ+을+맛+보+ㄴ+다'로, 12개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실질 형태소는 '봄, 비, 맞-, 기쁘-, 맛-, 보-'로 6개이다.

**03**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단일어,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합성어,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는 파생어이다. '새파랗다'는 '파랗-'이라는 어근에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 '새-'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접사는 어근에 붙어 어근의 뜻을 제한하고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

**04** 문장의 다른 성분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수식언이다.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에서 '세'는 '사람'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수사가 아니라 관형사이다.

**05** (1) '내일'은 '래(來) + 일(日)'로 이루어져 있으나, 두음 법칙에 따라 '내일'로 적고 있으므로 ㉠과 연관이 있다.
(2) '내재율'은 '률'이 모음 'ㅐ' 뒤에 와 '율'로 적고 있으므로 ㉤과 연관이 있다.
(3) '소쩍새'는 된소리로 소리 나는 'ㅉ'이 두 모음 'ㅗ'와 'ㅓ' 사이에 위치해 있으므로 ㉡과 연관이 있다.
(4) '해돋이'는 구개음화에 의해 [해도지]로 발음되지만, '해돋이'로 적고 있으므로 ㉥과 연관이 있다.
(5) '산뜻하다'는 된소리로 소리 나는 'ㄸ'이 받침 'ㄴ' 뒤에 있으므로 ㉢과 연관이 있다.
(6) '싹둑싹둑'의 '둑'은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 [싹뚝]으로 발음되지만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과 연관이 있다.

**06** 한글 맞춤법 제10항~제12항은 모두 두음 법칙과 관련된 규정이다. 두음 법칙은 한자어 첫머리에 'ㄹ'이나 'ㄴ'이 오는 것을 회피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07** '계, 례, 몌, 폐, 혜'는 [게, 레, 메, 페, 헤]로 발음되지만 표기는 철자 형태대로 'ㅖ'로 적는다.

**08** (1) '거름'은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 주는 것'이고, '두 발을 번갈아 옮겨 놓는 동작'을 뜻하는 말은 '걸음'이다.
(2) '다치다'는 '상처를 입다'를 의미하고, '열린 문이나 뚜껑 등이 제자리로 가게 되다'를 의미하는 말을 쓰려면 '닫혔다'로 써야 한다.
(3) '너머'는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을 의미하고,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다'를 뜻하는 말은 '넘어'로 써야 한다.

**09** '길이'는 어간 '길-'에 '-이'가 붙어 명사로 된 것이므로 제19항과 관련이 있다. '마개'는 어간 '막-'과 관련이 있으나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명사로 되었으므로 제19항 [붙임]과 관련이 있다. '곳곳이'는 명사 '곳곳' 뒤에 '-이'가 붙어 부사로 된 것이고, '바둑이'는 명사 '바둑' 뒤에 '-이'가 붙어 명사로 된 것이므로 제20항과 관련이 있다. '바가지'는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이므로 제20항 [붙임]과 관련이 있다.

**10** ㉠ '물난리(물+난리)', '부엌일(부엌+일)', '빗나가다(빗+나가다)'는 모두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반짇고리(바느질+고리)'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다.
㉡ '사흗날(사흘+날)', '섣달(설+달)', '섣부르다(설+부르다)'는 모두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린 것이지만, '홑몸'은 '홑+몸'으로 관련이 없다.
㉢ '잇몸'은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가 아니다.

**11**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된 것은 그대로 적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은 '그렇잖은'으로 적는다.

**12**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한 단어를 여러 발음 형태대로 표기할 경우 그 뜻을 알기 어려우므로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것을 뜻한다.

**13** '짭짤하다'는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지만, 비슷한 음절인 '짭'과 '짤'이 겹쳐 나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면 같은 글자로 적는다.'에 따라 '짭짤하다'로 적는다.

**14** 한글 맞춤법 제5항에 따르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2**의 '법썩'은 '법석'으로 고쳐 써야 한다.

**15** 첫 번째 문장의 '같이'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16** **2**는 '~혼자 할 수 있어야 한다.'로 고쳐 써야 한다. '수'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 STEP 2 기출 기초 테스트

본문 122~123쪽

| | | | |
|---|---|---|---|
| 01 ③ | 02 ⑤ | 03 ② | 04 ㉠ 떡볶이, ㉡ 같이 |
| 05 ③ | 06 ① | 07 ③ | 08 ② |
| 09 ③ | 10 (1) 흔타 (2) 연구토록 | | 11 ⑤ |
| 12 ① | | | |

**01**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표준어를 적을 것, 소리 나는 대로 적되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어법에 맞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발음대로 적는 것을 표음주의라 한다.

⑤ '달달이'는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로 '다달이'로 적어야 한다.

**02** ⑤에서 '엉뚱하다'는 [엉뚱하다]로 발음되며 받침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된소리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묻히다'는 '묻'의 'ㄷ'의 받침 뒤에 '-히-'가 와서 [무치다]로 발음되나 '묻히다'로 표기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03** '분렬'은 'ㄴ' 받침 뒤에 '렬'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열'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분열'이 맞는 표기이다.

**04** '떡볶이'는 '떡+볶-+-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사이다. 따라서 동사의 어간 '볶-'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제19항을 적용하면 그 원형을 밝혀 '떡볶이'로 적어야 한다. '같이'는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다. 그러나 '곳곳이'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이므로 제19항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05** '이파리'는 명사 '잎' 뒤에 접미사 '-아리'가 붙어서 된 말로 명사의 원형을 밝혀서 적지 않는 단어이다.

**06** '먹어'는 어간 '먹-'에 어미 '-어'가 붙어서 된 말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내용에 따라 형태소를 밝혀 적은 것이다.

**07** '베갯잇'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08** '나뭇잎'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나무+잎'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말이 모음 'ㅜ'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고 있으므로 [나문닙]으로 발음해야 한다.

**09** '인삿말'은 '인사말'의 잘못된 표기로, '인사말'은 [인산말]로 발음되지 않고 [인사말]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쓰는 것은 잘못된 표기이다. 그리고 '인사말'은 한자어 '인사(人事)'와 순우리말 '말'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10** 한글 맞춤법 제40항을 적용해 보면 '흔하다'에서 '하'의 'ㅏ'가 줄고 'ㅎ'이 'ㄷ'과 어울려 거센소리 'ㅌ'이 되어 '흔타'가 되고, '연구하도록'은 '하'의 'ㅏ'가 줄고 'ㅎ'이 'ㄷ'과 어울려 거센소리 'ㅌ'이 되어 '연구토록'이 된다.

**11** ㉠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아는 것이 힘이다.'가 맞다.

㉡ '대로'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는 의존 명사로 쓰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애쓴 대로 성과가 나올 것이다.'가 맞는 표기이다.

**12** '우리', '민족'은 각각 한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또한 '뿐'은 체언 뒤에 오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염원은 통일뿐이다.'로 띄어 써야 한다.

## STEP 3 교과서 기본 테스트 본문 124~126쪽

| | | | |
|---|---|---|---|
| 01 ③ | 02 ③ | 03 ① | 04 ⑤ |
| 05 ⑤ | 06 ⑤ | 07 ① | 08 ⑤ |
| 09 ③ | 10 ⑤ | 11 ② | 12 ① |

**01** ㉡은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 것으로 일반적인 음운 변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 즉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에 해당한다.

**02** '늑대', '낙지'는 파열음인 'ㄱ'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으로, 일반적인 음운 변동에 해당한다. 이 둘은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3** ⓐ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04** '넘어서다'는 합성어 용언으로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므로, '넘어서니'라고 원형을 밝혀서 적어야 한다.

**05** '낱낱이'는 명사 '낱낱'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말이므로, 제20항의 [붙임]이 아닌 제20항의 예에 해당한다.

**06** '노름'은 '놀다'의 어간 '놀-'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말이지만 어원의 의미에서 멀어져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말에 해당한다. '거름'도 '걸다'의 어간 '걸-'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말이지만 어원의 의미에서 멀어져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말이다. '노름'과 '거름'은 둘 다 제19항 '다만'의 예에 해당한다.

**07** '앎'은 동사 '알다'에서 온 말로, 어간의 형태는 '알-'이다. 어간 '알-'에 '-ㅁ'이 붙어 만들어진 '앎'은 제19항의 "어간에 '-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관련이 있어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앎'이라고 적어야 한다.

**08** '쇠다'의 경우 'ㅚ'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ㅙ, ㅙㅆ'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어 '쇄', '쇘다'가 된다. 그러나 ⑤의 '쇠면서'는 '쇠다' 뒤에 '-면서'가 결합된 것이므로 제35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쇠면서'라고 써야 한다.

**09** ㉠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따라 형식 형태소 '-히-'를 밝혀 적어야 하므로 '닫혔을'로 적는다.
㉡ 한글 맞춤법 제11항의 [붙임]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출석률'로 적는다.
㉢ 한글 맞춤법 제22항의 "다만, '-이-, -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에 따라 '바쳐'로 적는다.
㉣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부쳤다'로 적는다.
㉤ 한글 맞춤법 제25항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생긋이'로 적는다.

**10** 한글 맞춤법 제45항에 따르면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써야 한다. '등등'은 열거할 때 쓰이는 말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하지만, '등등'은 '그 밖의 것을 줄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의미를 지닌 한 단어이므로 '등등'으로 붙여 써야 한다.

**11** ②의 '살고 보다'는 '보다'가 보조 동사이지만 '-아/-어'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늙어 가다'는 '-어' 뒤에 보조 동사 '가다'가 연결된 형태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씀도 허용된다.
③ '믿을 만은 하다'의 '만하다'는 의존 명사에 '-하다'가 붙은 보조 용언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하지만 '다만'에 제시된 규정에서 앞말에 조사가 붙은 경우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믿을 만은 하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④ '모르는 체하다'의 '체하다'는 의존 명사에 '-하다'가 붙은 보조 용언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⑤ '분리해서 버리다'의 '버리다'는 보조 동사로 쓰이지 않았다. '분리하다'와 '버리다'가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쓰인 형태로 보아야 한다.

**12** '까지'는 조사이므로 '어디까지나'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또한 '이었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으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한글 맞춤법 제41항에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어디까지나', '생각이었다'로 수정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② '대로'는 조사와 의존 명사 두 가지의 쓰임이 있다. 앞말에 체언이 왔을 경우 조사, 용언의 관형사형이 왔을 경우 의존 명사로 보고 이에 맞는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의 '생각한'은 용언의 관형사형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이것과 관련 있는 조항은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를 규정하고 있는 제42항이다.
③ ㉡의 '해보렴'은 '보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였으므로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해'가 '하- + -어'로 분석되므로, 제47항에 의거하여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된다.
④ ㉢의 '이사장 및 이사들'의 '및'은 제45항의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사장 및 이사들'로 띄어 써야 한다.
⑤ 앞에 쓰인 명사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들'은 접미사로, 띄어 쓰지 않는다.

## 창의·융합 서술형 본문 127쪽

**01** (1) 고지, 어법에 맞도록 (2) 이파리, 소리대로 (3) 도라가다, 어법에 맞도록

**02** 예시 답 (1) 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기
(2) 20항의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하는데, '이파리'는 '잎+-아리'로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기
(3) 15항의 [붙임],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돌아가다'는 '돌다'와 '가다'가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된 것으로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기

**03** (1) 방에서∨놀고들∨있어. (2) 나는∨친구들을∨만났다.

**04** 들05, 41항,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기, 붙여

**01** '곧이'는 구개음화로 인해 [고지]로 발음되며, 발음과 달리 '곧이'로 표기하므로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것이다. '이파리'는 [이파리]로 발음되며, 발음과 같이 '이파리'로 표기하므로 소리대로 표기한 것이다. '돌아가다'는 [도라가다]로 발음되며, 발음과 달리 '돌아가다'로 표기하므로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것이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1)~(3)의 발음을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 각 1점 | 6 |
| (1)~(3)의 표기 구분을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 각 1점 | |

**02** (1)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따라 '곧이'는 'ㄷ' 받침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고지]로 발음되지만 '곧이'로 적는다.
(2) 한글 맞춤법 제20항의 [붙임]에 따라 '이파리'는 명사 '잎'에 접미사 '-아리'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다.
(3) '돌아가다'는 '돌다'와 '가다'가 결합한 합성어로, '물체가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여 가다.'를 뜻하므로 '돌다'라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그 원형을 밝혀 '돌아가다'로 적고 있으므로 제15항 [붙임]의 예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1)~(3)의 관련 조항과 그 관련성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각 2점 | 6 |
| (1)~(3)의 관련 조항은 모두 밝혔으나 그 관련성을 일부 서술하지 못한 경우 | 4 | |
| (1)~(3)의 관련 조항만을 모두 밝힌 경우 | 2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 | −1 | |

**03**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조사는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1)은 '방(명사)에서(조사)∨놀고(동사)들(조사)∨있어(동사).'로 띄어 써야 한다. (2)는 '나(대명사)는(조사)∨친구들(명사)을(조사)∨만났다(동사).'로 띄어 써야 한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두 문장 모두 올바르게 띄어쓰기를 한 경우 | 3 | 3 |
| 두 문장 모두 올바르게 띄어쓰기를 하였으나 교정 부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2 | |

**04** '놀고들'에서 '들'은 '-고'라는 연결 어미에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 1〉의 '들05'는 체언, 부사어, 연결 어미 등의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하였으므로 '놀고들'의 '들'이 조사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보기 2〉의 제41항에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하였으므로 '놀고들'로 붙여 써야 한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들'이 〈보기 1〉의 어디에 속하는지 밝히고, 이를 통해 〈보기 2〉를 적용하여 띄어쓰기를 한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각 3점 | 6 |
| '들'이 〈보기 1〉의 어디에 속하는지 밝혔으나 이를 통해 〈보기 2〉를 적용하여 띄어쓰기를 한 이유를 서술한 내용이 미흡한 경우 | 3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 | −1 | |

## (4) 국어의 역사성

STEP 1 개념 확인 테스트 본문 133~134쪽

**01** 역사성 **02** ㉡, ㉤ **03** (1) 온 (2) ᄀᆞᄅᆞᆷ (3) 뫼
**04** ㉠ 남자 노인, ㉡ 남자, ㉢ 불쌍하다 **05** (1) ㆁ, ㅿ, ㅸ, ㆍ (2) ㆍ (3) ㅐ, ㅔ **06** (1) – ㉣ (2) – ㉠ (3) – ㉡ (4) – ㉢
**07** (1) 하지 않았다. (2) 여덟 (3) 이어적기 (4) 세로쓰기 **08** (1) 말씀이 (2) 말씀을 (3) 뜻을 (4) 나라의 (5) 사람이 **09** (1) × (2) × (3) ○ (4) ○ **10** 한글의 우수성 **11** 1 **12** 2
**13** 1 **14** 2 **15** 1

**0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운, 어휘, 표기, 문법이 변화하는 국어의 성질을 '국어의 역사성'이라 한다.

**02** ㉡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성, 상성, 거성이 있었다. 그중 현대 국어에서는 상성이 장음으로 변하여 소리의 길이를 통해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는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지 않았다.

**03** 백(百)을 의미하는 고유어 표현은 '온', 강(江)을 의미하는 고유어는 'ᄀᆞᄅᆞᆷ', 산(山)을 의미하는 고유어는 '뫼'이다.

**04** '영감'은 벼슬아치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 일반으로 의미 영역이 확대되었으며(의미의 확대), '놈'은 사람 또는 남자 전체라는 의미에서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 영역이 축소되었다. 또 '어엿브다'는 '불쌍하다'라는 의미에서 '예쁘다'로 의미의 영역이 이동하였다(의미의 이동).

**05** (1) 'ㆁ'은 현대 국어에서 'ㅇ'으로 변하였으며, 'ㅿ'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소멸되었고, 'ㅸ'은 대개 '[w]'로 변하여 이중 모음을 형성하거나 소멸하였다.
(2) 'ㆍ'는 두 단계를 거쳐 소실되었는데, 먼저 16세기에 둘째 음절 이하에서 'ㅡ'로 변하였고, 18세기에 첫째 음절에서 'ㅏ'로 변하였다.
(3) 이중 모음이었던 'ㅐ, ㅔ'는 'ㆍ'의 소실의 영향으로 단모음화되었다.

**06** (1) 중세 국어에서 '스믈'이던 것이 현대 국어에서 '스물'이 되었다. 'ㅡ'가 'ㅜ'로 바뀌었으므로, 순음 'ㅁ, ㅂ, ㅍ' 아래에서 'ㅡ'가 'ㅜ'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와 관련이 있다.
(2) 중세 국어에서 '펴디'였던 것이 현대 국어에서 '펴지'가 되었다. 'ㅣ' 모음 앞에 'ㄷ'이 'ㅈ'으로 바뀌었으므로 'ㅣ' 모음에 선행하는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와 관련이 있다.
(3) 중세 국어에서 '니르고져'였던 것이 현대 국어에서 '이르고자'가 되었다. '니'가 '이'로 바뀌었으므로 모음 'ㅣ' 앞에서 'ㄴ'이 탈락되는 두음 법칙과 관련이 있다.
(4) 중세 국어에서 '자ᄇᆞ니(잡+ᄋᆞ니)'였던 것이 현대 국어에서 '잡으니'가 되었다. '잡'의 'ㅏ'와 'ᄋᆞ'의 'ㆍ'가 어울리던 것이 'ㅏ'와 'ㅡ'가 어울리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모음 조화와 관련이 있다.

**07** 중세 국어 시기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며, 종성으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의 여덟 자만 허용하는 8종성법이 원칙이었다. 또한 글자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으며, 한자 문화권의 영향으로 세로쓰기를 하였다.

**08** (1) '말ᄊᆞᆷ+이'를 이어적기 한 것으로 '말ᄊᆞᆷ'은 현대 국어로 '말씀'이다.
(2) '말ᄊᆞᆷ+ᄋᆞᆯ(목적격 조사)'을 이어적기한 것이다.
(3) '뜯(>뜻)+을(목적격 조사)'을 이어적기한 것이다.
(4) '나라+ㅅ(관형격 조사)'을 표기한 것이다.
(5) '놈+이(주격 조사)'를 이어적기 한 것이다. '놈'은 현대 국어로 '(보통) 사람'이다.

**09** (1)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와 달리 '가'가 쓰이지 않았다.
(2) 중세 국어에서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ᄉᆞᆸ-, -ᄌᆞᆸ-, -ᄉᆞᅀᆞᆸ-'으로 표현하였다.
(3) 중세 국어에서는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에 서로 다른 의문형 종결 어미를 적용하여, 설명 의문문은 '-오' 계열, 판정 의문문은 '-아' 계열의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였다.
(4)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엄격히 지켜져 체언의 끝소리가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가 쓰였다.

**10** 한글은 그 과학성과 독창성,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자음과 모음 24자를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고, 자음과 모음을 모아 쓰기 때문에 컴퓨터나 휴대 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글자와 소리가 일치하는 특성을 지녀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기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11** 국어의 역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어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12** 중세 국어 시기에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졌다.

**13** 중세 국어에서는 8종성법이라 하여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의 8개 자음만 표기하도록 하였다.

오답 피하기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국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적는 《동국정운(東國正韻)》식으로 표기하였다.

**14** 중세 국어 시기의 주격 조사는 자음 아래에서 '이', 'ㅣ' 이외의 모음 아래서 'ㅣ'로 실현되었으며, 'ㅣ' 모음 아래에서는 생략되었다.

**15** 한국어에 대한 국수주의적 태도를 갖는 것은 한국어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 STEP 2 기출 기초 테스트 본문 135~136쪽

| | | | |
|---|---|---|---|
| 01 ⑤ | 02 ④ | 03 ① | 04 ⑤ |
| 05 ① | 06 ① | 07 ① | 08 ⑤ |
| 09 ⑤ | 10 ② | 11 ③ | 12 ⑤ |
| 13 ④ | | | |

**01** 중세 국어의 표기 방식은 현대 국어와 다른 면이 많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세로쓰기를 하였으며,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고, 끊어적기가 아닌 이어적기를 하였다. 또한 8종성법에 따라 받침을 표기하였으며,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붙였다. 따라서 표기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중세 국어 시기에는 아직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의 모습대로 표기하고 발음하였다. 구개음화는 근대 국어 시기부터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03** '나·랏:말ᄊᆞ미'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나라의 말이'가 된다. '나랏'은 '나라+ㅅ(관형격 조사)'으로, 말ᄊᆞ미는 '말ᄊᆞᆷ(말)+이'로 분석된다.

**04** ①~④는 형태소 간 경계를 밝히지 않고 앞말의 받침을 뒷말에 이어 적는 방식인 이어적기(연철)로 표기하고 있으나, ⑤는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의 경계를 밝혀 적는 끊어적기(분철)로 표기하고 있다.

**05** '中듕'은 한자음을 중국 발음에 가깝게 적고자 한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할 수는 있으나 종성이 있는 한자음이므로 형식 종성 'ㆁ'을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06** '닢'은 8종성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8개의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에 해당하지 않는 'ㅍ'을 받침으로 표기하고 있어 제시된 설명과 관련이 없다.

**07** 어두 자음군은 단어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 어두 자음군은 두 자음 모두 발음되다가 점차 된소리로 바뀐다.

**08** 관형격 조사 'ᄋᆡ/의, ㅅ'은 체언의 음성 모음/양성 모음 여부와 유정 명사/무정 명사 여부, 그리고 높임의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결합하였다.

**09**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진 것이 특징이나, 'ᄇᆞᄅᆞ매', 'ᄀᆞᄆᆞ래'의 경우 음성 모음이 아니라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나타난다.

**10** '닐러'는 구개음화가 아니라 두음 법칙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던 시기의 표기이다.

**11** 이어적기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과 결합할 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말한다. 〈보기〉의 중세 국어 표기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를 하고 있고, 현대 국어 표기에서는 어법에 맞게 표기하는 끊어적기를 하고 있다. 현대 국어 표기에서는 단어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12** '홇배 → 하는 바가'에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바+ㅣ'를 '배'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ㅣ'를,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가'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제시된 대화 속 학생들은 '채팅', '쇼핑몰', '브랜드', '컬러' 등의 외래어를 쓰고 있다. 국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말을 고유어로 순화한 순화어를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 STEP 3 교과서 기본 테스트

본문 137~138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④
05 ④ 06 ③ 07 ⑤ 08 ②
09 ④

**01** (나)의 '글ᄋᆞ샤딕'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를 통해 공자가 말하는 행동을 높여 표현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③ (나)의 '받ᄌᆞ온'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ᄌᆞᆸ-'을 통해 효도의 대상인 부모를 높여 표현한 것이다.

**02** 원순 모음화는 순음 'ㅁ, ㅂ, ㅍ' 아래에서 'ㅡ'가 'ㅜ'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일홈을'은 현대 국어로 '이름을'이므로 원순 모음화와 무관하다.

**03** '뿌메'는 '쓰-+움+에', '아니홈이'는 '아니하-+-옴+이', '씀에'는 '쓰-+-ㅁ+에', '아니함이'는 '아니하-+-ㅁ+이'로 분석된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로 '-움/-옴'이 사용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로 '-ㅁ'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04** 중세 국어 시기의 주격 조사는 자음 아래에서 '이', 'ㅣ' 이외의 모음 아래서 'ㅣ'로 실현되었으며, 'ㅣ' 모음 아래에서 생략되었다. 따라서 '노미'는 '놈+이'로,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05** 이어적기는 형태소 간의 경계를 밝히지 않고 앞말의 받침을 뒷말에 이어 적는 방식이다. '말ᄊᆞ미(말씀+이), ᄠᅳ들(뜯+을), 노미(놈+이), ᄉᆞᄅᆞ미니라(ᄉᆞᄅᆞᆷ+이니라)'가 이어적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ᄅᆞᆷ마다'는 '사ᄅᆞᆷ+마다'로 이어적기와는 관련이 없다. '비르소미오'는 '비릇+옴+이오'로 분석되므로 이어적기를 한 것이다.

**06** (다)에 ⓐ~ⓒ의 현대 국어에서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현대어 풀이와 (가), (나)를 비교하여 ⓐ~ⓒ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야 한다. '어리석은'과 '가엾게'에 해당하는 것은 (가)의 '어린'과 '어엿비'이다. 또 '형체'에 해당하는 것은 (나)의 '얼굴'이다.

**07** 상대에게 '예'나 '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이다. ㉠은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으로 의문 보조사 '고/오'와 '-오' 계열의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인다. ㉡은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으로 의문 보조사 '가/아'와 '-아' 계열의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인다.

**08** ㆆ 종성 체언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는 'ㆆ' 없이 쓰이고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ㆆ'이 출현한다. '내히'는 '내ㆆ+이(주격 조사)'이므로 ㆆ 종성 체언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불휘(> 뿌리) ③ 새미(샘+이)

**09** 외국어로 된 간판이 많은 것은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외국어의 사용이 외국어의 조기 학습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 창의·융합 서술형

본문 139쪽

**01** 예시 답 (1) 메+쌀, 조+쌀 (2) '쌀'이 본래 'ᄡᆞᆯ'이었기 (3) '조+ᄡᆞᆯ> 좁쌀', '메+ᄡᆞᆯ> 멥쌀'로 발음되고 표기되었기 때문에 (4)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알 수 있다.

**02** 예시 답 ㉠ ·, ㉡ ㅏ, ㉢ 같아졌다, • 이유: 'ᄒᆞ다'가 '하다'가 되면서 '많다'의 의미인 '하다'와 의미 구별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많다'라는 표기 형태가 남고 '하다'가 사라지게 되었다.

**01** '멥쌀'과 '좁쌀'의 'ㅂ'에 대해 국어의 변화를 고려하여 설명하는 문제이다. 〈보기 1〉을 통해 '찹쌀'이 과거 '찰+ᄡᆞᆯ'이었다는 정보를 얻고, 〈보기 2〉를 통해 '쌀'의 과거 형태가 'ᄡᆞᆯ'이었다는 것을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기 1〉에서는 '찹쌀'의 사전적 의미와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고, 〈보기 2〉에서는 과거 '쌀'의 표기에 대해 다루고 있다.

(1) 먼저 〈보기 1〉을 보면 '찹쌀'은 '찰+쌀'이므로 '멥쌀'과 '좁쌀'은 각각 '메+쌀', '조+쌀'임을 알 수 있다.

(2), (3) 〈보기 2〉에서는 '쌀'이 원래는 'ᄡᆞᆯ'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면 '메+ᄡᆞᆯ', '조+ᄡᆞᆯ'임을 알 수 있다.

(4) 〈보기 1〉의 〔역사 정보〕에서는 '출ᄲᆞᆯ>ᄎᆞᆯ>춥ᄲᆞᆯ>춥ᄊᆞᆯ>찹쌀'의 과정을 통해 'ᄲᆞᆯ'이 현재까지 받침 'ㅂ'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례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언어는 관련이 깊으며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1) 단어의 구성과 (2) 'ㅂ'이 첨가된 발음으로 소리 나고 표기되는 이유, (3) 오늘날에도 '좁쌀'과 '멥쌀'과 같이 쓰는 이유, (4) 이 사례와 관련된 언어의 특성인 언어의 역사성에 관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6 | 6 |
| (1)~(3)은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4)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 4 | |
| (4)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2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 | |

**02** '하다'가 '많다'의 뜻으로 쓰이지 않게 된 과정을 'ㆍ(아래아)'의 소실 과정과 연결하여 서술하는 문제이다. 〈보기 2〉를 보면 중세 국어의 'ᄒᆞ다'는 '하다'로 이어지나, 중세 국어의 '하다'는 '많다'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보기 1〉을 보면, 〈보기 1〉에서 'ㆍ'는 'ㅏ'와 구분되는 발음이라고 하였으므로 '하다'와 'ᄒᆞ다'는 형태와 의미가 구별이 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ㆍ'가 소실되면서 'ᄒᆞ다'의 어간 'ㆍ'는 'ㅏ'로 바뀌고 '하다'가 되어 기존에 쓰이던 '하다('많다'의 의미)'와 구분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이유로 '하다'는 같은 의미를 가진 '많다'에 밀려 사라지고, '하다'만이 현대 국어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에 들어갈 말을 정확히 쓰고, '하다'가 사라진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3 | 3 |
| ㉠~㉢에 들어갈 말은 정확히 썼으나, '하다'가 사라진 이유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 2 | |
| ㉠~㉢의 일부만 맞게 쓴 경우 | 1 | |

# 3. 읽기

## (1) 읽기의 본질

### STEP 1 개념 확인 테스트 본문 145~146쪽

**01** ㉠ 문제, ㉡ 상호 **02** ㉠ – 맥락, ㉡ – 여론, ㉢ – 해결, ㉣ – 대안 **03**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 **04** ㉢ **05**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06** ㄴ **07** (1) ○ (2) ○ (3) × **08** ㄴ **09**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10** 수진, 민수 **11** 2 **12** 2 **13** 1 **14** 1 **15** 2

**01** 읽기의 본질은 읽기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고 다른 사람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02** ㉠(맥락)과 ㉡(여론)은 읽기의 특성 중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와 관련 있고, ㉢(해결)과 ㉣(대안)은 읽기의 특성 중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와 관련 있다.

**03** 읽기 과정에서 글을 읽으며 갖게 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읽기의 특성 중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에 해당된다.

**04** 읽기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활동이다.

**05** 비판적 독서를 통해 독자 자신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는 과정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에 대한 설명이다.

**06**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는 '소비자가 이렇게 많은 옷을 쉽게 소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이므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특성에 따라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다.

**07**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에 해당한다.

**08** 이 시에서는 현재 이 세상에 내가 기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또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위해 노력하면서 나다운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다. 따라서 이 시를 제대로 읽었다면 ㄱ, ㄷ, ㄹ과 같은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09** 제시된 내용이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 과정을 나열한 것이라고 할 때, ㉠에는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회 구성원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0**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읽기'는 독자가 경험이나 배경지식 등을 활용하여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단어·문장의 의미, 글의 전개 과정 등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 유라는 천문학자라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보고 있으므로, 진로 탐색 과정으로서의 읽기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1** 읽기는 글의 의미를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경험 등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활동이다. 그 과정에서 글쓴이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해야 한다.

**12**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는 독자가 속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며 글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13**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를 통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에서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발견하기도 한다.

**14**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읽기는 독자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경험이나 배경지식 등을 활용하여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단어·문장의 의미, 글의 전개 과정, 주장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어야 한다.

**15** 학생은 자신의 적성을 찾지 못해 진로를 고민하고 있고, 선생님은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 독서하면 적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는 진로를 정하기 전에 진로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는 활동인 '진로 탐색 과정으로서의 읽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진로 탐색 과정으로서의 읽기'는 진로를 정하기 전에 진로 탐색을 위해 하는 읽기 활동이다. 1은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 활동에 대한 설명이므로, 진로를 찾고자 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활동이라 할 수 없다.

## STEP 2 기출 기초 테스트 본문 147~148쪽

| | | | |
|---|---|---|---|
| 01 ④ | 02 ③ | 03 ③ | 04 ④ |
| 05 ③ | 06 ④ | 07 ④ | 08 ⑤ |

**01** '학생 2'는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안을 비판하고 있으며, 그 해결 방안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의 결과이다.

오답 피하기

① '학생 1'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글이라고 평가하였으므로, 자신이 속한 상황을 고려한 읽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학생 1'은 이 글을 통해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는 읽기(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학생 2'는 이 글을 사회 구조의 문제와도 결부시켜 파악하고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입장도 고려하며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읽기 과정에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읽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학생 1'과 '학생 2' 모두 글을 읽고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의미를 구성하는 읽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02** 빌 게이츠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이에 관해 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ㄷ은 적절하지 않다.

**03**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 활동은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글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이므로, '청소년 노동'에 대해 공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겠다는 현서의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04** 제시된 글에서는 '꽃'을 '청춘'에 비유하고 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는 것은 청춘들이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라는 것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05** 이 글에서는 '등나무는 마치 … 잔치를 벌였고…'라는 구절을 통해 자연물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여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06** 글쓴이(건축가)는 운동장에 구조물을 만들어 등나무가 자라나게 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과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완성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건축은 자연과 인간, 자연과 건축이 하나가 되는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07** 이 학생은 글을 읽으며 형성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고, 이를 통해 책의 의미에 대해 다시 고찰하였으므로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 활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8** '진로 탐색 과정으로서의 읽기'는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읽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해 보는 읽기 활동이다. 따라서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생각이 달라진 점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를 진로나 관심사가 다른 친구에게 권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STEP 3 교과서 기본 테스트 본문 149~150쪽

| | | | |
|---|---|---|---|
| 01 ④ | 02 ④ | 03 ④ | 04 ⓓ, 문제 해결 |
| 05 ④ | 06 ③ | 07 ④ | 08 ④ |
| 09 ⑤ | | | |

**01** (나)를 보면 뉴욕 시 보건 당국은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식중독을 유발한 음식을 추적하고 식중독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식자재를 알리거나 냉장 시설이나 위생 상태 점검을 권유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것이지, 식중독 예방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기업들이 누리 소통망을 이용해 저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른 맞춤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광고의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빅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빅 데이터의 중요성을 포착한 이들은 바로 기업이었습니다.'라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에서 뉴욕 시 보건 당국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식중독의 발병의 원인을 추적하고 예방에 기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온라인 서점 회원의 정보 등을 데이터로 저장해 두었다가 이후에 그 회원이 누리 소통망을 이용할 때 그 회원에게 맞는 도서 광고가 뜨도록 조정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02** (가)는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빅 데이터의 사례이고, (나)는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빅 데이터의 사례이므로, (가)와 (나)는 각각의 사례를 제시하여 빅 데이터의 쓰임새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에서는 빅 데이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 빅 데이터 감시의 부재 문제를 제기하여 빅 데이터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03** 이 글에서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빅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없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다)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활동을 통해 그 문제점의 도출이 적절한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05** 이 글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실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는다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06** 이 글은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큰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글을 바탕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글쓴이의 주장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07** ⓓ는 이 글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므로 추가 정보 확인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청소년 열 명 중 여덟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정확한 비율과 이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면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두 시간 삼십육 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청소년들의 정확한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이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면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이라고 하였으므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이 뜻하는 의미와 중독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 분류, 이러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면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다.

ⓔ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율은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2011~2013년의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08**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활동은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발견하기도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며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권위 있는 전문가가 쓴 글이라도 독자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② 읽기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확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글쓴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③ 이 글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글이므로, 청소년인 학생도 이 글의 예상 독자라고 할 수 있다.

⑤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는 개인이 이해한 의미를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글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09** ㉠의 앞 문장에서는 '청소년 열 명 중 여덟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실태와, 스마트폰의 이용 시간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⑤의 내용이 ㉠의 이유로 적절하다.

### 창의·융합 서술형 본문 151쪽

**01** (1) 예시 답 인공 지능이 발전하면 그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기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도 향상될 것이다. (2) 인공 지능이 발전하면 학습 능력이 있는 인공 지능은 인간보다 빨리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므로 1, 2차 산업 혁명 때와 달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자본이 많고 기술력이 높은 선진국에 부가 편중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02** 예시 답 인공 지능이 발전하면 인류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말하는 인공 지능 로봇 '소피아', 인종 차별적인 발언으로 폐기된 챗봇 '테이'의 경우를 보아도, 인공 지능이 인간의 잘못된 윤리 의식을 학습할 경우 인류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01** (가)와 (나)는 인공 지능의 발전에 대해 대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소외 계층의 복지 향상을 근거로 인공 지능의 발전이 인류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 지능의 학습 능력을 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근거로 들면서 인공 지능의 발전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가)의 근거로 '일자리 창출', '소외 계층의 복지 발전'을 서술하였고, (나)의 근거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를 서술한 경우 | 4 | 4 |
| (가)의 근거만 서술하거나 (나)의 근거만 서술한 경우 | 2 | |
| • 의미가 모호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br>• '-다'와 같이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경우 | −1 | |

**02** (나)의 입장에 동조하는 주장을 쓰려면 인공 지능 발전에 우려를 표명해야 하고, 그것이 인류에게 해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인공 지능 '소피아', 챗봇 '테이'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주장과 함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서술해야 한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인공 지능이 발전하면 인류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 인공 지능 '소피아'와 챗봇 '테이'의 사례, '인간의 잘못된 윤리 의식을 학습한 인공 지능은 위험하다'는 이유가 모두 서술된 경우 | 10 | 10 |
| 인공 지능 '소피아' 또는 챗봇 '테이'의 사례가 없는 경우 | 8 | |
| '인간의 잘못된 윤리 의식을 학습한 인공 지능은 위험하다'는 이유를 포함하여 서술하지 않은 경우 | 7 | |
| '인공 지능이 발전하면 인류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만 있는 경우 | 5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2 | |
| '-다'와 같이 평서형 종결 어미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경우 | −1 | |

유사 정답 | '인공 지능의 발전이 인류에게 해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 '소피아'와 '테이'는 둘 중 한 개만 써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 '인간의 잘못된 윤리 의식을 학습', 혹은 '인간의 잘못된 윤리 의식과 결합', '인간의 잘못된 윤리 의식의 반영' 등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 '인공 지능의 잘못된 윤리 의식'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읽기의 방법과 태도

### STEP 1 개념 확인 테스트 본문 156~157쪽

**01** ㉠ 목적, ㉡ 방법 **02** ㉠ **03** 지식이나 정보 습득을 위한 읽기 **04** 예술 비평문, 문학 작품
**05** 매체 **06** ㄱ **07** ㄷ **08** 텔레비전 광고
**09** ㉡ **10** ㄷ **11** 디지털 통신 매체
**12** ㉠ **13** 1 **14** 1 **15** 2
**16** 2 **17** 1 **18** 2

**01** 글을 읽는 목적은 매우 다양하고 독자가 어떤 목적으로 글을 읽느냐에 따라 읽기의 방법 또한 다양해진다.

**02** 글쓴이의 체험이나 상상에 공감하며 읽는 방법은 재미나 감동,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읽기의 방법이다.

**03** '전체 내용을 훑으며 필요한 정보 파악하기', '소제목, 문단 핵심어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 요약하기', '정보의 근거 및 자료의 출처 파악하기'는 모두 글을 통해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글을 읽는 방법이다.

**04** 재미, 감동,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읽는 글의 종류에는 예술 비평문, 문학 작품 등이 있다.

**05** 매체란 책, 신문, 잡지, 라디오, 사진, 광고, 텔레비전, 인터넷 등과 같이 다양한 기술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로에 해당하는 현대적 소통 수단을 말한다.

**06** 매체에 따른 글 읽기는 신문, 광고, 텔레비전 등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 것을 뜻한다.

**07**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인가를 평가하는 것은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08** 텔레비전 광고는 시청각 매체이므로, 배경, 이미지, 광고 문구, 음악, 내레이션 등으로 내용을 표현한다. 광고 매체를 접할 때는 광고에 드러난 관점과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09** 신문 기사를 구성하는 요소 중 부제는 제목에 덧붙어 그것을 보충하는 제목을 의미한다.

**10** 뉴스 보도를 평가할 때는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적절한지 평가해야 한다. 텔레비전 방송 보도의 경우 내용의 흥미성과 제작 의도나 관점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11** 디지털 통신 매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누리집, 블로그, 누리 소통망(SNS)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 통신 매체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비교적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으며, 대량의 정보 유통이 가능하다. 디지털 통신 매체는 내용 생산, 전달의 주체, 상호 작용 방식, 파급력, 언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용에 드러난 관점과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읽기 전 활동에서는 읽기 목적을 확인하고, 글의 제목과 소제목, 사진 등을 훑어보며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읽기 방법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읽은 후 활동에 해당한다.

**13** '목적에 따른 글 읽기'는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읽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책을 읽는 방법을 말한다.

**14** 매체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을 때에는 매체를 생산한 주체는 누구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매체가 담고 있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글쓴이가 대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의도가 타당하고 적절한지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또한 문자로 표현된 것뿐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 도표, 글의 요소들이 배치된 방식의 의미와 적절성도 따져 보아야 한다.

**15** 신문 기사는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읽는 글이므로 전체 내용을 훑으며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읽기 방법이 필요하다. 주장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파악하며 읽는 방법은 내용이나 주장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읽기에 필요한 방법이다.

**16** 디지털 통신 매체는 익명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예절을 지키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17** 통독은 중심 내용을 살펴보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훑어보며 읽는 방법이다.

**18**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읽은 후 활동에 해당한다.

## STEP 2 기출 기초 테스트

본문 158~159쪽

**01** ③ **02** ③ **03** 관점, 표현 방법 **04** ⑤
**05** ㉠ 표제, ㉡ 부제 **06** ② **07** ①
**08** ③ **09** ② **10** ②

**01** '학생 1'은 많은 도서를 읽으며 지역 특산물과 관련한 부분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읽는 발췌 읽기와 빨리 읽는 속독이 필요하다. '학생 2'는 글을 빨리는 읽지만 내용을 내면화하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전부 읽기와 꼼꼼하게 읽는 정독이 필요하다.

**02** 시, 소설, 수필, 시나리오 등은 문학 작품이므로 문학 작품을 읽는 목적인 '재미, 감동을 얻기 위한 읽기'가 적절하다.

**03** 신문 기사와 같은 매체의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의 관점과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04** 이 광고는 '후광의류'라는 회사의 옷을 구매하여 입으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말함으로써 소비자가 이 회사의 옷을 많이 구매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후광의류'에서 소재의 품질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광고에 나타나지 않는다.

**05** 신문 기사는 표제, 부제, 본문으로 구성된다. 표제는 신문 기사의 제목을, 부제는 제목에 덧붙어 그것을 보충하는 제목을, 본문은 신문에서 주가 되는 글을 가리킨다.

**06** 감기에 좋은 영양분에 대해 소개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자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처가 감기를 낫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초신성 폭발의 잔해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 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으로 만들기에 적절하지 않다.

**08** 글의 중심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은 읽은 후의 활동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용어의 뜻을 알아보는 활동은 읽기 중 활동에 해당한다.
② 글에 나타난 이미지 등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읽는 것은 읽기 중 활동에 해당한다.
④ 글의 주요 내용에 밑줄을 치며 읽는 것은 읽기 중 활동에 해당한다.
⑤ 글을 읽으며 궁금한 내용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은 읽기 중 활동에 해당한다.

**09** 글쓴이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만남을 '맛난 만남'이라고 표현하여 그 의미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0**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예측해 보는 것은 읽기 전 활동에 해당한다.

## STEP 3 교과서 기본 테스트

본문 160~162쪽

**01** ⑤ **02** ㉠ 정보, ㉡ 제공 **03** ③
**04** 이런 광고 방식이 치약 한 통을 사러 갔던 사람에게 4통을 충동구매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05** ④ **06** ②
**07** ③ **08** ⑤ **09** ① 좋은 작품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음미한다. ② 감동적인 부분은 다시 되새기며 조용히 낭독해 본다.
**10** ③ **11** ② **12** ③ **13** ○○산의 국립 공원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 ○○산의 국립 공원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14** ③

**01** 이 글은 설명문으로 이와 같은 글을 읽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이다. 글을 읽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은 재미, 감동,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글을 읽을 때 필요한 읽기 활동이다.

**02** 이 글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슈퍼마켓의 광고 문구에 녹아 있는 소비자의 심리 현상에 대해 소개하여 보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03** 이 글은 슈퍼마켓의 광고 문구에 담긴 물건 판매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이나 주장에 대한 반론은 나타나 있지 않다.

**04** ㉠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면 ㉠과 같은 광고 문구를 만든 것이 소비자에게 치약 4통을 충동구매하도록 부추기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05** ㉡은 이 글에서 정확히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독자에게 판단을 맡긴 부분이다. 따라서 숨겨진 의미에 해당하고, 학생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였다.

**06** 이 글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관점은 즐거움을 얻는 독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비판하고 분석하는 독서, 정보 습득을 통해 이익이 되는 독서와 비교하여 마음의 위로와 감동을 얻을 수 있는 독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07** 친구들과 글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읽기 과정 중 읽은 후 활동에 해당한다.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는 것은 읽기 목적과 읽기 방법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것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08** '이 글에 제시된 독서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이 글을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질문이다. 또한 질문 만들기 활동은 읽기 전 과정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09** 3문단에서 글쓴이는 '좋은 작품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음미하기도 하고, 감동적인 부분은 다시 되새기며 조용히 낭독해 보기도 한다.'라고 독서 방법을 제시하였다.

**10** 오늘날에는 디지털 통신 매체의 발달로 매체의 접근이 일상화되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매체가 전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읽는 능력을 기르는 태도가 필요하다.

**11** (가)에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바는 ○○산은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높으므로 국립 공원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에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바는 ○○산의 국립 공원 지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2** (가)와 (나) 모두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다. 관점이 잘 드러나는 표제를 사용했고, 본문에서 글쓴이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정보들이 나열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을 통해 글쓴이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13** (가)와 (나)는 모두 ○○산의 국립 공원 지정과 관련한 보도를 하고 있는 신문 기사이다. 하지만 (가)는 생태계 보존 등의 중요성을 이유로 ○○산의 국립 공원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주민들의 반대 집회를 주로 보도함으로써 ○○산의 국립 공원 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정적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14**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 읽기 목적에 맞는 읽기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결과 읽기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창의·융합 서술형

본문 163쪽

**01** (1) 예시 답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을 끊을 수 없는 청년들을 일컫는다.
(2) 예시 답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캥거루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3) 예시 답 청년 실업 문제가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부모의 노후 준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02** 예시 답 출산율 감소,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의 감소, 국내 총생산의 감소 문제를 겪는 나라는 미국, 일본, 유럽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라는 재앙을 겪을 것으로 점쳐지는 인구 대국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청년 자원에 재투자하고 청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작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03** 예시 답 (가)는 개인의 사례를 보여 줌으로써 청년 실업의 문제를 개인 혹은 가정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나)는 청년 실업의 문제를 국가적, 세계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01** (가)는 청년의 취업 문제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기 위해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를 인용하고 있는데, '캥거루족'이란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캥거루처럼 성년이 된 자식들이 독립하지 못하거나 취직을 하지 못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사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글에 나타난 '캥거루족'의 개념과 기자가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이유, 그리고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1)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을 끊을 수 없는 청년을 일컫는다.'<br>(2) '취업을 못 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의 모습이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캥거루와 유사하기 때문이다.'<br>(3) '부모들이 자녀를 돕느라 노후 준비를 못 하고 있다.'<br>와 같은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경우 | 6 | 4 |
| (1), (2), (3) 중 두 가지만 맞게 서술한 경우 | 4 | |
| (1), (2), (3) 중 한 가지만 맞게 서술한 경우 | 2 | |
| • 의미가 모호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br>•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청년들과 캥거루의 '유사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 각 −1 | |

**유사 정답 |** (2)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없어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말이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한다.

**02** (나)의 내용 중 인구 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나라와 그 문제에 대한 대처법을 사용하여 기자의 화법으로 서술해야 한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도 예외가 아니'라는 내용과 '청년 자원 재투자 및 청년 인재 유치'의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경우 | 4 | 4 |
|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도 예외가 아니'라는 내용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 | 2 | |
| '청년 자원 재투자 및 청년 인재 유치'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 | 2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입니다'와 같은 종결 어미(격식체 매우 높임)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경우 | 각 −1 | |

**03** (가)는 뉴스 보도문으로 기자의 말을 통해 청년 실업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제시함으로써 청년 실업이 개인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청년 인재에 투자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가)는 '청년 실업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 (나)는 '청년 실업 문제를 국가적 혹은 세계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경우 | 4 | 4 |
| (가)에 대한 내용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2 | |
| (나)에 대한 내용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2 | |
| • 의미가 모호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br>• '−다'와 같이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경우 | 각 −1 | |

**유사 정답 |**
- (가)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청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서술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 (나)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 세계적 차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서술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 (나)에 대해서 국가적 해결책을 사회적 해결책, 공동체적 해결책 등으로 서술한 것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 4. 듣기·말하기

## (1) 듣기·말하기 방법 / 대화하기

### STEP 1 개념 확인 테스트 본문 170~171쪽

01 듣기, 말하기 02 ㉠: 공손성, ㉡: 순서 교대, ㉢: 협력
03 태도의 격률 04 겸양의 격률 05 ㉠ 06 찬동의 격률
07 순서 교대의 원리 08 협력의 원리 09 ㉡
10 ㉠ – d, ㉡ – c, ㉢ – b, ㉣ – a 11 (1) ○, (2) × 12 형식, 내용
13 언어 예절 14 ㉠: 지역, ㉡: 세대 15 ㉡
16 1 17 2 18 2 19 1
20 2 21 2

**01**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의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듣기·말하기 방법을 잘 파악해야 한다.

**02** 대화의 원리 중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대화하는 원리는 '공손성의 원리',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교대되고 정보가 순환되는 원리는 '순서 교대의 원리',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이나 요구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대화하는 원리는 '협력의 원리'이다.

**03** 태도의 격률은 협력의 원리에 해당한다.

**04**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 중 겸양의 격률에 해당한다.

**05** 동의의 격률은 상대방과 불일치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일치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이다. 제시된 발화에서는 "네 말대로 그런 장점도 있겠네."라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표현은 최대화하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며 상대방의 의견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최소화하여 표현하였다.

**06** 찬동의 격률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의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이나 맞장구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이다. 제시된 발화는 박 선생님의 딸을 칭찬하는 말이므로 공손성의 원리 중 찬동의 격률에 해당한다.

**07** 순서 교대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가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08** 대화 상황에서 주제와 관련 없는 다른 주제를 꺼내는 것은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09** 지역에 따라 방언이 존재하며 듣기·말하기 방식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10**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양의 격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질의 격률',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은 '관련성의 격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은 '태도의 격률'에 해당한다.

**11**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적·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12**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형식이나 내용이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따르고 있더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점검해야 한다.

**13** 언어 예절이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을 말한다.

**14**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정서가 녹아 있는 다양한 방언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역에 따른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의 특징이며, 청소년들은 신어와 준말을, 노년층은 예스러운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세대에 따른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의 특징이다.

**15**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각 언어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의사소통에 참여해야 한다.

**16**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정보 전달, 설득, 친교 형성, 정서 표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오답 피하기

대화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순서 교대의 원리에 의해 계속 역할이 변화한다. 말을 할 때에는 화자가 되지만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는 이전 화자가 청자가 된다.

**17** 대화의 원리를 지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 원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대화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8**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격률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자신의 말이 끝나 갈 때 다음 화자를 지목해 주는 것은 순서 교대의 원리에 해당한다.

**19** 겸양의 격률은 공손성의 원리 중 하나로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다. 1의 화자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니……"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겸양의 격률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2의 화자는 "이 두껍고 어려운 책을 벌써 중간까지 읽으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의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이나 맞장구치는 표현은 최대화하고 있는데, 이는 공손성의 원리 중 찬동의 격률에 해당한다.

**20** '다른 사람이 화자로 지목되었을 때 이를 무시하고 끼어들면 안 된다.'는 대화 상황에서 순서 교대와 관련하여 고려할 점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화제와 관련된 이야기만을 해야 한다는 것은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에 해당한다.

**21** 순서 교대의 원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대화의 원리는 모두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STEP 2 기출 기초 테스트 본문 172~173쪽

**01** ⑤ **02** ③ **03**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을 가리킵니다. **04** ③ **05** ③ **06** ⑤
**07** ③ **08** ㉠: 찬동, ㉡: 겸양 **09** ③
**10** ① **11** ④

**01** 대화의 원리는 대화 상황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규칙 혹은 규범으로, 화자와 청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02** '혼자 계속해서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구절을 통해 혼자서 계속 말하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언어 예절은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과 소통할 때 지켜야 할 예절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04** '기서'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며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고 있다.

**05** '기서'는 물건에 쓰이는 어휘인 '치워'를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청자를 고려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06** 대화의 원리에는 공손성의 원리(요령의 격률, 관용의 격률, 찬동의 격률, 겸양의 격률, 동의의 격률), 순서 교대의 원리, 협력의 원리(양의 격률, 질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태도의 격률)가 있다.

**07** 친구가 '나'에게 화를 낸 것은 '나'가 사과를 하며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고 친구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사과를 할 때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따지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정중하게 미안함을 표현해야 한다.

**08** '찬수'는 '정호'의 자세를 칭찬하며 격려하고 있으므로 공손성의 원리 중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찬동의 격률을 사용하고 있다. '정호'는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공손성의 원리 중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최대화하여 겸손하게 말하는 겸양의 격률을 사용하고 있다.

**09** 상대방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은 협력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③을 제외한 다른 격률들은 모두 대화의 원리 중 '협력의 원리'에 관한 내용이다. ①은 양의 격률, ②는 질의 격률, ④는 관련성의 격률, ⑤는 태도의 격률에 해당한다.

**10** (가)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안을 거절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만을 성의 없이 밝히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언어 예절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 (나)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안에 공감을 표한 후,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언어 예절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 이 대화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각자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사용하는 동물의 명칭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말하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 STEP 3 교과서 기본 테스트 본문 174~176쪽

**01** ⑤ **02** ⑤ **03** 순서 교대의 원리
**04** ② **05** ④ **06** ① **07** 양의 격률
**08** ⑤ **09** ④ **10** ④ **11** 말하기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12** ④ **13** ⓐ: 청소년, ⓑ: 노년 **14** ②

**01**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언어 예절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관습'이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온 것을 말하므로, 언어 예절을 지키는 것이 오래된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2** 상대방이 말할 때에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표현하며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올바른 언어 예절이다.

**03** 대화의 원리 중 순서 교대의 원리는 대화할 때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청자와 화자가 원활하게 교대되고 정보가 순환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04** 사과할 때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한다.

**05** 딱딱한 목소리로 말하거나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사과하면 상대방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06** 재영은 소희에게 '미안하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①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②, ③ (나)에 의하면 사과를 할 때 변명을 늘어놓거나 상대방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재영은 변명을 하면서 상대방인 소희를 탓하고 있다.

④ (나)에 의하면 사과를 할 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고 했으나, 재영은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⑤ (나)에 의하면 사과를 할 때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재영은 부루퉁한 표정을 지음으로써 자신의 언짢음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하였다.

**07** 민호는 종국이에게 책을 다른 친구에게 갖다 달라며 부탁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 종국이가 민호에게 부탁의 이유를 물었음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민호가 협력의 원리 중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08** 민주는 자신이 사는 곳을 말할 때 '○○구'까지만 알려 주었는데, 찬우는 자신이 사는 곳의 상세한 주소를 알려 주고 사는 곳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하였다. 이는 협력의 원리 중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에 어긋난다.

**09** (다)의 대화에서 수리 기사는 자신을 칭찬하는 말은 최소화하고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는 겸양의 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④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어 공손성의 원리 중 찬동의 격률에 어긋나므로 언어 예절에 알맞게 수정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10** 듣기·말하기 방식은 세대, 성별, 지역 등과 같은 언어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11** 동일한 대상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것을 지역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말하기 방식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12** 개인적 특성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다. 민석과 영수의 대화에서 민석은 낯을 가리는 성격이므로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수는 민석이 자신과 다른 듣기·말하기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석의 말하기 태도를 오해하여 화를 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제시된 대화를 통해서 민석이 영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고, 영수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제시된 대화를 통해 영수가 민석을 싫어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③ 영수와 민석은 같은 반 친구이므로 세대 차이로 인해 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⑤ 제시된 대화에서 영수와 민석은 다른 지역 방언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어로 대화하고 있다.

**13** 생선(생일 선물), 문상(문화 상품권), 버카충(버스 카드 충전)과 같은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는 청소년층이고, 한자어와 예스러운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는 노년층이다.

**14** 제주도 사투리를 쓰는 친구의 말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대화를 나누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서로의 듣기·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이다.

### 창의·융합 서술형 본문 177쪽

**01** (1) 예시 답 '엄마'라고 부르는 것

(2) 예시 답 '엄마'라고 부르지 않기

(3) 예시 답 해당 지역의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지 못했기

**02** 예시 답 선준이 친구 어머니도 어머니(어무이)라고 부르는 경상도, 전라도의 담화 관습에 대해 "그거 진짜 좋다."라고 말한 점으로 보아,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이를 배려하고 포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01** 재준이 친어머니도 아닌 나정이 어머니를 '어무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선준은 궁금해한다. 서울이 고향인 선준은 그런 담화 관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라도가 고향인 호준이 "아랫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불러."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서울과 다르게 친구 어머니를 '어머니(어무이)'라고 부르는 담화 관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1) '엄마'라고 부르는 것 (2) '엄마'라고 부르지 않기 (3) 해당 지역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지 못했기'라는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경우 | 6 | 6 |
| (1) 혹은 (2)와 (3)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4 | |
| (1), (2)는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3)은 서술하지 못한 경우 | 3 | |
| (1) 혹은 (2)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2 | |
| 의미가 모호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 | −1 | |

**유사 정답 |** '지역, 지방, 경상도, 전라도' 대신 '아랫동네'라고 표현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담화 관습' 대신 '듣기·말하기 방식', '언어 방식', '언어문화' 등 말하는 방식, 문화, 관습 등의 의미를 지닌 말로 설명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한다.

**02** 선준은 다른 지역의 담화 관습에 대해 "그거 진짜 좋다."라고 말하며, 다른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준이 ㉡과 같이 말한 이유는 다른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배려하고 포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친구 어머니를 어머니(어무이)라고 부르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담화 관습을 선준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 근거가 "그거 진짜 좋다."라는 선준의 대사라는 점, 그래서 선준이 ㉡과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이 속하지 않은 언어 공동체의 언어 관습을 배려하고 포용하려고 했다는 점이 모두 서술된 경우 | 10 | 10 |
| 지역의 담화 관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만 서술하지 못한 경우 | 8 | |
| 선준의 대사를 근거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5 | |
| 올바른 듣기·말하기 태도라는 평가만 있는 경우 | 3 | |
| 위의 세 가지 중 한 가지도 표현하지 못한 경우 | 0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다.'와 같이 평서형 종결 어미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경우 | −1 | |

**유사 정답 |** '아랫동네'의 언어 관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표현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친구 어머니를 어머니(어무이)라고 부르는 담화 관습'이라고 표현하는 대신 간단하게 '담화 관습'이라고 표현해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평가한 것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토론과 협상

STEP 1 **개념 확인 테스트** 본문 184~185쪽

**01** 토론 **02** 정책 논제 **03** 가치 논제 **04** ㉡
**05** ㉠: 주장, ㉡: 이유, ㉢: 근거 **06** 정책 토론의 절차
**07** ㉡ **08** (1) ○ (2) × (3) ○ **09** 협상
**10** 조정 **11** 의사소통 **12** (1) × (2) ○ (3) ○
**13** ① **14** 1 **15** 1 **16** 2
**17** 2 **18** 1

**01** 토론은 특정 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논증을 구성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말하기이다.

**02** 정책 논제는 어떤 정책의 도입, 폐지, 개선 등 정책의 실행 여부와 실행 방안에 관한 논제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개선해야 한다.'와 같은 것이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03** 〈보기〉의 명제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논하고 있으므로,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지 또는 옳고 그른지 가치 판단을 하는 가치 논제에 해당한다.

**04** 정책 토론의 필수 쟁점에는 '문제의 심각성', '제시된 방안의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이 있다. ㉡은 필수 쟁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05** ㉠은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주장'에 해당한다. ㉡은 '~ 때문이다.'로 주장을 내세우게 된 원인을 나타내므로 '이유'에 해당한다. ㉢은 '○○○ 보고서에 따르면 ~'과 같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근거'에 해당한다.

**06** 정책 토론은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을 선정하고, 입장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한 후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에 따라 토론을 진행한다.

**07** 반대 신문식 토론은 '입론 - 교차 신문 - 반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교차 신문은 입론 단계에서 행해지며, 바로 앞 차례의 상대측 토론자가 입론한 내용에 대해 질문한다. 따라서 반대 신문식 토론의 두 번째 발언은 찬성 1의 입론에 대한 반대 2의 교차 신문이 적절하다.

**08** 논제를 분석하여 토론의 쟁점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은 토론자의 역할과 태도이다.

**09** 나와 누나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하므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협상의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

**10** 협상의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으나 크게 시작, 조정, 해결 단계로 나뉜다.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측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상호 검토하며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간다.

**11** 협상을 할 때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자신의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조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소통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며 말함으로써 원활한 타협을 이룰 수 있다.

**12** 협상의 대안 탐색 과정에서는 갈등을 유발한 숨은 걸림돌을 찾고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13**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협상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자기 측과 상대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다(㉡).

오답 피하기

㉢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좋다.

㉣ 해결 단계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14** 논제의 종류에는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가 있다.

**15**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정책의 폐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정책의 실행 여부와 방안에 관한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2의 '사형수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 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것이므로,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 가치를 판단하는 가치 논제에 해당한다.

**16** 제시된 명제는 '자동차 요일제 시행' 여부 쟁점에 관한 의견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장'에 해당한다.

**17** 협상은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하여 공동의 이익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오답 피하기

1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 방법은 토론이다.

**18** 협상에서의 의사 결정은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협상을 통해 제시한 여러 대안 가운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여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오답 피하기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하고 양보하는 대신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는 대안 탐색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 STEP 2 기출 기초 테스트 본문 186~187쪽

| | | | |
|---|---|---|---|
| 01 ② | 02 입론 | 03 ③ | 04 ② |
| 05 ② | 06 대안 | 07 ② | 08 ③ |
| 09 ② | 10 ④ | 11 ③ | |

**01** 입론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말하기이므로 '반론'에서 제시한 내용의 허점을 찾을 필요가 없다.

**02** 토론에서의 말하기 방식에는 입론, 반론, 교차 신문이 있다. 제시된 설명은 입론에 해당한다.

**03** 사실 논제는 사실의 진위, 즉 사실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논제이다.

**04** 쟁점과 관련한 논의가 논쟁의 핵심이 되므로 토론자는 쟁점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05** 반대 1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물 실험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앞서 찬성 측은 ~ 동의하기가 어려우며"라며 찬성 측 주장에 대한 자신의 반대 주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찬성 측 주장과 상관없는 쟁점을 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우선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중 '문제'에 대한 논증이라고 봐야 한다.

④ "동물 실험은 동물의 ~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에 해당한다.

⑤ "현재 동물 실험은 ~ 환경을 감시합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에 해당하므로 논증 구성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06**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는 문제를 확인하여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서로 간의 견해 차이를 좁혀 나간다.

**07** 타협을 통해 공연 순서를 정하고자 하므로, 제시된 상황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인 협상이 필요하다.

**08** 이 담화는 협상의 시작 단계로, 협상 참여자들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의 갈등의 원인은 타악기부와 기악부 모두 공연 순서상 마지막에 공연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09** 이 협상에서 타악기부와 기악부는 타악기부가 마지막에 공연을 하는 대신에, 기악부와 함께 마지막 곡을 합주하고, 기악부는 처음에 공연을 하는 대신에 교문에서부터 연주를 시작하여 관객을 무대로 이끄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즉, 타악기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은 대신에 기악부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기악부는 공연 순서를 양보한 대신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얻게 되었다.

**10** 협상의 해결 단계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11**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토론에서 논증 구성 방식을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 STEP 3 교과서 기본 테스트

본문 188~190쪽

**01** 교차 신문(반대 신문) **02** 찬성 1 입론, 교차 신문, 입론

| | | | |
|---|---|---|---|
| **03** ④ | **04** ① | **05** ④ | **06** ③ |
| **07** ① | **08** ⑤ | **09** ① | **10** ④ |
| **11** ① | **12** ③ | **13** ③ | **14** ① |

**01** 제시된 부분은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반대 2가 찬성 1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이끌어 내고 있는 교차 신문(반대 신문) 단계이다. 이는 사회자의 마지막 말 "반대 측 제1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를 통해 알 수 있다. 반대 측 제1 토론자의 입론 전 단계가 반대 측 제2 토론자의 교차 신문이기 때문이다.

**02** 사회자가 마지막에 반대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토론은 그 전 단계인 반대 측 제2 토론자의 교차 신문 단계이다. 〈보기〉의 토론 절차를 참고할 때 이전 단계는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이다.

**03** 찬성 1은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 개발에 대한 반대 2의 질문에 그 경우는 동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04** 가치 논제는 가치관의 차이를 따지는 논제이고, 정책 논제는 어떤 정책의 도입, 폐지, 개선 등 정책의 실행 여부와 실행 방안에 관한 논제이다.

**05** 논증을 구성할 때 이유는 내세우는 주장에 이르게 된 원인이나 조건으로,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고, 근거가 어떻게 주장과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된 주장은 인터넷 공간에서 행해지는 언어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 주장에 대한 이유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에 대한 대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이 27.7%나 된다는 근거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를 종합할 때 주장에 대한 이유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인터넷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규제가 약하다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에 대한 대책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이 27.7%나 된다는 근거와도 거리가 멀다.

②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 사용 의식이 낮다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이유에는 해당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에 대한 대책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③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에 대한 대책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⑤ 인터넷 공간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행해지는 언어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므로 주장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06** 이 토론의 사회자는 토론자가 입론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 팽팽한 상황인데요"라며 토론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② "지금부터 ~ 시작하겠습니다."라며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있다.

④ 처음 부분에서 "여러분은 ~ 경험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며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⑤ "먼저 ~ 들어 보겠습니다."라며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07** 고전식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 측 2명과 반대 측 2명이 각각 한 조가 되어 입론과 반론의 과정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토론 방식이다. 입론은 '찬성 1 → 반대 1 → 찬성 2 → 반대 2'의 순서로, 반론은 '반대 1 → 찬성 1 → 반대 2 → 찬성 2'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전식 토론에서 '찬성 1'의 입론 다음에는 '반대 1'의 입론이 이어진다.

**08** 찬성 1은 유전자 변형 작물은 재배가 쉽고 경제성이 높아 호주의 사례와 같이 농가 소득을 높여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농업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재배가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찬성 1의 발화에 나타나 있지 않다.

**09** '찬성 1'은 토론의 논제(정책 논제)인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재배를 허용해야 한다."의 필수 쟁점 중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현재 우리 농촌의 ~ 떠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오답 피하기

㉡ "이처럼 ~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라며 주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 "비바람이나 병해충에 ~ 줄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다.

㉣ "유전자 변형 작물이란 ~ 부여한 작물"이라고 논제와 관련된 중요 어휘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 "2016년 호주에서 ~ 증가했다고 합니다."라고 제시된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언급하였다.

**10** 협상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11** 명우과 구청 공무원은 전시회의 공공성 여부를 두고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합의하였으며, 구청 강당을 빌리는 일정에 대하여 서로 제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있으므로, 이 협상은 조정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조정 단계에서는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고,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하며, 대안을 탐색하여 합의를 유도한다.

**12** '구청 공무원'은 고등학생을 위로하고 힘을 준다는 의도의 전시회는 공공성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13** 협상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해결 단계에서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구청 공무원'이 제시한 시기인 다음다음 주가 전시회의 시기로, '명우'가 제시한 3일이 전시회 기간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4** 협상은 서로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양보를 발휘하여 타협하고 조정하는 말하기이다. 반면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정책 논제에 대한 토론에서 다룰 내용으로 적절하다.

## 창의·융합 서술형

본문 191쪽

**01** (1) 예시 답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예시 답 재배가 쉽고 / 많이 수확할 수 있어서

(3) 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02** 예시 답 (1)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가 반드시 농가 소득을 높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곡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2) 예시 답 초기 비용과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제도적 지원, 수입 곡물을 대신할 사료 개발 등이 있습니다.

(3) 예시 답 미국의 옥수수 수확량이 서유럽의 일반 옥수수 수확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01** 토론의 첫 번째 쟁점이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는 경제적이다.'이고 찬성 측이므로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는 경제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유와 근거를 고려하여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가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1)~(3)의 답을 모두 서술한 경우 | 6 | 6 |
| (1)~(3) 중 두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4 | |
| (1)~(3)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2 | |
| 의미가 모호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br>'~입니다.'와 같이 토론 화법(격식체 매우 높임)이 아닌 경우 | 각 −1 | |

유사 정답 | '재배가 쉽고'를 '농사짓기가 쉽다.', '키우기 쉽다.' 등으로 써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02** 반대 측의 첫 번째 반론이므로 입론에 나왔던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쳐야 한다. 따라서 농가 소득을 높인다는 주장, 곡물 자급률을 높인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하고 이유 및 근거도 이 내용을 뒷받침해야 한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1)~(3)의 답을 모두 서술한 경우 | 6 | 6 |
| (1)~(3) 중 두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4 | |
| (1)~(3)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2 | |
| 의미가 모호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br>'~입니다.'와 같이 토론 화법(격식체 매우 높임)이 아닌 경우 | 각 −1 | |

유사 정답 | '농가 소득을 높여 주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농가를 부유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농업 경제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를 써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 5. 쓰기

## (1) 쓰기의 본질

### STEP 1 개념 확인 테스트 본문 197~198쪽

01 상호 02 목적 03 ⑤ 04 ㄱ
05 ㄷ 06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쓰기 07 ㄱ
08 ㉠ 익명성, ㉡ 쌍방향성, ㉢ 신속한 전파력, ㉣ 개방성, ㉤ 광범위한 영향력 09 학생 3 10 ㄴ 11 ㄴ
12 ❶ 13 ❶ 14 ❷ 15 ❶

**01** 쓰기의 본질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02** 쓰기 맥락은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의 제재, 글의 주제, 수록 매체 등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말한다.

**03** 쓰기 맥락에서 매체는 글을 실을 매체를 의미한다.

**04** 쓰기의 특성 중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쓰기'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다양한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쓰기 과정에 따라 종합하고 조직하여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05** 쓰기 과정에서 내용을 생성할 때에는 스스로 생각한 내용 외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다양한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활용한다.

**06** 쓰기의 특성 중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쓰기'는 글쓴이가 구성한 의미를 바탕으로 글쓴이와 독자가 소통하는 사회적 소통 행위로서의 쓰기를 가리킨다.

**07** 독자의 반응이나 비평은 다시 글쓴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쓰기가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08** 인터넷 매체를 통한 글쓰기는 개방성, 쌍방향성, 익명성, 신속한 전파력,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다.

**09** 인터넷 매체를 통한 글쓰기에서는 매체의 특성상 글쓴이와 독자, 독자와 독자 사이에 연속해서 의견 교환이 일어난다. 글에 댓글을 달고, 댓글에 또 댓글을 다는 등 연속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상호 작용'이라 평가한다. 따라서 댓글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학생 3은 잘못된 태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10**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쓰기에서 글쓴이는 독자와 소통해야 하며, 독자의 반응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사회·문화적 실천 행위로서의 쓰기는 쓰기를 통해 사회·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글을 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쓰기 활동을 가리킨다.

**12** 쓰기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다.

**13**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쓰기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다양한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쓰기 과정에 따라 종합하고 조직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14**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쓰기'가 가능한 이유는 글이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이나 비평이 글쓴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❶은 사회·문화적 실천 행위로서의 쓰기에 해당한다.

**15** 쓰기 맥락의 구성 요소 중에서 글을 읽을 독자의 나이, 성별, 대상 등을 고려하는 것은 '예상 독자'에 해당한다.

### STEP 2 기출 기초 테스트 본문 199~200쪽

01 ③ 02 ④ 03 ④ 04 의사소통
05 ③ 06 ② 07 ㉠ 익명성, ㉡ 왜곡
08 ⑤ 09 ②

**01**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읽고 독자가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 글쓴이가 또 반응을 보이는 것은 글쓴이와 독자의 의사소통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 이를 통해 쓰기가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알 수 있다.

**02** 이 글에서 학생은 할아버지 댁에서 청기와를 발견하고 이것이 조선 시대의 청기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 기사와 관련 서적을 찾아보았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는 '청기와 발견 경험과 청기와에 대한 자료 조사'가 적절하다.

**03** 블로그는 인터넷 매체로, 인터넷 매체에서는 글쓴이와 독자가 각자의 생각을 쉽고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블로그에 글을 쓴다고 하여 궁금한 점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블로그를 선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쓰기란 글쓴이와 독자가 의미를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이며, 사회적 상호 작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에는 '의사소통'이 들어가야 한다.

**05** 이 글에서는 글쓴이와 독자가 글을 매개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였을 뿐,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는 하지 않았다.

**06** 이 글에서는 쓰기가 글쓴이와 독자의 대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의미 전달에 관심을 가지고, 독자를 향한 대화가 될 수 있는 글을 써야 한다는 반응이 적절하다.

**07** 인터넷 글쓰기의 특성 중 하나는 본명을 드러내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다는 이른바 '익명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글을 쓸 때는 익명성을 이용해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08** 글쓴이와 독자는 글을 매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때 독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글의 내용을 다양하게 수용한다.

**09** 학생은 진로 탐색을 위해 로봇 공학자와 관련된 글을 쓰고자 하므로 글의 목적은 정보 전달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STEP 3 교과서 기본 테스트

본문 201~202쪽

**01** ⑤ **02** ③ **03**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쓰기
**04** ④ **05** ② **06** ③ **07** ⑤
**08** ④

**01** 쓰기 맥락을 정할 때 글이 실릴 매체로 라디오 방송 누리집을 설정하였으므로 빠른 시간에 답글, 댓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매체를 통한 글쓰기의 특성상 쌍방향 소통이 매우 중요하므로 답글을 보지 않는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02** 쓰기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기 때문에 독자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따라서 속상하더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맞춤법을 알아 두라고 충고하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03** 인터넷 글쓰기의 특성은 글쓴이가 쓴 글에 독자가 다양하게 반응하며 댓글을 달고, 글쓴이 혹은 독자가 그 댓글에 또 추가하여 댓글을 달며 쌍방향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다.

**04** 이 글에서 댓글을 단 독자들은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독자들이 저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글의 내용을 다양하게 수용하기 때문이다.

**05** 이 글의 내용에서 영훈이 자신의 글에 대해 독자들의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6** 본명을 드러내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최대한 비판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상대방을 비윤리적으로 비방할 수 있으므로 글을 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07** 글쓴이는 글을 쓸 때 자신이 쓴 글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또는 어떻게 쓰면 독자에게 큰 영향을 줄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쓰기의 특성을 보여 준다. 하지만 글쓴이가 독자의 부정적 반응을 예측하여 주제를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학생이 쓴 글에 대해서 독자는 댓글로 글의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학생은 그에 대해 댓글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글을 수정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독자의 반응이 글쓴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쓰기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 창의·융합 서술형

본문 203쪽

**01** (1) 예시 답 글쓴이는 광화문을 사람처럼 여기며 감정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예시 답 글쓴이는 헐리는 광화문에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02** 예시 답 광화문이 헐렸다가 다시 지어지는 것에 대한 울분을 토해 냄으로써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을 보여 주고, 우리 민족에게 광화문의 훼손은 우리 민족혼의 훼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03** 예시 답 광화문이 원래의 자리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옴으로써 일제에 의해 훼손되었던 민족혼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01** 글쓴이는 우리 민족의 혼을 상징하는 광화문이 일제에 의해 헐려 짓는다는 사실에 울분을 가지고 있고, 헐리는 광화문을 마치 사람처럼 여겨 광화문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1) '광화문을 사람처럼 여기며 감정을 지닌 대상으로 느낀다.', (2) '헐리는 광화문에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낀다.'와 같은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경우 | 4 | 4 |
| (1), (2)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2 | |
| 의미가 모호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 '-다.'와 같이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경우 | −1 | |

**유사 정답 |** (2) '연민, 안타까움'과 유사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02** (가)의 글쓴이는 광화문을 허무는 것은 일제의 만행이므로 그에 대한 울분을 토함으로써 일제에게 우리 민족의 울분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글을 썼을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에게 광화문의 훼손은 우리 민족의 얼을 훼손하는 것임을 알려 울분과 분노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광화문이 헐리고 다시 지어진다'는 내용과 '일제에 대한 저항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는 내용, '광화문의 훼손은 우리 민족혼에 대한 훼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경우 | 4 | 4 |
| '일제에 대한 저항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는 내용과 '광화문의 훼손은 우리 민족혼의 훼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내용만 서술한 경우 | 3 | |
| '광화문이 헐리고 다시 지어진다'는 내용만 서술한 경우 | 2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다.'와 같은 종결 어미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경우 | -1 | |

**유사 정답 |** 일제에 대해 '저항 정신을 보여 주려고', '저항하려고',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잘못됨을 비판하려고'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 우리 민족에 대해 '민족혼을 알리기 위해', '민족의 얼을 살리기 위해', '일제의 부당함(혹은 만행)을 알리기 위해', '마음속의 울분을 느끼도록' 등은 정답으로 인정한다.

**03** (가)와 (나)의 내용을 통해 광화문이 우리의 민족혼을 상징하며, 일제가 광화문을 헐었다가 건춘문 옆으로 옮겨 다시 지은 것에는 우리의 민족혼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화문이 본래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은 우리의 민족혼이 회복되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일제에 의해 우리의 민족혼이 훼손되었다'는 내용과, '광화문이 원래의 자리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우리의 민족혼이 회복되었다'는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경우 | 4 | 4 |
| '광화문이 원래의 자리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우리의 민족혼이 회복되었다'는 내용만 서술한 경우 | 2 | |
| 의미가 모호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 '-다.'와 같이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경우 | -1 | |

**유사 정답 |** '민족혼'은 '민족의 얼', '우리의 얼' 등으로 표현하여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 (2) 쓰기의 방법과 태도

### STEP 1 개념 확인 테스트 본문 208~209쪽

**01** ㉠ 생성하기, ㉡ 표현하기 **02** ㄱ, ㄴ, ㄷ **03** ㄱ
**04** ㄷ **05** 학생 2 **06** 내용 조직하기 **07** 문단, 단어
**08** ㄹ **09** ㄴ **10**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 쓰기
**11** ㉠ 목적, ㉡ 주제, ㉢ 예상 독자 **12** ㄱ, ㄷ **13** 1
**14** 1 **15** 2 **16** 2 **17** 1

**01** 쓰기 과정은 '계획하기 → 생성하기 →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로 이루어진다.

**02** 계획하기에는 목적 정하기, 주제 정하기, 예상 독자 떠올리기, 적절한 매체 정하기, 주제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 파악하기 등이 해당된다. 표현 점검하기는 고쳐쓰기 단계에서 필요하다.

**03** 쓰기 과정 중 내용을 생성할 때는 글쓴이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한다.

**04** 개인의 경험과 관련한 자료는 주관적인 견해를 담고 있어 신뢰성이 낮다. 공공 기관의 자료 및 관련 서적과 같이 출처가 분명하고 신뢰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05**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이미 생성한 내용이라도 추가, 보완, 삭제 등을 통해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다.

**06** 통일성, 응집성 등을 고려하여 생성한 내용을 조직하는 것, '처음-중간-끝', 시간 순서, 공간 이동 순서, 논리 관계 등의 기준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것,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07** 고쳐쓰기는 쓰기 맥락에 어긋나는 부분을 수정하는 쓰기 단계로, 글 전체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의 순서로 수정한다.

**08**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은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 쓰기' 방법에 해당한다.

**09** 설득하는 글 쓰기에서 주장과 근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10** 이 글에는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느낀 깨달음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글쓰기를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 쓰기'라고 한다.

**11** 쓰기 과정 점검하기 활동에서는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 등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과 방법을 점검·조정해야 한다.

**12** 재미를 위해 사실을 과장하는 것은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글을 쓸 때에는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사실을 과장, 축소, 왜곡하여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

**13** 주제문은 하나의 완결된 평서문으로 쓰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암시적으로 쓰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주제문으로 설정하기 어렵다.

**14** 표현하기는 적절한 표현 방법 및 문체를 사용하여 내용을 실제 글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명료하고 간결한 문장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은 고쳐쓰기 단계의 활동이다.

**15** 설득하는 글을 쓸 때는 주제와 관련된 주장과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예상 독자가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생성·조직해야 한다.

**16**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가?'는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 쓰기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다.

**17** 인터넷 매체를 통한 글쓰기의 특성 중 익명성은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는 하나 책임감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책임감 있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언어 예절에 벗어나는 글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STEP 2 기출 기초 테스트 본문 210~211쪽

| | | | |
|---|---|---|---|
| 01 ⑤ | 02 ① | 03 ① | 04 ④ |
| 05 ④ | 06 ③ | 07 ③ | 08 ⑤ |
| 09 ② | | | |

**01** 이 글은 복제 연구와 관련된 과학계의 논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이 예상 독자를 일반인으로 설정하여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상 독자를 일반인으로 설정하였으므로 과학자들이 주로 보는 과학 논문 잡지를 글을 실을 매체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생성한다. 이 글에서는 '돌리', '몰리', '폴리'의 복제 양 연구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글쓴이는 복제 양 돌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글의 내용을 생성하였을 것이다.

**03**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가 '손수건 사용을 생활화하자.'이므로 목적은 '설득하기'가 적절하다.

**04** 주변 인물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공신력 있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05** 주제를 볼 때 쓰고자 하는 글은 설득하는 글임을 알 수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찰의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쓰는 것은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06** 표현하기는 적절한 표현 방법, 문체의 사용 등을 고려하여 직접 글을 쓰는 단계이다. 이 글에서 휴지나 손 건조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는 손수건 사용을 생활화하자는 글을 쓰기 전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했을 생각으로 볼 수 있다.

**07** 정확한 수치의 자료를 제시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8**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반론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다.

**09** ㉡의 앞 문장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고, 뒤 문장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다.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

## STEP 3 교과서 기본 테스트 본문 212~214쪽

| | | | |
|---|---|---|---|
| 01 ③ | 02 ③ | 03 ③ | 04 ③ |
| 05 ① | 06 ② | 07 ④ | 08 ④ |
| 09 ① | 10 ④ | 11 ⑤ | 12 ④ |
| 13 ③ | | | |

**01** 설득하는 글 쓰기에서는 근거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02** 이 글의 글쓴이는 미국의 〈독립 선언서〉와 〈헌법〉에 제시된 권리를 근거로 하여 여성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03** 글쓴이는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은 자신의 대표도 없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여성 대

표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여성 대표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4** 독립 선언서에는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의 근거가 된다.

**05** 이 글은 공정 여행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공정 여행을 권유하고 있다.

**06** 제시된 글에서 공정 여행의 개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7** (가)에는 '^△^'나 'ㅠㅠ'와 같은 신문에 실리기 적절하지 않은 기호가 사용되었고, '않아요', '미치지요'와 같이 비격식체의 종결 어미가 중간에 사용되어 문장의 종결 어미가 일관되지 못한 문제가 드러난다. (나)에는 여행을 통해 알게 된 지역의 문화, 역사 등이 입시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적다. (다)에는 나무를 세는 단위로 '그루'가 아닌 '개'가 사용되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다)에서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 '둘째'는 (나)의 '첫째'와 대응하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08** 공정 여행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공정 여행의 의의를 밝히고 있는 (라) 앞에 오는 것이 좋다. 또한 '끝으로'로 시작하므로 첫째, 둘째 다음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은 (다)의 뒤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이 글은 수필로,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이다. 이 글에는 너무 쉽게 쓰이는 '대중적 글쓰기'에 대한 글쓴이의 성찰이 담겨 있다.

**10** 마지막 문장에서 글쓰기의 잣대는 어디까지나 '우리 마음을 얼마나 진실하게 움직이는가.'여야만 한다고 쓴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11**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면 어떡할까?'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최대 난적이다. 따라서 이 글의 쓰기의 과정을 점검하며 떠올렸을 질문과는 관련이 없다.

**12** 글쓴이는 대중적 글쓰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글쓰기는 모두 어렵고 힘들고 진지하고 아픈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곧 대중적 글쓰기라는 이름으로 쉽고 편하게 쓰는 글쓰기는 좋은 글쓰기가 아니며, 지양해야 할 글쓰기라는 것을 뜻한다.

**13**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지 않는 것,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 및 축소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언어 예절을 지키는 것도 책임감 있는 글쓰기의 태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달면서 언어 예절을 지킨 것은 책임감 있는 글쓰기 태도에 해당한다.

## 창의·융합 서술형

본문 215쪽

**01** (1) 예시 답 교장 선생님, 학생들을 위해 쉼터를 만들어 주세요.
(2) 예시 답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 학생도 있지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3) 예시 답 쉼터가 있다면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교실을 이용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학생들은 쉼터를 이용할 수 있어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2** (1) 예시 답 '동물사랑'은 유기 동물 문제는 동물 보호법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기 동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2) 예시 답 '밤그늘'은 동물을 '짐승'으로 취급하며 유기 동물 문제보다 인간의 생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예시 답 '동물사랑'은 유기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있고, '밤그늘'은 맞춤법도 틀린 데다가 반말과 과격한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01** 점검 과정을 참고할 때 총 세 가지의 수정이 필요하다. (1)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문장의 삭제, (2) 단순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 학생도 있지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다는 이유 추가하기, (3) 이유와 근거로 탁구대와 만화책은 삭제하고 쉼터가 있다면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교실을 이용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학생들은 쉼터를 이용할 수 있어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는 점 제시하기가 그것이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1), (2), (3)의 수정 결과를 모두 반영한 경우 | 6 | 6 |
| (1), (2), (3) 중 두 가지만 수정 결과를 반영한 경우 | 4 | |
| (1), (2), (3) 중 한 가지만 수정 결과를 반영한 경우 | 2 | |
| 의미가 모호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 | −1 | |

**02**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쓰기에서 글쓴이는 독자와 소통하며 영향을 끼친다. 이때 언어 예절을 지키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물사랑'은 사람들이 몰랐던 유기 동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가치관을 전파하는 등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반대로 '밤그늘'은 다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며 불쾌감을 주고 있고, 언어 예절도 지키고 있지 않아 부정적인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

| 채점 기준 | 점수 | |
|---|---|---|
| (1) '동물사랑'은 유기 동물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는 내용, (2) '밤그늘'은 유기 동물 문제보다 인간의 생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 (3) '동물사랑'은 유기 동물 보호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있고, '밤그늘'은 반말과 과격한 표현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여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경우 | 10 | 10 |
| (1), (3), 혹은 (2), (3)의 내용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 8 | |
| (1), (2)를 서술하고 (3)에서 '동물사랑' 혹은 '밤그늘' 중 한 사람의 내용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 8 | |
| (1), (2)의 내용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 5 | |
| (3)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 5 | |
|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다.'와 같은 종결 어미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경우 | −1 | |

**유사 정답 |** (2) 유기 동물 문제는 먹고살 만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 (3) '동물사랑'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답안, '밤그늘'이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는 답안, '밤그늘'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답안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